ISSN 1229-3598

제 60권 제 3호 | 2017. 9

국방연구

- 북한군 '당위원회'에 관한 연구: 형성과 발전과정, 기능을 중심으로 _ **김성주**
- 부정적 외부성을 고려한 군사분쟁: 슈타겔버그 모형 _ **박성훈**
- 전국시대의 전쟁양상과 그 군사사상 _ **기세찬**
- 도덕적 역량 검사도구(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한 통일 · 안보의식측정도구 개발 기초 연구 _ **박균열**
- 군(軍)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_ **배경기, 조창래**
- 군 조직 내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과 그 효과 _ **노주영, 손영우, 정은경**
- 육군 병사 및 간부의 고수준 스트레스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_ **문호석**

RINSA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제 60권 제 3호 | 2017. 9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RINSA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는 한국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본지는 연4회 발간되는 심사제 학술논문지입니다.

국 방 연 구

제60권 제3호

인쇄 2017년 9월 27일
발행 2017년 9월 30일
발행인 : 김 해 석 (국방대학교 총장)
편집인 : 김 영 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편집위원
김동진 (부산대학교) 김성진 (덕성여자대학교)
김용현 (동국대학교) 김학성 (충남대학교)
박한규 (경희대학교) 안문석 (전북대학교)
최아진 (연세대학교)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소)
편집위원 겸 간사
하도형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행처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전화 : (041)831-6421
E-mail : rinsakj@kndu.ac.kr
인쇄 : 화신문화주식회사 (02)2277-0624

ISSN 1229-3598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제 60권 제 3호 | 2017 09

국방연구

- 북한군 '당위원회'에 관한 연구: 형성과 발전과정, 기능을 중심으로 _ **김성주** 01
- 부정적 외부성을 고려한 군사분쟁: 슈타겔버그 모형 _ **박성훈** 25
- 전국시대의 전쟁양상과 그 군사사상 _ **기세찬** 41
- 도덕적 역량 검사도구(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한 통일 · 안보의식측정도구 개발 기초 연구 _ **박균열** 67
- 군(軍)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_ **배경기, 조창래** 93
- 군 조직 내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과 그 효과 _ **노주영, 손영우, 정은경** 119
- 육군 병사 및 간부의 고수준 스트레스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_ **문호석** 145

저자약력 165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ume **60**, Number **3** | 2017 **09**

- A Study on the Party Committee of the North Korean Army: Focused on Formation, Development and Function _ **Kim, Seongjoo** 01
- A Military Conflict with Negative Externality: Stackelberg Model _ **Park, Sung-Hoon** 25
- The Patterns of Warfare and Military thought in Warring States Period _ **Ki, Se-chan** 41
- A Basic Research to Make Tool to Measure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 Security Using Moral Competence Test made by G. Lind _ **Park, Gyun Yeol** 67
- Limitation and Improvement of Military Medical Prime Vendor _ **Bae, Kyoung ki · Jo, Chang Lae** 93
- Paternalistic Leadership Profiles and Its Effects in Military Organizations _ **Noh, Ju Young · Sohn, Young Woo · Chung, Eun Kyoung** 119
- The Study on Analysis of the Cause of High Level Stress of ROKA's soldiers and Officers and Management Policy _ **Moon, Hoseok** 145

Contributors 165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국방연구 2017년 9월
제60권 제3호, pp. 01-24

북한군 '당위원회'에 관한 연구:

형성과 발전과정, 기능을 중심으로

김성주*

Ⅰ. 서 론
Ⅱ. 북한군 당위원회의 형성과 변화
Ⅲ. 북한군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Ⅳ. 결 론

요 약

사회주의국가에서 지배정당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부 군사지휘관들은 군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당의 간섭에 반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국가나 군대의 창설 초기에 소련과 중국, 북한은 모두 군사전문가(Expert)와 당에서 파견한 정치장교(Red)와의 갈등을 경험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제도가 '각급 부대에 당위원회의 설치'였다. 특히 북한군의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위원회는 군사지휘관과 정치장교 모두의 독자적인 세력화나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비록 형식화되었지만) 협의 및 선출기능을 통해 군인들에게 당 통제에 대한 동의를 내재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즉, 북한군의 당위원회는 북한군의 당군화를 강화하고, 당의 영도에 대한 군부의 이탈을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핵심어: 당-군관계, 군대 내 당조직(당위원회), 예방적 기능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Ⅰ. 서 론

1. 문제 제기

전문적인 직업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는 민간정부가 합법적 권위를 통해 군대의 독점적인 무력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민간엘리트와 군부엘리트 간의 정치적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민-군 관계(civil-military relation)'는 각 국가의 정치체제나 역사적 배경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간정부가 군대의 직업적 전문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헌법적 규정을 토대로 군대의 운영 및 무력의 사용을 통제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1] 이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를 영도하는 공산당이 군대를 '당의 무장력'으로 규정하고, 군대에 당의 대표자를 파견하거나 당조직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민-군 관계'는 다른 정치체제들과 분리하여 '당-군 관계'라는 범주에서 학문적으로 다루어진다.

'당-국가체제'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배정당은 특히 조직적인 무장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이를 당-국가체제의 심각한 결함으로 간주하고 다양하고 정교한 군 통제 방안을 강구한다.[2]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는 지배정당의 영도에 대한 군대의 복종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3]

콜코비츠(Kolkowicz)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의 군대 통제 수단으로 긍정적인 것(특권의 부여, 정치적 혜택)과, 예방적인 것(교화, 감독, 조작 등의 사용, 불안과 불신의 조성), 그리고 부정적인 것(위협, 협박, 공갈)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4] 그리고 펄뮤터(Perlmutter)와 레오그란데(Leogrande)는 군대 내 이중 명령체계(dual command)의 도입, 군 간부 임명에의 관여, 군 지휘관의 당 고위직 선출, 군대 안에 당 조직 설치 및 정치교육 체계 구성 등을

---

1) 조영갑.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서울: 북코리아, 2005), p. 147.

2) Kolkowicz, Roman.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2.

3)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당-군 관계는 사르토리(Giovanni Sartori)가 제시한 '정당국가체계'의 성격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사르토리에 의하면, 사회주의국가의 당-국가체제와 같은 정당국가체계는 (복수정당이 존재하는 정당체계와 달리) 하위체계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단일정당은 독립적 하위체계를 형성하지도 않지만, 보다 원칙적으로 단일정당의 형태를 취하는 것 자체가 하위체계의 자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다당제인 '정당체계'는 이견(dissent)을 인정하고 반대(opposition)를 제도화하는 반면에, '정당국가체계'는 이견의 타당성을 부인하고 반대를 저지할 뿐이다. Sartori, Giovanni. 어수영 (역). 『현대 정당론』 (서울: 동녘, 1986), pp. 75-76.

4) Kolkowicz(1967), pp. 28-30.

당의 군 통제 수단으로 들고 있다.[5)]

북한 역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과 다르지 않게 '당의 확고한 군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는 성격 규정은 이러한 통제 체계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은 군대 내 정치위원 제도를 통한 이중적 지휘체계와 감시체계의 확립, 당위원회와 같은 군대 내에 당 조직의 설치, 고위 장성의 당 정치국 일원으로의 참여, 군인에 대한 경제적 우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군대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남한 학계에서는 노동당의 군대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총정치국'으로 대표되는 정치기관으로 바라보았다. 즉,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군(軍) 정치기관의 군대에 대한 지도와 감시가 북한군이 '당의 군'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견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동당의 군대에 대한 통제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며, 지도와 감시라는 강제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동의와 충성심 고양을 바탕으로 한 '유인(誘引)적' 또는 '예방적' 수단도 존재한다.[6)]

노동당의 군대에 대한 '유인적'이면서도 '예방적' 성격의 통제수단으로 '각급 부대 당위원회를 통한 집체적 지도체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한에서는 '북한군(軍) 당위원회는 북한군 각급 부대의 최고 영도기관'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연구는 존재하였으나, 북한군 당위원회의 실제 기능과 역할,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군 당위원회 제도의 변천 과정과 기능,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북한군의 당위원회 제도가 북한의 '당-군 관계'나 '북한군의 정치적 성격'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기초로, 북한군 당위원회 활동의 실태 파악을 위해 북한군 출신 탈북주민 5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7)]

---

5) Perlmutter, Amos and Leogrande, William M.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December 1982), p. 786.

6) 물론 북한군에 설치된 정치기관 역시 지도와 감시 기능을 통해 예방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정치기관의 통제 수단이 일방향적인 지도와 감시를 통해 군대의 수동적 동의를 유발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는 협의를 통한 자발적 동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당위원회의 통제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유인(誘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7)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는 2010년 이후에 탈북한 북한군 소위(1명), 상위(2명), 소좌(1명), 중좌(1명) 출신의 총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하부터 면접대상자는 하위 계급 순으로 각각 면접자 A, B, C, D, E로 기호를 부여하여 호칭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북한 또는 북한군의 당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북한에서 생활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현성일은 조선노동당의 조직체계와 운영, 사회통제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민간 부문의 당위원회를 통한 집체적 지도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성일은 중앙당의 전원회의부터 지방이나 말단조직의 각급 당위원회를 통한 집체적 지도체계는 해당 당조직책임자의 지도 밑에 해당부문의 모든 행정업무를 당의 정책과 노선에 따라 집행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8)]

최주활은 조선인민군의 조직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북한군 내의 당조직 및 정치기관 운영체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최주활은 조선인민군의 최고 영도기관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당위원회이라고 설명한다. 즉, 당규약 상 인민군당위원회는 군대 내 당조직의 상급조직이며 군단, 사단, 연대, 대대마다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당위원회는 해당 부대의 집체적 영도기관이라는 것이다.[9)]

곽인수는 조선노동당의 당적 지도 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군의 경우 각 군사령부는 물론이고 말단 전투단위인 중대에 이르기까지 노동당의 의결기관인 각급 당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정치부를 구축해 놓고 이를 통해 군대를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군대 내에 구축한 당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도, 당조직 지도, 인사권을 통한 통제 등을 통해 조선인민군을 당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이다.[10)]

이성현은 북한에서 군대와 유사한 무력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민보안성의 당위원회와 정치국의 조직체계 및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성현은 북한의 모든 기관,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인민보안성 내의 당 조직도 당 및 행정, 근로단체 간부들과 당원 대표들로 구성된 집단 지도체제로서의 당위원회와, 당비서 등 전문 당 일꾼들로 구성된 상설 당 기관으로서의 당위원회, 즉 정치국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 당위원회가 집단적 지도기관으로서 주로 전원회의, 총회 등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결정을 채택하는 정책결정 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정치국은 휴회기간 상시적으로 정책집행을 감독하며 당원들의 당 생활을 장악, 통제하는 실질적인 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

8)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북한조사연구』 제1권 제1호(1997), p. 27.

9) 최주활. “북한군 조직체계 분석: 총정치국·총참모부·인민무력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http://www.sejong.org/service/total_search.php#none (검색일: 2017. 6.20.).

10) 곽인수. “조선노동당의 당적 지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 pp. 99-109.

특히 인민보안성 당위원회의 조직체계와 관련해 성(省) 당위원회 산하에는 성안의 각 부서들(국, 처 등)과 각 도(시), 군(구역)들의 보안서들에 초급당위원회 및 세포 등 하급 당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민보안성에 소속되어 있는 현역 군부대들인 공병 7, 8총국의 경우 여단급 이상은 정치위원을 책임자로 하는 정치부를, 그 이하 단위들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인민군과 동일한 당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11)]

이성현은 인민보안성 당위원회는 비상설 집단지도기관으로 상징적 성격의 집행부만 구성되어 있고, 당원들의 당 조직 및 사상생활에 대한 장악과 통제, 모든 인사권의 행사, 입당비준, 당위원회 소집과 정책토의 결정 등에 관한 실무적 조직사업 같은 실질적 권한은 당 책임비서가 아닌 정치국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민보안성의 모든 업무와 활동은 최고 지도기관인 성(省)당위원회가 제시한 기준과 방향에 따른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의 장악과 통제, 지도 감독은 정치국의 몫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집체적 지도체계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집행기관인 정치국의 역할만 부각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Ⅱ. 북한군 당위원회의 형성과 변화

1. 인민군 창설과 '당위원회' 제도의 도입

북한군이 창설 초기부터 '조선노동당의 군대'임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946년 10월 북조선노동당 중앙상무위원회는 "(북한군의 전신인) 보안훈련소 철도경비대는 북조선 인민의 민주개혁을 보장하는 전인민의 군대인 바 **이 군대의 당군화를 방지하고 군대의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오 내에 각 정당 조직을 두지 않을 것"을 결정한 바 있다.[12)] 또한, 김일성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 연설에서 조선인민군은 '특정 정파의 군대'가 아닌 '인민의 군대'임을 표방했다.[13)] 이 같은 북조선노동당의 의식적인 당-군의 분리는 무엇보다도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었던 당시의 정치적 조건이 가장

---

11) 이성현. "북한 인민보안성 당위원회와 정치국의 조직체계와 역할." 『북한조사연구』 제6권 제2호(2002), pp. 34-68.

12) "군대내 당조직에 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서(1946년 10월 21일)." 『북한관계사료집 3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8), p. 37(굵은 글씨는 필자가 강조).

13) 김일성. "조선인민군창건에 제하여: 조선인민군열병식에서 한 연설(1948년 2월 8일)." 『김일성저작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 189.

큰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당시 조선노동당이 북한군의 통제를 위한 내부 활동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각급 부대에 군인들의 정치사상교육 및 노동당 노선과 정책의 해설 침투 등을 담당하는 문화부가 설치되었고, 1949년 5월 27일에는 내각결정 60호에 의해 군대 내 문화부는 중대단위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이 시기 군대 내 당 활동은 비공식적이었으며 군 지휘체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 내부 활동에 국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14]

북한군 각급 부대에 조선노동당의 당조직인 당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6·25전쟁 기간 중이었다. 당시 낙동강까지 진출했던 북한군의 패퇴가 시작된 이후, 1950년 10월 21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인민군대의 군사규률을 강화하고 전투능력을 높이며, … 군인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기 위해" 인민군 내에 당 단체를 조직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인민군대내에 당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15]

이후 군대 내 노동당 조직은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이 총정치국으로, 각급 부대 문화부는 정치부로 개편되었으며, 구분대와 부대들에 정치부 부대장과 정치부 구분대장 직제가 설치되었다. 또한 중대에는 당세포, 대대에는 대대당위원회, 연대에는 연대당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사단과 군단, 총정치국에는 당조직문제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지휘관은 부대 내 최고책임자였으며,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도 불충분한 상태였다. 고위 군관의 당회의 불참이 잦았으며, 사단과 군단에는 당위원회를 대리하는 기능 조직만 있었을 뿐 당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부대 당위원회 책임비서도 지휘관이나 정치위원이 맡지 않고 정치부 조직지도원이 맡아 당위원회의 권위가 높지 않은 상태였다.[16]

2. 종파의 숙청과 당위원회의 전면적 설치

1950년대 말까지 북한에서는 항일운동의 경험, 세력 기반 등에 따라 여러 정치적 파벌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각 파벌의 특성에 따라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정권의 성격,

---

14)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1), pp. 49.

15)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0년 10월 21일)."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47.

16) 이대근(2001), pp. 50-52.

군대의 정체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였다. 특히 군대의 정체성과 관련해,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 뿐만 아니라 국내 반일농민운동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당의 군대'가 아닌 '통일전선의 군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김일성은 "군대 내에 일부 불건전한 사상"이 있었음을 밝히고,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7]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파는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다른 파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반종파투쟁은 중국과 소련의 견제 속에서도 지속되었고, 1958년 3월 조선노동당 제1차 대표자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 즈음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군대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고, 1958년 3월 8일에는 특별히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할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당 중앙위원회 검열 결과, 총정치국이 당 중앙의 결정과 지시들이 군대 내에 잘 침투시키지 않는 등 군대 내 당 사업에는 결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내 당 조직 체계도 잘 되지 못하여 일부 군관들 사이에 군벌사상이 자라났다고 비판했다. 김일성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군대의 주요 직위자들을 "지도하며 교양하며 통제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민 군대 내에 보위성으로부터 사단, 련대에 이르기까지 당 위원회 제도를 내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8]

이 조치의 특징은 인민군대 내 당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확대와 함께, 각급 부대 당위원회의 정치기관에 대한 집체적인 감독과 통제, 그리고 지휘관, 간부들의 당사업 참여를 통한 당의 통제체제 확립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당의 노선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던 총정치국은 인민군당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문제를 집행하는 의무만 가지며, '인민군당위원회의 사업부서'라는 위치로 격하되었다. 즉, 인민군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집행대책을 토론 결정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총정치국장이 사업해야 하며, 인민군당위원회는 총정치국의 사업을 집체적으로 감독 통제하는 체계가 세워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군단, 사단,

---

17)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창설 10주년을 맞아 제324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민군이 연안파의 ≪독립군≫, 국내파의 ≪독립동맹≫, ≪의용군≫이나, 길주·명천 농민운동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 총정치국 부국장 김을규를 신랄히 비판하고,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령도"됨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 무장 투쟁의 계승자이다: 조선 인민군 324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1958년 2월 8일)." 『김일성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308-320.

18)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인민군부대들에서의 당사업이 정치부의 유일적인 지도를 받는 체계로 되어 있어 정치부가 웃기관에만 매여있고 집체적 지도와 통제 밑에 있지 않는 것, 군관 당원들을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킬 수 있도록 당조직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결함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 발생의 제도적 배경을 "(지금까지 인민군대에는 초급당조직만 있었는데) 인민군대내 초급당단체들이 당원들의 당 생활을 장악하고 통제할수 있도록 강화되지 못하였고 또한 정치기관들이 당이 내세운 방향에 근거하여 사업을 독자적으로 조직지도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조건"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8년 3월 8일)."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59-167.

연대의 당위원회도 각급 부대의 정치기관을 통제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에는 각급 당위원회에 부대장과 정치부대장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반드시 당위원회에 소속되어 당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19]

이후 김일성은 군대에서 최고조직은 '당위원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당위원회를 단순한 협의기관이 아닌 "집체적인 군사정치적 령도기관"으로 위상을 부여하였다.[20] 당시의 군대 내 당위원회의 전면적 설치는 군대의 개별간부가 김일성의 지도력에 반대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군대가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도구로만 남도록 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총정치국과 같은 집행기구가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군내 당사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위원회라는 집체적 지도기관이 각급 부대를 이끌어 가도록 변화를 가한 조치인 것이다.[21]

이에 따라 각급 부대 당위원회의 역할은 군사사업과 군사행동 지도, 군사훈련계획 작성, 군활동 감시, 인사관리 등 전면적으로 확대되었고, 군사지휘관과 정치지휘관은 당위원회의 토론 결과를 명령·집행하는 기능적인 역할의 수행자로 약화되었다. 또한 이 결정은 군대에 대한 정치사업에서 소련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교조주의를 비판하고, 소련으로부터의 탈색을 모색하는 것이었다.[22] 이는 1956년 흐루시초프의 집권 이후 중국과 북한이 소련을 수정주의로 비판하면서 소련과의 관계가 냉각된 것도 군대내 당위원회 제도를 추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23] 중국의 경우 1950년대 중반 경에 군의 현대화와 군사지휘관 중심의 유일지휘관제를 추구하는 세력과 공산당의 군대 통제 및 정치사상교육을 중시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존재했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미군과의 교전을 통해 현대전을 경험했던 펑더화이(彭德懷, P'eng The-huai)는 1954년 9월 국방부장에 취임한 후 소련으

---

19) 김일성(1958년 3월 8일), pp. 167-168.

20)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0년 9월 8일)."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351.

21) 이대근(2001), pp. 55-57.

22) 고유환 외.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서울: 선인, 2006), p. 97. 당시 김일성도 새로 도입된 북한군의 당위원회 제도는 소련의 유일관리제와는 차별된 제도임을 부각하며 군대의 정치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즉, 지난 시기에는 "다른 나라의 본을 따서 당정치사업은 정치일군들에게만 맡기고 군사일군은 군사사업만 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군대내에 당 위원회가 조직되여 군사일군들도 당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군단이상 군사, 정치 일군들과 한 담화(1959년 5월 16일)." 『김일성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98.

23) 김일성은 1958년 3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통째로 삼켜서는 안되며 … 모든 전사들과 군인들을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1956년 마오쩌둥이 군사 훈련분야에서 소련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학습태도를 비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수입하고, 의무병역제와 유급제/계급제를 시행하는 등 군의 전문화 정책을 추구하였다.[24] 또한, 그는 군을 정규군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당의 군에 대한 지나친 통제권은 군 작전에 방해가 된다하여 이를 제한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마오쩌둥(毛澤東, Mao Tsetung)의 군사노선과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25]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56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은 마오쩌둥의 "우리의 학습 개조(改造我們的學習)", "당 기풍의 정돈(整頓黨的作風)" 등 5개 문건을 하달하면서 전군의 군사공작 분야, 특히 훈련분야의 소련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학습태도를 비판하였다.[26] 그리고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군중당위제도(軍中當委制度)'에 기초를 둔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하의 분담책임제(黨委集體領導下的首長分擔責任制)'가 시행되었다.[27] 이 제도는 대대급 이상 단위 부대에 군당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내의 모든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한 후에 집행하게 되는 데, 정치위원은 정치에 관한 업무를, 군사지휘관은 군사업무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지는 제도였다.[28] 1956년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하의 분담책임제'가 1958년 북한에서 당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집체적 영도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9]

---

24) 기세찬. "中國 黨-軍關係에 관한 一考察: 당과 군의 관계의 변화와 현재의 특징." 『국방연구』 제55권 제4호(2012), p. 33.

25) 김익도. "중국인민해방군의 정치위원제도와 당·군관계." 부산대학교 『師大論文集』 제29편(1984), p. 118; 이는 당시 중국 지도부 및 중국 군대 안에서 군사력의 현대화 및 군대의 전문성 강화론자들과 정치사상교육 중시론자 사이에 깊은 갈등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56년 9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정치부 부주임 탄청(譚政, T'an Zheng)은 "외국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1958년 6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일부 장교들이) 현대전의 급박성과 복잡성을 강조하며 당위원회제도가 군사지휘관의 판단을 방해할 요소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당위원회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Joffe, Ellis. *Party and Ar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Control in the Chinese Officer Corps, 1949-1964*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67), pp. 43, 61.

26) 기세찬(2012), p. 33.

27) '군중당위제도(軍中當委制度)'는 항일전쟁기의 1929년 마오쩌둥에 의해 창안·채택되었으며, 1931년 '정치위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폐되었지만, 1956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1년 전후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1996년 하반기호, p. 175.

28) 이건일. "중공에 있어서의 당, 군관계." 『공산권연구논총』 창간호(1968), p. 120.

29) 한편, 소련에서도 1957년 10월에 국방상 쥬코프(Zhukov)가 군사부문에 대한 당 활동가들의 간섭에 반대하면서 직업군인제를 확립하고 정치장교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다 해임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Reppert, John Clayton. *The Political Officer in Communist Military Unit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82), p. 81; 이 사건은 당시 북-소 관계를 떠나 북한이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3. 군벌관료주의자들의 숙청과 당위원회 제도의 정착

1960년대에 들어서며 북한은 중-소 갈등으로 인한 북-중-소 북방 3각 동맹의 균열,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의 강화, 남한의 5·16 군사정변 등으로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 정권은 1962년부터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제기하는 등 국방력 중시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정착의 기미를 보이던 북한군의 당위원회 제도도 1962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다. 소련 프룬제 군사대학 유학파로서 민족보위상이 된 김창봉은 막 추진되기 시작한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등 군사우선주의에 힘입어 군대 안에서 지휘관 유일관리제를 강조하였다. 서서히 기세를 올리던 정치군관들은 다시 머리를 수그렸으며 군대의 기본 목표인 '전투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었다.[30] 그러나 1960년대를 휩쓸었던 북한의 군사우선주의는 군부 세력의 숙청과 함께 약화된다. 1969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소련군 식의 군사제일주의를 주장하던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총정치국장 허봉학, 제1집단군 사령관 최민철 등이 숙청되고 최현과 오진우 등 김일성 직계들이 군대를 장악하게 된다.[31] 당시 회의에서 김일성은 김창봉 등이 당의 군사노선을 반대하고 군대 내 당조직을 유명무실화하였으며, 수정주의 및 군벌주의의 조장했다고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인민군에 마지막 통제장치를 덧씌운 '정치위원제'를 도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군단, 사단, 연대에 정치위원을, 대대, 중대에 정치지도원을 두는 등 모든 부대 단위에 정치위원, 정치지도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정치위원은 부대 내의 모든 문제에 관해 지휘관과 동등한 지위가 부여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 토의한 다음 부대장과 정치위원, 참모장 세 사람의 서명으로 집행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의 학자들은 1969년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에 의한 군 통제 체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일단락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대근은 1969년의 정치위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도적인 군대 내 당 통제 장치는 1970년 당규약 및 1972년 헌법에 반영됨으로써 일단 완결되었고, 이후 제도적인 군대 내 당 통제 장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

30) 소련의 프룬제(Frunze, Mikhail Vasilyevich)는 정치장교의 역할을 축소하고 군사지휘관의 위상을 강화한 대표적인 유일지휘관제 주장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의 프룬제 군사대학에 유학했던 김창봉은 프룬제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김창봉에 대해 "인민군당의 조직이 무력하게 되고 당중앙위원회를 이탈하게 하고 당과 정부에서 간섭 못하게" 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일성. "인민군당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시의 김일성 결론 연설(1969년 1월 6일~1월 14일)." 『김일성군사논선』 (북한연구소, 1979), p. 89.

31) 정영태 외.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206-207.

기술하고 있다.[32] 김용현 역시 1969년 '군부 강경파 숙청 사건' 이후 군 정치 부문은 완전히 당에 귀속되었으며 김일성 유일체계 구축의 물리적 조치들이 완결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33] 정영태 등도 1969년 이전까지 군대 내 당조직과 그 이후의 당 조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으며, 결국 이 시기를 기준으로 북한군대 내 당 조직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한다.[34]

그러나 근본적으로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조하는 당위원회 제도는 군사지휘관의 불만이 내재될 수밖에 없었으며, 군사지휘관과 정치장교 간의 구조적 갈등은 한 두 번의 제도적 정비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북한의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 역시 1969년 정치위원제의 도입으로 제도적 정비는 일단락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69년 이후 북한문헌에서 당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에 대한 언급이 지속된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김일성은 1969년 10월에, "지난 날에 비하여 당위원회사업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제 궤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대대급 부대에 초급당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35]

그리고 김정일 역시 후계자 시절에 군대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대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972년 10월 한 정치위원과의 담화에서 김정일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릴 것을 주문하며, 이를 위해 당위원회 위원들을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성이 강하며 발전성이 있는 일군들로" 꾸릴 것과, "당위원회 비서처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36] 이러한 당위원회 운영 강화에 대한 언급은 1973년까지 이어진다. 김일성은 1973년 10월 11일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은 군사임무를 수행하는데서나 군인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하며, "중대장이 중대정치지도원을 제쳐놓고 독판쳐도 안되며 중대정치지도원이 중대장을 가라타고 앉아 좌지우지해도 안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37]

---

32) 이대근(2001), p. 66.

33) 김용현. "196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군사화의 대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현대사 1』 (서울: 한울, 2004), p. 449.

34) 정영태 외(2011), p. 208.

35) 당시 김일성은 "군대안의 정치일군들이 당정치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애지 못한데로부터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군인대중속에 심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사업을 정치상학이나 하고 군인들을 사무실에 불러다 담화나 하는것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일성.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대대장, 정치부대대장, 대대사로청위원장대회에서 한 결론(1969년 10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259-279.

36) 김정일.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화 한 담화(1972년 10월 17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64.

37) 김일성.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한 연설(1973년 10월

1973년 2월 발행된 노동당 기관지 ≪근로자≫ 2호에서 "군대안의 각급 당위원회들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고 정치기관들과 정치일군들의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는 확고히 보장"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38] 이러한 문헌 내용들은 북한군의 당위원회 제도가 1969년 이후에도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후 197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당위원회 제도가 비로소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발언이 등장한다. 먼저 김정일은 1974년 1월 12일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에서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 인민군대안에서 군벌관료주의와 개별적간부들에 대한 환상과 아부 아첨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 아직도 일부 일군들과 군인들속에는 관료주의를 부리거나 개별적간부들을 환상적으로 대하며 아부아첨하는 현상과 요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39] 이후 1975년 1월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도 김정일은 "지금 우리 대오안에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특성을 운운하면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달가와하지 않는 경향**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약화시키려는 사소한 현상에 대해서도 경각성을 높이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40]라고 언급하고 있다.

1971년부터 1975년까지의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에서도 시기별로 발언 수준의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1971년에는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당사업을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인들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며 모든 당조직들을 산 전투적조직으로 만들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기능을 더욱 높이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972년에는 "오늘 인민군대안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 있다는 언급이 등장하였고,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혁명적인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75년에 들어와서는 "당위원회"나 "혁명적 조직생활"과 같은 용어는 등장하지 않고, 대신 "인민군대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11일)." 『김일성저작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 500.

3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제2호(1973), p. 20.

39) 김정일. "전군에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4년 1월 12일)." 『김정일선집 6(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3쪽. 한편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관료주의와 개별적간부들에 대한 환상과 아부아첨은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는데서 매우 유해롭고 위험한 장애물로 되고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군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는 결국 수령이나 후계자의 군권 확립이 일차적인 목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0) 김정일.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5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6-7(굵은 글씨는 필자가 강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41]

즉, 1969년 군벌관료주의자들의 숙청 이후에도 최소 1974년까지는 김정일의 후계 구축과 맞물려 북한 지도부는 군대 내 당위원회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1975년 경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다다랐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북한군 당위원회 제도의 도입 및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북한군 당위원회 제도의 발전 과정

	1950-1958년	1958-1962년	1963-1969년	1969~1975년
역사적 배경	다양한 혁명전통의 존재	수정주의자 숙청	군벌관료주의자 득세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위원회 제도의 변화	제도 도입기	제도 강화기	제도 갈등기	제도 정착기

한편, 1974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된 이후 북한군의 정치사업은 '전군의 주체사상화'와 함께 김정일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는 북한군을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혁명군대로 만들고 나아가 김정일의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은 군대의 당정치사업에서 김정일의 유일관리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1976년 5월 당정치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당에 보고하고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7년 8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북한군 총정치국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와 질서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총정치국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북한 문헌은 이후 군대안의 당 정치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42]

한편, 1977년 당시까지도 김정일은 일부 군사지휘관들 사이에 과거의 군벌관료주의의 여독이 남아있다고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당정치사업의 강화를 주문하였다. 김정일은 8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에 대한 당정치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개별적간부들에게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아첨하는 현상"들이 여전히 나타나며, "일부 군단장, 사단장을 비롯한 책임적인 군사간부들은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고 당적통제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일부

41) 『로동신문』(1971. 2. 8), (1972. 2. 8), (1975. 2. 8).

42)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p. 412.

정치일군들속에서는 행정대행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도 인민군대안의 일부 지휘관들속에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부식하여놓은 군벌관료주의의 여독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43] 이에 따라 김정일은 당정치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들을 당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책임적인 군사간부들이 당회의와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장악통제하는 등 엄격한 당규율을 세우며, 정치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정치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 것 등의 "군벌관료주의의 여독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독려하였다.[44] 1960년대부터 북한 정권은 군대 내의 군벌관료주의 현상을 없애려고 지속 노력해 왔지만, 1970년대 말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잔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김정일의 지적은 북한군에서 군사지휘관의 전문적인 군대 지휘와 당에 의한 정치적 통제라는 대별되는 두 영역의 갈등이 얼마나 뿌리 깊게 존재했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역시 당-군의 갈등은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다르지 않게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후 북한 정권은 군대에 대한 김정일의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1979년 12월 열린 조선인민군당위원회 제6기 제2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북한군에 김정일의 영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당의 군대로서의 풍모를 철저히 갖추도록 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대 안의 당 정치사업이 김정일의 유일적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 문헌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된 1974년부터 6차 당대회가 열린 1980년 까지의 기간 동안, "전군 주체사상화 위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인민군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45] 즉, 북한군에서 당위원회 제도를 통한 노동당의 군 통제는 1970년대 말까지 이어지며 당의 군대를 수령의 군대, 후계자의 군대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

43) 김정일. "현시기 인민군대당정치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7년 8월 29일)." 『김정일선집 8(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pp. 129-131.

44) 김정일(1977년 8월 29일), pp. 129-131.

45) 조선로동당출판사(2004), p. 414.

Ⅲ. 북한군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 각급부대 당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실태

앞 장에서 살펴본 북한군의 당위원회는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2010년에 개정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통해 노동당의 기층조직 및 북한군의 당조직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본 후, 북한군 당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노동당 규약을 토대로 북한군 각급 부대의 당위원회 구성 및 사업을 추정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진술 내용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노동당의 지방 및 기층 조직과 관련한 북한 노동당 규약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46] 지방의 도(道), 시(市), 군(郡)에는 당위원회가 설치되며, 기층조직으로는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서는 당세포를, 31명 이상 있는 단위에서는 초급당을, 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 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또한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 형식만으로 기층당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 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당조직의 회의체 소집 시기는 도당위원회는 넉달에 한 번 이상, 시·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석달에 한 번 이상 소집되며, 도·시·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달에 두 번 이상 열린다. 기층당조직의 경우 당세포총회와 당세포위원회는 한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분초급당·부문당 총회는 석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분초급당·부문당위원회는 한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분초급당에서는 한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북한군 안의 당조직에 대해서는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라고만 나와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단위와 회의 개최 시기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자료 및 탈북민 진술 등을 참고하면, 북한군에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최정점으로 군단 - 사단 - 연대 당위원회, 대대 초급당위원회, 중대 당세포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47]

---

46)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 국가안보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11. 2. 7). 북한에서는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했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층조직과 북한군의 당 조직 관련 부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7) 북한군 내 당조직과 관련하여, 곽인수는 "군사령부로부터 군단, 사단까지의 단위에는 시, 군급 당위원회와 같은 인사권과 입당권을 가진 당위원회가, 연대와 대대에는 초급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

북한의 당규약 상, 북한군 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적영군체계와 혁명적 군풍을 확고히 세워 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간부대열과 당대열을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군의 당위원회는 노동당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기층당 조직의 회의 주기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대급 부대의 경우, 대대 초급당총회는 분기 1차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초급당총회 사이에 대대 초급당 집행위원회를 1월에 2차 이상 개최해야 한다. 대대급 부대의 경우 초급당위원회 위원은 대대장, 참모장, 정치지도원, 청년지도원, 후방부대대장, 군사부대대장 등으로 구성된다. 대대 초급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대대장, 참모장, 정치·보위지도원을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관련자가 추가되어 구성된다. 중대의 경우 당세포총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당세포총회 사이에 중대 당지도분조회의를 월에 3차 이상 개최해야 한다. 중대 당지도분조회의는 중대장, 정치지도원, 소대장, 사관장 등으로 구성된다(면접대상자 B, D).

그러면 북한군의 당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출, 구성되는가? 면접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위원회에서 위원의 보선 등이 필요할 경우, 당위원회를 소집하고 상급부대에서 지도원이 파견된 아래 위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접대상자 A, D). 물론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위원이 내려오면 상부에서 이미 당위원회 비서로 내정된 상태이나, 당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선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대의 경우 대대 정치지도원이 내정되어 내려오면 상급부대 당일군의 참관 아래 대대 초급당위원회 부비서가 초급당 총회나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출 및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초급당위원회의 집행위원도 참모장이나 작전참모, 중대장 중에서 선출하는데, 대부분 당비서인 정치위원이 사전에 선출할 인원을 통보한 다음에 회의에서 거수로 투표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반대의사 표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총회나 집행위원회에서 입당심사나 대학 추천의 경우 대상자의 자질이나 성품 등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의견 제시는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접대상자 B, C).

대대 초급당위원회나 연대, 사단 당위원회의 책임자인 비서는 정치위원이나 정치지도원

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중대에는 당세포가 조직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심영삼은 연대급 이상의 부대에는 당위원회, 대대에는 초급당위원회가, 중대와 소대에는 당세포 및 당분조가 조직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주장의 차이는 시대별 차이도 있을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 면접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영삼의 견해를 따르도록 한다. 곽인수. "조선노동당의 당적 지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100; 심영삼. "김정일 정권의 군사기구 및 정책수립·집행과정"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p. 88.

이 맡고 군사지휘관이 부비서를 맡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경우에는 군사지휘관이 비서를 맡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군사지휘관이 김정일의 신임을 받고 있거나 능력이 출중할 경우에 해당한다. 면접대상자 B의 경우 북한군 복무시 한 부대를 방문했는데 당위원회 비서가 군사지휘관인 경우를 보고 매우 특이하여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해당 지휘관이 김정일의 신임을 크게 받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정치위원과 같은 정치군관이 해당 부대 당위원장을 겸하며 당무(黨務)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960년에 김일성이 말한 것처럼 "당위원장은 군사간부가 해도 정치간부가 해도 좋으며 반드시 정치부장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이 유효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급 부대의 당원 수는 대략 군인 10명에 당원 1명의 원칙 선에서 결정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약간 더 많은 수가 당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의 경우 대략 군인 100명당 당원은 10~20명 내외로, 대대의 경우 군인 300~500명 당 당원수는 50명 내외 정도로 구성된다. 한 가지 더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 김정일 정권 시기에 중앙당 차원의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장기간 개최되지 않았으나, 북한군의 경우(사회 각 기관도 마찬가지로) 하부단위의 당위원회는 무조건 규정대로 개최되고 그 임무와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면접대상자 B, C, D).

2.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북한군에서 당위원회는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군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통제 기능을 유지하며 각급 부대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군 당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입당 심사, 표창, 승진, 조동(인사 이동), 제대, 대학추천 등 주요 인사사업을 비준하며 그 외 군대의 모든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당위원회는 책벌도 결정한다. 북한군에서 책벌은 행정적·법적 책벌과 함께 당적 책벌이 존재한다. 당적 책벌은 군인이 저지른 과오의 정도가 심해 무거운 책벌이 필요할 경우 당위원회 지도분조회의나 집행위원회 등에서 추가적인 책벌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면접조사에 따르면 일정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행정적 책벌보다 당적 책벌을 받는 것을 훨씬 더 꺼려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당적 책벌을 받을 경우 당 개인문건에 기록이 남아 죽을 때 까지 쫓아다니고 사회에 나가서의 취업, 자녀들의 진학, 입당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면접대상자 D).

그러면 북한군들은 이러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체계에 효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 부대 생활 속에서 당일꾼과 군사일꾼의 관계 그리고 당위원회의 지위에 대해 면접대상자(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북한군에서 군권보다 당권이 훨씬 더 강하다. 군인에 대한 표창, 승진, 입당 등의 주요 인사권이 모두 당위원회와 정치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은 행정(참모부), 정치, 보위의 세 기능이 서로 견제하며 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보위부의 권한이 막강하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당위원회가 조정과 지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면접대상자(C)는 북한군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사안이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토의와 선출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원들 역시 비록 제한적이나마 당활동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승진이나 보직 이동 등에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에 형식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따른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면접대상자(A)는 당위원회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전술훈련 등을 나갈 때는 사전에 당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열어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데, 정치부에서 하전사들에 대한 사상교양 강조나 지나친 훈련으로 인한 하전사들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지휘관에게 일정 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농촌지원 등을 나갈 때는 정치부에서 인민들 지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 것 등을 강조하는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진술은 북한군의 당위원회가 비록 민주적인 절차는 상실한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되었지만, 최소한의 의견수렴과 토론의 절차를 거치고 군인들에게 당원에 지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주입시켜, 군에 대한 당 통제를 동의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북한군의 당위원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당의 통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휘관과 참모 등 군사일꾼들을 당 업무에 참여시킴으로서 당의 통제에 순응하고 나아가 당군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당위원회를 통해 정치-보위-행정의 세 가지 독자적인 지휘계통으로 나뉘어져 서로 감시, 견제하는 구조에서 나아가, 각자의 업무 분야를 인정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 통합하는 역할 또한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당위원회의 역할을 종합하면 1장에서 언급한 군인들을 교화하고 감독하여 당의 통제에 순응, 지지하게 하는 예방적이고 유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원회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태생적으로 군사일꾼과 정치일꾼과의 대립을 인위적으로 무마하고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위원회 제도는 군사 전문분야에 대한 군사일꾼의 정치일꾼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식화·의례화된 의사결정이 지속될 경우 일반 군인들의 당위원회 역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군사일꾼과 정치일꾼과의 불신은 내면적으로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휘관 출신의 면접대상자(A, D) 들은 정치일꾼에 대해 "평화로운 시기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전쟁만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거나, "정치일꾼들은 몸은 쓰지 않고 펜대만 움직이는 놈들"이리고 불신했다고 하며, 대부분의 군사일꾼들이 비슷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형식화·의례화된 토의 절차에 대해, "토의는 없고 윗사람들이 결정한 것에 손만 든다(면접대상자 A)"라든가, "정치위원에게 해코지 당할 것이 두려워 반대 의견은 생각도 못한다(면접대상자 B)"라는 등의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당위원회가 예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북한군 내부에는 당위원회나 정치위원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과 불신은 군사적 긴장 강화나 군사주의 확산 등으로 군사일꾼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또는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보다 군사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될 때 더 적극적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사회주의국가에서 당의 군대에 대한 통제는 군대가 당의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고,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군인들의 사기를 제고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체계는 군대를 당에 헌신적이고 충성적인 무력 수단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군사지휘관의 자율성을 억제함으로써 군대의 전문성과 현대화를 지연시키는 부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의 군 통제라는 절대적 명제를 유지하면서도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 역시 '당의 군대'라는 성격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 학계에서는 북한군이 당의 군대라는 성격을 유지하게 만드는 주요한 기제로 인민군 총정치국과 각급 부대 정치부로 이어지는 정치기관의 감시·통제적 기능을 지목해 왔다. 그러나 북한군에서는 총정치국의 상시적 지도 및 통제, 감시활동 외에 당위원회를 통한 집체적 의사결정기능도 일상적으로 이어져 왔다. 북한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와 북한군의 '당의 군대'라는 정치적 역할 유지에는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기능과 협의, 선출 기능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원회의 기능은 군인들로 하여금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에 순응하

게 하는 '유인적, 예방적' 수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 중앙당 차원의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랜 시간 동안 열리지 않았음에 비해, 군대의 경우 각급 부대 당위원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변함없이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선군정치 시기에 당의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군대의 위상이 확대되었다는 '군 우위론'을 반박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이 연구가 기존 연구의 견해를 보강한 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58년 도입된 북한군의 당위원회 제도는 이미 1956년 중국에서 시작된 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도입의 배경은 당시 중국과 북한에서 나타난 소련과의 관계 악화와 수정주의 노선의 배격, 자국 지도자의 사상 확산 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군대 내 당위원회에 대한 기존 연구는 1969년에 관련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후계체제의 구축과 함께 현장 속에서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논의를 확대하였다.

그렇다면, 북한군의 당위원회 제도가 한국 및 한국군에 미치는 시사점이나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비록 당위원회 제도가 당의 군 통제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회주의 체제 당-군관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군사지휘관과 정치장교 사이에 갈등은 상시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역사적인 경험은 군대의 전문화나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할 때 지배정당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반대로 당의 강력한 군대 통제는 군사모험주의나 쿠데타 같은 대내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향후 우리 군은 북한군의 현대화 추진과 당 정치사업간의 관계, 북한의 군종 또는 병종별 당 통제 수준의 차이 등을 세밀히 관찰함으로써 북한군의 정책적 또는 전략적 변화를 좀 더 이른 시간에,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인수. "조선노동당의 당적 지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고유환 외.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서울: 선인, 2006).

기세찬. (2012). "中國 黨-軍關係에 관한 一考察 : 당과 군의 관계의 변화와 현재의 특징." 『국방연구』, 제 55권 제4호. 서울: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김용현. "196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군사화의 대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편). 『북한현대사 1』 (서울: 한울, 2004).

김익도. "중국인민해방군의 정치위원제도와 당·군관계." 부산대학교. 『師大論文集』 제29편(1984).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 무장 투쟁의 계승자이다: 조선 인민군 324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1958년 2월 8일)." 『김일성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_____.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8년 3월 8일)."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군단이상 군사, 정치 일군들과 한 담화(1959년 5월 16일)." 『김일성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1960년 8월 15일)."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성, 관리국의 지도를 개선하며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황해제철소당위원회에서 한 연설(1962년 8월 30일)."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인민군당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시의 김일성 결론 연설(1969년 1월 6일)." 『김일성군사논선』 (서울: 북한연구소, 1979).

_____.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대대장, 정치부대대장, 대대사로청위원장대회에서 한 결론(1969년 10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한 연설(1973년 10월 11일)." 『김일성저작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김정일.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화 한 담화(1972년 10월 17일).”『김정일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전군에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4년 1월 12일).”『김정일선집 6(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_____.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5년 1월 1일).”『김정일선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_____. “현시기 인민군대당정치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7년 8월 29일.,”『김정일선집 8(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서동만.『북조선사회주의체제설립사』(서울: 선인, 2005).

_____.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1년 전후 시기까지를 중심으로.”『통일문제연구』1996년 하반기호.

심영삼, “김정일 정권의 군사기구 및 정책수립·집행과정”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이건일. “중공에 있어서의 당, 군관계.”『공산권연구논총』, 창간호(1968).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2001).

이성현. “북한 인민보안성 당위원회와 정치국의 조직체계와 역할.”『북한조사연구』제6권 제2호(2002).

정영태 외.『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조반니 사르토리. 이수영(역)『현대 정당론』(서울: 동녘, 1986).

조선로동당출판사.『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조영갑,『민군관계와 국가안보』(서울: 북코리아,2005).

최주활. “북한군 조직체계 분석: 총정치국·총참모부·인민무력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제2차 정책토론회(2009).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북한조사연구』제1권 제1호(1997).

Joffe, Ellis. *Party and Ar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Control in the Chinese Officer Corps, 1949-1964*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67).

Kolkowicz, Roman.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Odom, William E. "The Party-Military Connection: A Critique." in Dale R. Herspring and Ivan Volgyes,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Systems* (Colorado: Westview Press, 1978).

Perlmutter, Amos and Leogrande, William M.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December 1982).

Reppert, John Clayton. *The Political Officer in Communist Military Unit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82).

A Study on the Party Committee of the North Korean Army: Focused on Formation, Development and Function

Kim, Seongjoo

Keywords

Party-military relations, Party committee in the military, Prophylactic function

A ruling party of a social state maintains control over the military power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mechanisms. As the North Korean Labor Party has developed various measures to control the North Korean army, a key illustration was the political organs and party committees inside the military. Such political organs have built a separate command system from the military command system, and have effectively performed to supervise military commanders. On the other hand, such party committees established in each unit have been responsible for preventing the independent formation of both military commanders and political officers and obtaining consent for party's control through consultation and election functions, even though they are a mere formality.

[논문투고일 : 2017. 07. 31]
[심사의뢰일 : 2017. 09. 07]
[게재확정일 : 2017. 09. 27]

국방연구 2017년 9월
제60권 제3호, pp. 25-40

부정적 외부성을 고려한 군사분쟁:
슈타겔버그 모형*

박성훈**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협상 및 전쟁의 단계
Ⅲ. 명목 및 실질 지대소진율
Ⅳ.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군사분쟁에서 무력의 사용은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무력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행위, 즉 무력수준을 결정한다. 본 연구는 슈타겔버그 모형을 이용하여 군사능력이 상이한 두 당사국의 전략적 행위와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을 당사국들의 군사능력과 무력사용에 따른 피해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둘째,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국들의 균형 무력수준을 유도하고, 균형의 결과인 당사국들의 기대이익과 지대소진율(사회적 자원낭비)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국이 우세국이고 당사국들의 피해가 크다면 전쟁은 발생하지 않고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세국의 균형 무력수준이 열세국의 균형 무력수준에 비해 크며, 우세국이 열세국에 비해 높은 기대이익을 얻는다. 셋째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의 피해가 클수록 명목 지대소진율은 감소하지만, 실질 지대소진율은 증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당사국들의 군사능력에 대한 차이가 크고, 당사국들의 피해가 크다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군사능력이 승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결과는 선도국과 추종국에게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당사국들의 피해가 클수록 실질 지대소진율이 높아짐을 보임으로써, 무력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보였다.

핵심어: 군사능력, 군사분쟁, 명목 지대소진율, 부정적 외부성, 슈타겔버그 모형, 실질 지대소진율

---

* 귀한 심사평을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원들과 2017년 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제상영 교수께 감사드린다.
**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경합(contest)이란 상금(또는 지대)를 얻기 위하여 경기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한다.[1] Tullock(1967, 1980)이 경합모형을 소개한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경합모형을 이용하여 경기자들의 전략과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2]

Dixit(1987)는 우세자와 열세자 중에서 누가 선도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 자원낭비를 축소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3] 박성훈(2016), Baik and Shogren(1992), Liston-Heyes (2001)는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회적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유도하였다. 박성훈(2016)은 환경분쟁에 승리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수단이 단수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낭비를 비교하였다.[4] Baik and Shogren(1992)은 환경분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낭비를 축소시키는 환경정책을 강구하였다. Liston-Heyes(2001)는 환경분쟁에서 사회적 자원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오염유발 기업의 전략적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Chung(1996), Lee and Kang(1998), Shaffer(2006)는 상금을 얻기 위한 경기자들의 노력이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고려하였다.[5] Chung(1996)은 경기자들의 노력이 상금을 증가(또는 감소)시키는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Lee and Kang(1998)은 경기자들의 노력이 경합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증가(또는 감소)시키는 모형을 분석하였다. 두 선행연구에서

---

1) 지대(rent)란 상금과 같은 경합의 목표물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Hurley, T. M., "Rent Dissipation and Efficiency in a Contest with Asymmetric Values", *Public Choice*, 94(1998), pp. 289-298.

2) Tullock, G., The Welfare Cost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5 (1967), pp. 224-232; Tullock, G., "Efficient Rent Seeking," In: Buchanan, J., Tollison, R. D., Tullock, G. (Eds.),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College Station(1980), pp. 97-112.

3) Dixit(1987)는 승리할 확률이 50% 이하인 경기자를 "the favorite(우세자)"로, 50% 이상인 당사국을 "the underdog(열세자)"로 명명하였다: Dixit, A., "Strategic Behavior in Con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7(1987), pp. 891-898. 본 연구는 군사분쟁 경합모형을 사용하므로 우세자는 우세국 그리고 열세자는 열세국으로 표현한다. 또한 선도자(the leader)는 경합에서 노력수준을 먼저 선택하는 경기자를, 추종자(the follower)는 노력수준을 나중에 선택하는 경기자를 말한다. 사회적 자원낭비란 당사국들이 지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비용에 해당되며, 관련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원낭비를 지대소진(rent dissipation)으로 측정한다. 지대소진에 대해서는 각주 14)를 참고하기 바란다.

4) 단수의 노력수단과 복수의 노력수단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오염배출이 심한 기업이 청정지역에 입지하기 못하도록 환경단체가 (i) 정부에 로비만 하는 경우에 단수의 노력수단, (ii) 로비뿐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한 시위를 하는 경우에 복수의 노력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대가나 보상이 없는 편익이나 손실을 끼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성은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으로 분류된다.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편익을 주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손실을 주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박성훈·이상학·노상채, 『미시경제학: 제2판』, (법문사, 2017).

경기자들의 노력이 상금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긍정적 외부성에 해당되고, 상금을 감소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부정적 외부성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Shaffer(2006)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Shaffer(2006)는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당사국들의 전략적 행위와 이에 따른 기대이익을 분석하였다.[6] 분석을 위해 Shaffer (2006)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두었다. 첫째, 무력의 사용은 공장, 다리, 공항과 같은 기반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지역의 생산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승전국이 획득한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킨다: 승전국에게만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7] 둘째, 군사능력이 동일한 두 당사국은 자신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꾸르노 전쟁"에 참여한다: 두 당사국이 동시에 무력을 사용한다.[8] 셋째, 부정적 외부성은 무력에 대해 선형함수(linear function)이거나 비선형함수(nonlinear function)이다. Shaffer(2006)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력과 부정적 외부성이 선형관계에 있는 경우에 부정적 외부성은 완전히 내부화(internalization)되어, 외부성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기대이익을 유지하며, 부정적 외부성이 커질수록 명목 지대소진율(nominal rent-dissipation rate)이 감소한다.[9] 둘째, 비선형관계가 오목함수(concave function)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부정적 외부성은 부분적으로 내부화되며,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기대이익을 갖게 되며, 부정적 외부성이 커질수록 명목 지대소진율이 감소한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가정의 특이성"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의 오류"이다. 우선, 가정의 특이성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Shaffer(2006)는 부정적 외부성이 승전국에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10] 이러한 경우에 부정적 외부성과 무력이 선형관계일지라도 사회적 자원낭비가 감소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군사능력이 동일한 두 당사국이 동시에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보다는 군사능력이 상이한 당사국들 중에서 한 당사국이 먼저 도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6.25전쟁, 일본의 진주만

---

6) 기대이익(expected payoff)이란 전쟁으로부터 얻는 이익에서 전쟁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손실을 뺀 액수를 뜻한다.

7) 엄밀한 의미에서 무력(military force)이란 병력 또는 무기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상의 힘을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경합모형 관련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따라, 당사국이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 수반된 비용을 그 당사국의 무력으로 가정한다.

8) 군사능력(military capability)이란 당사국들이 동일한 무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효율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사국들이 동일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하자. 이때, 승전확률이 높아지는 당사국과 낮아지는 당사국이 있다면, 전자(the former)의 군사능력이 후자(the latter)의 군사능력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9) Shaffer(2006)는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할수록 당사국들의 균형 무력수준이 감소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명목 지대소진율의 감소, 즉 사회적 자원낭비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Shaffer, S., "War, Labor Tournaments, and Contest Payoffs," *Economics Letters*, 92(2006), pp. 250-255.

10)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패전국이지만, 자국 내 많은 기반시설(공장, 다리, 공항 등)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파괴는 패전국에도 부정적 외부성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공습,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11]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국들의 전략적 행동과 이에 따른 기대이익과 지대소진율이 달라질 것은 자명하다. 다음으로, 결과의 오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Shaffer(2006)는 부정적 외부성이 무력에 대해 오목함수의 특성을 갖는다면, 부정적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기대이익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당사국의 최적대응함수를 잘못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즉, Shaffer(2006)가 제시한 꾸르노 전쟁에서 부정적 외부성이 무력에 대해 오목함수의 특성을 갖는다면 기대이익은 낮아지며, 사회적 자원낭비는 증가한다 [부록 1].

본 연구는 Shaffer(2006)를 보완하여, 군사분쟁에서 당사국들의 전략적 행위와 이에 따른 기대이익과 지대소진율을 분석한다.[12]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둔다. 첫째, 군사능력이 상이한 두 당사국이 자신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슈타겔버그 군사분쟁"에 참여한다. 둘째, 무력의 사용은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에게 부정적 외부성을 발생시킨다. 셋째, 부정적 외부성은 무력에 대해 선형함수이다.[13]

슈타겔버그 군사분쟁에서 두 개의 가정(상이한 능력과 부정적 외부성)은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첫째,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전쟁은 지대추구를 위한 경합(rent-seeking contest)에 해당되며, 이는 당사국들의 무력이 사회적 자원낭비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낭비를 축소시킬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자원낭비를 측정하는 것이다. Shaffer(2006)는 부정적 외부성이 사회적 자원낭비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본 연구는 부정적 외부성이 사회적 자원낭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단계별(협상단계와 전쟁단계) 상황을 소개한다. 제Ⅲ장은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한 슈타겔버그 모형을 소개하고, 균형 무력수준(equilibrium military-force level)과 이에 따른 결과를 유도하고 분석한다. 제Ⅳ장은 (명목, 실질) 지대소진율을 측정하고, 부정적 외부성이 기대이익과 지대소진율에 주는 변화를 살펴본다.[14]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11) Shaffer(2006)의 모형, 즉 당사국들이 서로 동시에 전쟁에 임하는 모형을 꾸르노모형, 그리고 본 연구에서처럼 한 당사국이 먼저 전쟁을 유발시키는 모형을 슈타겔버그모형이라고 한다: Shaffer, S., "War, Labor Tournaments, and Contest Payoffs," *Economics Letters*, 92(2006), pp. 250-255.

12) 본 연구는 군사분쟁과 전쟁을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군사분쟁은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두 당사국의 "협상단계"와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에서 두 당사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단계"를 아우르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반해, 전쟁은 전쟁단계만을 의미한다.

13) [부록 1]에서는 무력과 부정적 외부성이 비선형 관계인 경우에 사회적 자원낭비가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형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자원낭비를 분석할 것이다.

Ⅱ. 협상 및 전쟁의 단계

1. 협상 단계

본 연구는 군사분쟁을 협상단계와 전쟁단계로 분류한다. 즉, 두 당사국은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협상단계를 갖는다. 협상단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단계로 진입한다. 본 연구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협상단계에서 마무리 되는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 당사국 또는 두 당사국의 기대이익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 즉, 합리적인 두 당사국은 음의 기대이익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음의 기대이익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대이익이 음의 값을 갖는 상황을 두 당사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으로 단정하지는 않을 것이다.[15]

2. 전쟁단계: 슈타겔버그 모형

두 당사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단계를 고려하자. 당사국 1과 당사국 2는 전쟁에서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무력을 사용한다. 당사국 i (= 1, 2)가 투하하는 무력수준을 x_i (〉 0)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때 당사국 1과 당사국 2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대를 획득할 확률, 즉 승전확률(winning probability)은 각각 다음과 같다.

$$p_1 = \theta x_1/(\theta x_1 + x_2), \qquad p_2 = x_2/(\theta x_1 + x_2) \tag{1}$$

식(1)은 $p_1 = (1 - p_2)$를 의미하며, 당사국 i의 승전확률(p_i)은 x_i에 대해 오목함수이다: $\partial p_i/\partial x_i > 0$, $\partial^2 p_i/\partial x_i^2 < 0$. {$\theta > 0$}는 당사국들의 군사능력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지수이다. {$\theta < 1$}는 당사국 1에 비해 당사국 2의 군사능력이 높음을, {$\theta = 1$}는 당사국 1와 당사국 2의

14) 명목 지대소진(nominal rent-dissipation)은 총무력수준, 즉 두 당사국들의 균형 무력수준의 합을 의미하며, 명목 지대소진율(nominal rent-dissipation rate)은 총무력수준을 지대로 나눈 것이다. 실질 지대소진(real rent-dissipation)은 실질 총무력수준, 즉 균형 무력수준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와 총무력수준의 합을 의미하며, 실질 지대소진율(real rent-dissipation rate)은 실질 총무력수준을 지대로 나눈 것이다. 경합모형에서 지대소진을 측정하는 이유는 지대소진이 사회적 자원낭비를 측정하는 대표적 함수이기 때문이다. 즉 지대소진의 증가는 사회적 자원낭비의 증가를, 지대소진의 감소는 사회적 자원낭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명목 지대소진은 외부효과를 사회적 자원낭비에서 제외시켜 측정하는 반면에, 실질 지대소진은 외부효과를 사회적 자원낭비에 포함시켜 측정하게 된다: Hurley, T. M., "Rent Dissipation and Efficiency in a Contest with Asymmetric Values," *Public Choice*, 94(1998), pp. 289-298.

15) 현실에서 부정적 외부성, 즉 무력에 따른 피해가 커서 전쟁당사국들이 음의 기대이익을 갖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군사능력이 동일함을, $\{\theta > 1\}$는 당사국 1에 비해 당사국 2의 군사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당사국 i의 기대이익을 G_i로 표기하자. 이때 전쟁에서 당사국 1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G_1 &= p_1(v - \delta x_1 - \delta x_2 - x_1) + p_2\{- \delta x_1 - \delta x_2 - x_1) \\ &= p_1 v - (1 + \delta) x_1 - \delta x_2 \end{aligned} \tag{2}$$

식(2)에서 $\{\delta x_1 + \delta x_2\}$는 당사국 i가 무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피해액을 무력수준으로 측정한 것이다($0 < \delta < 1$). 분석의 편의를 위해 δ를 외부성 지수(externality index)로 명명한다. Shaffer(2006)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대이익은 차이점이 있다. Shaffer(2006)는 승전국은 피해액이 차감된 지대를 얻고, 패전국은 지대를 잃기 때문에 피해액이 자신의 기대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전쟁에서 당사국이 승전국이던 패전국이던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한다 [각주 9)를 참조하시오]. 당사국 2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G_2 &= p_2(v - \delta x_1 - \delta x_2 - x_2) + p_1\{- \delta x_1 - \delta x_2 - x_2) \\ &= p_2 v - \delta x_1 - (1 + \delta) x_2 \end{aligned} \tag{3}$$

본 연구는 당사국 1이 선도국(the leader)으로서 먼저 무력을 사용하고, 이를 인지한 당사국 2는 추종국(the follower)으로서 대응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즉, 본 연구는 선도국과 추종국이 경합하는 슈타겔버그 균형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추종국인 당사국 2의 최적대응함수를 유도해 보기로 한다. 당사국 2는 식(3)으로 표현된 자신의 기대이익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수준을 선택하며, 이를 위한 제1계 미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theta x_1 v/(\theta x_1 + x_2)^2 - (1 + \delta) = 0 \tag{4}$$

식(4)에서 당사국 2의 "한계총보수(marginal gross payoff), $\theta x_1 v/(\theta x_1 + x_2)^2$"는 당사국 2의 무력에 대해 감소함수이며, 이는 최적화에 대한 제2계 미분이 충족됨을 의미한다: $\partial^2 G_2/\partial x_2^2 = - 2\theta x_1 v/(\theta x_1 + x_2)^3 < 0$. 식(4)를 이용하면 당사국 2의 최적대응함수$\{R_2(x_1)\}$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_2(x_1) = - \theta x_1 + \{\theta x_1 v/(1 + \delta)\}^{1/2} \tag{5}$$

다음으로 당사국 1의 최적화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당사국 1은 당사국 2의 최적대응함수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력수준을 선택한다. 즉, 당사국 1의 최적화문제는 다음과 같다.

$$\max.\ G_1 = p_1 v - (1 + \delta)x_1 - \delta x_2$$
$$\text{s.t. } R_2(x_1) = -\theta x_1 + \{\theta x_1 v/(1 + \delta)\}^{1/2} \tag{6}$$

당사국 1의 최적화를 위한 제1계 미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theta v/(1 + \delta)x_1\}^{1/2}/2 - 1 - (1 - \theta)\delta = 0 \tag{7}$$

제2계 미분조건은 다음과 같이 만족된다: $\partial^2 G_1(R_2(x_1))/\partial x_1^2 = -\{\theta v/(1 + \delta)x_1\}^{1/2}/4x_1 < 0$. 식(7)로부터 당사국 1의 균형 무력수준(x_1^*)이 유도되며, x_1^*를 식(5)로 표현된 당사국 2의 최적대응함수에 대입하면 당사국 2의 균형 무력수준(x_2^*)이 유도된다. 보조정리 1은 슈타겔버그 모형에서 유도된 균형 결과를 보여준다.

보조정리 1. 슈타겔버그 균형을 고려한 전쟁에서,
$x_1^* = \theta v/4(1 + \delta)\{(\theta - 1)\delta - 1\}^2$,
$x_2^* = \{2(1 - (\theta - 1)\delta) - \theta\}\theta v/4(1 + \delta)\{(\theta - 1)\delta - 1\}^2$
당사국 1과 당사국 2의 승전확률은 다음과 같으며:
$p_1^* = \theta/2\{1 + (1 - \theta)\delta\}$, $p_2^* = \{2(1 + \delta) - \theta(1 + 2\delta)\}/2\{1 + (1 - \theta)\delta\}$
각 당사국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다:
$G_1^* = \theta v/4(1 + \delta)\{1 + (1 - \theta)\delta\}$,
$G_2^* = \{(1 - \theta)^2\delta^3 - (1 - \theta)(2\theta - 3)\delta^2 - (1 - \theta)(5\theta - 12)\delta/4 + (2 - \theta)/4\}v/$
$\{(\theta - 1)\delta - 1\}^2$

우선,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 즉 당사자들의 무력수준이 0이거나 음의 값을 갖는 상황을 고려하자. 당사국 1의 균형 무력수준은 항상 0보다 크지만, 당사국 2의 노력수준은 $\{\theta \geq 2(1 + \delta)/(1 + 2\delta)\}$이면 0이거나 음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theta \geq 2(1 + \delta)/(1 + 2\delta)\}$ 영역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며, $\{\theta < 2(1 + \delta)/(1 + 2\delta)\}$의 영역에서 유도된 결과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음으로, 당사국들이 협상단계에서 분쟁을 종식시킬 필요조건, 즉 당사국들의 기대이익이 음의 값을 갖는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사국 1의 기대이익이 음의 값을 가질 조건은 $\{\theta > (1 + \delta)/\delta\}$인데 $\{2(1 + \delta)/(1 + 2\delta) < (1 + \delta)/\delta\}$이 성립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당사국 1의 기대이익은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된다. 당사국 2의 기대이익이 음의 값을 가질 조건은 $\{\theta \geq \{(8\delta^3 + 2\delta^2 + 17\delta + 4) - (\delta(16\delta^3 + 40\delta^2 + 33\delta + 8))^{1/2}\}/2(1 + \delta)(1 + 2\delta)^2\}$이며, 이 조건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필요조건이다. 이는 선도국(당사국 1)의 군사능력이 추종국(당사국 2)에 비해 월등히 높으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단계에서 분쟁이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8\delta^3 + 2\delta^2 + 17\delta + 4) - (\delta(16\delta^3 + 40\delta^2 + 33\delta + 8))^{1/2}\}/2(1 + \delta)(1 + 2\delta)^2\} < \theta < \{2(1 + \delta)/(1 + 2\delta)\}$의 영역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당사국 2의 기대이익은 음의 값을 갖게 된다.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국들의 균형 무력수준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당사국 1과 당사국 2의 균형 무력수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x_1^* - x_2^* = (\theta - 1)(1 + 2\delta)\theta v/4(1 + \delta)\{(\theta - 1)\delta - 1\}^2 \tag{8}$$

식(8)의 부호는 $\{\theta < 1\}$이면, $\{x_1^* < x_2^*\}$ 그리고 $\{1 < \theta < 2$이고 $\theta < 2(1 + \delta)/(1 + 2\delta)\}$이면, $\{x_1^* > x_2^*\}$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군사능력이 뛰어난 당사국의 무력수준이 그렇지 않은 당사국의 무력수준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국 1이 "열세국" 또는 "우세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p_1^* - p_2^* = (\theta - 1)(1 + \delta)/\{1 + (1 - \theta)\delta\} \tag{9}$$

식(9)는 $\{\theta < 1\}$이면, $\{p_1^* < p_2^*\}$ 그리고 $\{1 < \theta < 2$이고 $\theta < 2(1 + \delta)/(1 + 2\delta)\}$이면, $\{p_1^* > p_2^*\}$임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동일하다. 즉, 군사능력이 뛰어난 당사국이 더 많은 무력수준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우세국이 되는 것이다.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국들의 기대이익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당사국 1의 기대이익에서 당사국 2의 기대이익을 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G_1^* - G_2^* = (\theta - 1)\{(1 - \theta)\delta^3 + (3 - 2\theta)\delta^2 + (3 - 3\theta/2)\delta + 1 - \theta/4\}v \\ /(1 + \delta)\{(\theta - 1)\delta - 1\}^2 \tag{10}$$

식(10)은 $\{\theta < 1\}$이면, $\{G_1^* < G_2^*\}$ 그리고 $\{1 < \theta < 2$이고 $\theta < 2(1+\delta)/(1+2\delta)\}$이면, $\{G_1^* > G_2^*\}$임을 보인다. 즉, 전쟁단계에서 당사국들의 기대이익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당사국들이 상이한 군사능력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군사능력의 차이를 가정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들을 제시하게 된다. 즉, 군사능력의 차이는 무력수준, 승전확률, 그리고 기대이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인다.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정적 외부성이 균형 무력수준 그리고 기대이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자. 우선, 부정적 외부성이 당사국 1의 균형 무력수준에 주는 변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partial x_1^*/\partial\delta = -\{3(\theta-1)\delta) + 2\theta - 3\}\theta v/4(1+\delta)^2\{(\theta-1)\delta - 1\}^3 \qquad (11)$$

식(11)은 $\{\theta < 3(1+\delta)/(2+3\delta)\}$이면 $\{\partial x_1^*/\partial\delta < 0\}$이지만, $\{3(1+\delta)/(2+3\delta) < \theta < 2(1+\delta)/(1+2\delta)\}$이면 $\{\partial x_1^*/\partial\delta > 0\}$임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군사능력이 높은 선도국은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할 때 무력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능력이 매우 높은 우세국은 피해액이 증가하더라도 승전(triumph)을 통해 지대를 획득하는 것이 기대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정적 외부성이 당사국 2의 균형 무력수준에 주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partial x_2^*/\partial\delta = \{(\theta-1)^2\delta^2 + (5\theta^2/4 - 13\theta/4 + 2)\delta + \theta^2/2 - 5\theta/4 + 1\}\theta v /(1+\delta)^2\{(\theta-1)\delta - 1\}^3 < 0 \qquad (12)$$

식(12)에서 $\{\theta < 2(1+\delta)/(1+2\delta)\}$이면, 분자는 항상 양의 값을 갖으며 분모는 음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외부성 지수가 증가할 때 당사국 2의 무력수준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외부성이 당사국 1의 기대이익에 주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partial G_1^*/\partial\delta = \{(\theta-1)2\delta + \theta - 2\}\theta v/4(1+\delta)^2\{(\theta-1)\delta - 1\}^2 < 0 \qquad (13)$$

식(13)에서 분모는 $\{\theta < 2(1+\delta)/(1+2\delta)\}$에 해당되므로 $\{\partial G_1^*/\partial\delta < 0\}$가 성립된다.

다음으로 부정적 외부성이 당사국 2의 기대이익에 주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partial G_2^*/\partial\delta = -\{(\theta-1)^2\delta^3 + (5\theta^2/2 - 6\theta + 7/2)\delta^2 + (2\theta^2 - 21\theta/4 + 13/4)\delta + \theta^2/2 - 3\theta/2 + 3/4\}\theta v/(1+\delta)^2\{(\theta-1)\delta - 1\}^3 \qquad (14)$$

식(14)에서 분모는 항상 음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마이너스 부호를 포함한 분자가 음이면 $\{\partial G_2^*/\partial\delta > 0\}$이고, 양이면 $\{\partial G_2^*/\partial\delta < 0\}$이다. 따라서 $\{\partial G_2^*/\partial\delta >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theta > [8\delta^3 + 24\delta^2 + 21\delta + 6 + (16\delta^4 + 56\delta^3 + 81\delta^2 + 52\delta + 12)^{1/2}]/4(1 + \delta)^2(1 + 2\delta)\}$이다. 하지만 $\{2(1 + \delta)/(1 + 2\delta) < [8\delta^3 + 24\delta^2 + 21\delta + 6 + (16\delta^4 + 56\delta^3 + 81\delta^2 + 52\delta + 12)^{1/2}]/4(1 + \delta)^2(1 + 2\delta)\}$이므로, $\{\partial G_2^*/\partial\delta >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partial G_2^*/\partial\delta < 0\}$이 성립된다.

정리 1은 보조정리 1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정리 1. (*a*) 선도국의 군사능력이 높고 부정적 외부성이 크다면, 전쟁은 발생하지 않고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발생한다.

(*b*) 전쟁이 발생하는 슈타겔버그 균형에서, 군사능력이 높은 당사국이 더 많은 무력수준을 선택하여 우세국이 되며, 우세국의 기대이익이 열세국의 기대이익에 비해 크다.

(*c*) 전쟁이 발생하는 슈타겔버그 균형에서, 선도국의 군사능력이 추종국의 군사능력에 비해 높은 경우를 가정하자.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할 때 군사능력이 월등히 높은 선도국은 자신의 무력수준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력수준을 낮춘다. 이에 반해, 추종국은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하면 항상 무력수준을 낮춘다.

(*d*) 전쟁이 발생하는 슈타겔버그 균형에서, 선도국과 추종국은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하면 낮은 기대이익을 얻는다.

정리 1은 (1) 선도국의 군사능력이 추종국의 군사능력에 비해 매우 높거나, (2) 조금 높지만 부정적 외부성이 큰 경우에 두 당사국의 분쟁이 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부정적 외부성이 당사국들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Ⅲ. 명목 및 실질 지대소진율

제Ⅲ장에서는 부정적 외부성과 상대적 군사능력이 명목 지대소진율과 실질 지대소진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Shaffer(2006)는 명목 지대소진(율)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실질 지대소진율을 측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Shaffer(2006)는 지대의 외부성을 고려한 경합에서 내쉬균형의 결과로 유도된 각 당사국의 노력수준은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긍정적 외부성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외부성이 사회적 자원낭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무력에 따른 피해액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자원낭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Shaffer(2006)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명목 지대소진율은 총무력수준(즉, 두 당사국들의 균형 노력수준의 합)을 지대로 나눈 것이므로, 명목 지대소진율은 부정적 외부성에 의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실질 지대소진율은 실질 총무력수준(즉, 균형 노력수준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와 총무력수준의 합)을 지대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자원낭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실질 지대소진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우선 명목 지대소진율을 측정하여 보자. 균형 무력수준에서 유도된 명목 지대소진율을 RD^*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때 명목 지대소진율은 다음과 같다: $RD^* = (x_1^* + x_2^*)/v$. 식(15)는 각 모형에서 유도된 명목 지대소진율을 보여준다.

$$RD^* = \{3 + 2(1 - \theta)\delta) - \theta(\theta/4(1 + \delta)\{(\theta - 1)\delta - 1\}^2 \tag{15}$$

RD^*를 δ에 대해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부록 4].

$$\partial RD^*/\partial\delta = \{(\theta - 1)^2\delta^2 + (5\theta^2/4 - 4\theta + 11/4)\delta + \theta^2/2 - 7\theta/4 + 7/4\}\theta /(1 + \delta)^2\{(\theta - 1)\delta - 1\}^3 < 0 \tag{16}$$

식(16)에서 분모는 항상 음의 값을 갖으며 분자는 양의 값을 갖게 되므로 $\{\partial RD^*/\partial\delta < 0\}$이 성립된다.

이제, 실질 지대소진율을 측정하여 보자. 실질 지대소진율을 RRD^*로 표기하자. 본 연구에서 유도된 실질 총노력수준은 $\{\delta x_1^* + (1 + \delta)x_2^* + \delta x_2^* + (1 + \delta)x_1^* = (1 + 2\delta)(x_1^* + x_2^*)\}$이다. 따라서 실질 지대소진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RRD^{*} = (1 + 2\delta)\{3 + 2(1 - \theta)\delta - \theta\}\theta/4(1 + \delta)\{(\theta - 1)\delta - 1\}^{2} \quad (18)$$

RRD^{*}를 δ에 대해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begin{aligned}\partial RRD^{*}/\partial\delta = \{&(\theta - 1)^{2}\delta^{3} + (\theta - 1)(2\theta - 3)\delta^{2} + (7\theta^{2}/4 - 4\theta + 9/4)\delta \\ &+ \theta^{2}/2 - 5\theta/4 + 1/4\}\theta \\ &/(1 + \delta)^{2}\{(\theta - 1)\delta - 1\}^{3}\end{aligned} \quad (19)$$

$\{\theta < 0.21\}$이면, $\partial RRD^{*}/\partial\delta < 0$;

$\{0.21 < \theta < 2(1 + \delta)/(1 + 2\delta)\}$이면 $\partial RRD^{*}/\partial\delta > 0$.

부정적 외부성이 RRD^{*}에 미치는 영향은 군사능력과 관련된다. 당사국 1, 즉 선도국의 군사능력이 크게 작지 않다면, 부정적 외부성은 실질 지대소진율을 증가시킨다. 다시 말하면, 선도국의 군사능력이 매우 낮은 경우에만 부정적 외부성은 실질 지대소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부정적 외부성과 지대소진율에 대한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슈타겔버그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할수록 명목 지대소진율은 낮아지지만, 일반적으로 실질 지대소진율은 높아진다.

정리 2는 지대소진율과 관련된 주요 결과를 요약한다.

정리 2. 전쟁이 발생하는 슈타겔버그 균형에서

(*a*)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할수록 명목 지대소진율은 감소한다.

(*b*) 일반적으로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할수록 실질 지대소진율은 증가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Shaffer(2006)의 “가정의 특이성”과 “결과의 오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Shaffer(2006)는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국의 전략적 행위와 이에 따른 기대이익을 분석하였다. Shaffer(2006)는 동일한 군사능력을 지닌 두 당사국이 “꾸르노 전쟁”에 참여하며, 무력에 따른 부정적 외부성(피해)은 승전국에게만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현실적으로 두 당사국의 군사능력은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정적 외부성은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6.25전쟁,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 많은 전쟁에서 특정 당사국이 먼저 도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이한 군사능력을 지닌 두 당사국이 “슈타겔버그 군사분쟁”에 참여하며,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무력의 사용에 따른 부정적 외부성은 승전국뿐 아니라 패전국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Shaffer(2006)는 피해액이 무력에 대해 오목함수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피해가 당사국들의 기대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잘못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입안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록 1]에서 오목함수의 특성을 지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국들의 기대이익이 감소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필요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전쟁은 지대추구를 위한 경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자원낭비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낭비를 축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회적 자원낭비(지대소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Shaffer(2006)는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사회적 자원낭비가 감소됨을 보였지만, 본 연구는 이를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국의 군사능력이 우수하고 무력에 따른 피해액이 크다면 전쟁은 발생하지 않고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군사능력이 높은 당사국의 무력수준이 낮은 당사국의 무력수준에 비해 높으며, 군사능력이 높은 당사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50%를 넘게 될 뿐 아니라 경쟁국에 비해 높은 기대이익을 얻게 된다. 셋째, 선도국의 군사능력이 매우 낮은 경우를 제외하면, 부정적 외부성이 증가할수록 실질 지대소진율로 측정된 사회적 자원낭비는 증가한다.

본 연구의 공헌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Shaffer(2006)와 달리, 본 연구는 당사국들의 군사능력의 차이가 크고, 부정적 외부성이 높으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군사능력이 전쟁의 승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결과는 당사국이 선도국이 되던 추종국이 되던 변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군사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전쟁이 발행하는 경우에 부정적 외부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원낭비가 높아짐을 보임으로써, 부정적 외부성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부록 1] 비선형함수를 고려한 부정적 외부성과 무력수준의 관계

여기서는 Shaffer(2006)의 결과를 수정하기로 한다. 그는 당사국들이 동일한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승전확률은 다음과 같다.

$$q_1 = x_1/(x_1 + x_2), \qquad q_2 = x_2/(x_1 + x_2) \tag{a1}$$

당사국 i의 기대이익을 A_i로 표기하자. 부정적 외부성이 승전국에게만 발생하고, 부정적 외부성에 대한 무력수준이 오목함수로 표현되는 경우에 당사국 i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다.

$$A_i = q_i(v - x_i^{\delta} - x_j^{\delta}) - x_i, \text{ 단 } (i \neq j) \tag{a2}$$

식(a2)에서 $\{x_1^{\delta} + x_2^{\delta}\}$는 당사국 i가 전쟁에서 지대를 얻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피해액을 무력수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당사국 i의 극대화를 위한 제1계 미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v - (1 + \delta)x_1^{\delta} - x_2^{\delta}\}/(x_1 + x_2) - \{v - x_1^{\delta} - x_2^{\delta}\}x_1/(x_1 + x_2)^2 - 1 = 0 \tag{a3}$$

두 당사국의 균형 무력수준을 각각 x_1^N, x_2^N이라고 하자. 두 당사국은 동일한 능력을 지녔으므로 각 당사국의 균형 무력수준은 동일하다: $x^N = x_1^N = x_2^N$. 이때 식(a3)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 - 2(1 + \delta)(x^N)^{\delta}\}/4x^N - 1 = 0 \tag{a4}$$

또한 부정적 외부성이 무력에 대해 오목함수인 경우($\delta < 1$)에 제2계 미분조건은 항상 만족된다: $-\{v + 2(\delta^2 - 1)(x^N)^{\delta}\}/4(x^N)^2 < 0$. Shaffer(2006)는 $\{\delta = 1/2\}$인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균형 무력수준은 $[x_1^N = x_2^N = \{8v - 3(9 + 16v)^{1/2} + 9\}/32]$이며 이는 부정적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균형 무력수준인 $v/4$에 비해 작다. 또한 이 예에서 각 당사국의 기대이익$\{A_i^N\}$은 $\{8v - 4(16v + 18 - 6(9 + 16v)^{1/2})^{1/2} - 9 + 3(9 + 16v)^{1/2}\}/32$이며, 이 기대이익은 부정적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기대이익인 $v/4$에 비해 작다. Shaffer(2006)는 식(a4)를 잘못 계산하여 $\{A_i^N > v/4\}$라는 잘못된 계산을 하였다.

참 고 문 헌

박성훈, “이전가능 외부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수단,” 『시장경제연구』, 제45권(2016).
박성훈·이상학·노상채, 『미시경제학: 제2판』, (법문사, 2017).

Baik, K. H., and Shogren, J. F., “Strategic Behavior in Contests: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82(1992).

Chung, T-Y., “Rent-seeking Contest When the Prize Increases with Aggregate Efforts,” *Public Choice*, 87(1996).

Dixit, A., “Strategic Behavior in Con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7(1987).

Hirshleifer, J., *Handbook of Defense Economics*(Elsevier, New York, 1995).

Hurley, T. M., “Rent Dissipation and Efficiency in a Contest with Asymmetric Values,” *Public Choice*, 94(1998).

Lee, S., and Kang, J., “Collective Contests with Externalit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4(1998).

Liston-Heyes, G., “Setting the Stakes in Environmental Contest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41(2001).

Shaffer, S., “War, Labor Tournaments, and Contest Payoffs,” *Economics Letters*, 92(2006).

Tullock, G., “The Welfare Cost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5(1967).

Tullock, G.,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A Military Conflict with Negative Externality: Stackelberg Model

Park, Sung-Hoon

Keywords

Military Capability, Military Conflict, Stackelberg Model, Negative Externalities, Nominal Rent-dissipation Rate, Real Rent-dissipation Rate

In the military conflict, the forces of the Parties can cause negative externality. Accordingly, the Parties determine their strategic behavior, that is, their level of disability, taking into account the damage caused by armed forces.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c actions and results of the two countries with different military capabilities using the Stackelberg model.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war will take place are based on the difference of the military capabilitie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size of negative externality. Second, considering a war, we derive the equilibrium force levels of the Parties, and measure the expected payoffs for the Parties and the rent-dissipation rate for Society as a result of the equilibrium.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f a leading country is a dominant country and the damage of the parties is gre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egotiation will take place without war. Second, in case of war, the superior Party's equilibrium force level is higher than that of the unhealthy Party, and the superior Party gains higher expected payoff than the unhealthy Party. Third, in general, the greater the damage of the Parties, the lower the nominal rent-dissipation rate, but the greater the real rent-dissipation rate.

This study obtains the following sugges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it showed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the Parties and that war can not occur if the damage of the Parties is large. Also, in the event of a war, military capabilit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victory and defeat, and this result applies to both the leader and the follower. However, the larger the damage of the Parties, the higher the real rent-dissipation rate showed that th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duce the damage.

[논문투고일 : 2017. 08. 31]
[심사의뢰일 : 2017. 09. 08]
[게재확정일 : 2017. 09. 27]

국방연구 2017년 9월
제60권 제3호, pp. 41-65

전국시대의 전쟁양상과 그 군사사상*

기세찬**

Ⅰ. 서 론
Ⅱ. 전쟁양상의 변화와 부국강병책
Ⅲ. 『오자』·『손빈병법』의 군사사상
Ⅳ. 출토문헌에 보이는 군사사상: 『은작산한간』·『마왕퇴한묘백서』
Ⅴ. 결 론

요 약

중국의 전국시대는 전쟁형태의 변화라는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었다. 전쟁의 주요 목적이 성과 땅을 빼앗는 것에서 영토의 확대로 바뀌었고, 소국 겸병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강국 간의 합종과 연횡이라는 복잡한 국제 정세가 출현했다. 이러한 전국시대의 전쟁양상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국시대의 전국칠웅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나름대로 개혁정치를 펼쳐나갔으며, 개혁정치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한 국가는 번영의 길로 나아갔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전국시대의 주요 병서인 『오자』와 『손빈병법』은 급변하는 전국시대의 전쟁양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오자』는 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면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전쟁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려 했고, 『손빈병법』은 반전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전쟁을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다. 출토문헌인 『은작산한간』과 『마왕퇴한묘백서』에 전국시대의 전쟁은 이미 '병서'가 독점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 문헌들에는 군사력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유가적 '王者'가 아니라 무력행사를 전제로 한 '霸者'였다. 그리고 이러한 패자를 만드는 것이 군사력의 증강과 전쟁의 승리에 있다고 한 점은 부국강병책에 의거해 전국의 시대를 끝내고자 했던 상앙의 변법을 연상케 한다.

핵심어: 오자, 손빈병법, 전국시대, 전쟁양상, 군사사상, 고대중국의 전쟁관

---

* 이 논문(저서)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 S1A5A8012475).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Ⅰ. 서 론

본고는 전국시대의 전쟁양상의 변화와 그 군사사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여 고대 중국의 전략문화의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군사학의 영역에서 과거에는 개개인의 전략사상, 전사 연구 등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개인적 혹은 개별 전쟁사의 영역을 넘어선 한 국가의 군사력 사용에 관한 행태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문화 연구가 중시되고 있다. 개인의 군사사상이나 전사 연구 등은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 범위 면에서 제한성이 있다. 그러나 전략문화라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 국가의 무력사용의 행태에 관한 것을 일반화 혹은 보편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혹적인 접근법으로 군사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자들에게도 매우 각광받고 있다.[1)]

근래 전략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고대중국의 전략문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고대중국에 대한 군사사상의 이해는 유가적인 의전(義戰)사상과 손자의 부전승(不戰勝)사상이 지배적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즉, 중국은 유교적 영향으로 평화와 조화를 중시하면서 전쟁과 폭력을 혐오하는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급적 전쟁을 회피한다. 그리고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중국은 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군사력을 동원하며, 이때에도 전쟁의 범위와 기간을 가급적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중국의 전국시대는 전쟁형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었다. 고예(高銳)는 전국시대는 전쟁의 주요목적이 성과 땅을 빼앗는 것에서 영토의 확대로 바뀌었고, 소국 겸병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강국 간의 합종과 연횡이라는 복잡한 정세가 출현했으며, 전쟁규모가 확대되고 동원병력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전술이 등장했고, 또한 전쟁의 잔학성과 파괴성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2)] 이것은 중국을 전형적인 유교국가의 본으로서 전쟁을 혐오하고 평화를 선호하는 '文'적인 인상과는 반대로 타국병탄·군비증강·전쟁규모의 확대를 비롯해 '武'의 현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중국의 군사사상 연구에서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연구자들 대부분이 송대에 확립된 '무경칠서'라는 틀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 인해 전국시대 병학의 실태를 왜곡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국시대에 『손자』·『오자』가 전국적으로 유포되어

---

1) 1970년대 이후 잭 스나이더(Jack Snyder)에 의해 제기된 소련의 핵교리를 설명하는 '전략문화'에 관한 논의가 서양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제 이 전략문화가 국가의 정책적 수준이 아닌 반영구적인 문화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대 안보연구의 한 분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2) 高銳. 『中國上古軍事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5).

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전국시대의 군사사상이 이들 병서에 의해서만 논의될 문제는 아니다. 특히 1972년 산동성 임기(臨沂)에서 발견된 『은작산한간(銀雀山漢簡)』과 1973년 호남성 장사(長沙)에서 발견된 『마왕퇴한묘백서(馬王堆漢墓帛書)』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병서 등 대량의 군사관계 문서들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전국시대의 정치와 군사의 실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출토문헌들을 기존의 병서들과 비교 분석한다면 중국고대의 군사사상 연구를 한층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국시대의 공세적 군사사상이나 패도적 군사사상의 출현배경과 그 내용들에 대한 실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전국시대에 들어서 전쟁수행방식이 춘추시대와 대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춘추시대에 나타난 부국강병사상이 전국시대에 어떤 식으로 공고화 되었는지 국력의 회복과 군사력의 강화측면에서 그 시책들을 추적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병서인 『오자(吳子)』·『손빈병법(孫臏兵法)』을 중심으로 이들 병서에 담겨있는 전쟁관과 부국강병책을 중심으로 그 군사사상을 검토해 볼 것이다. 『오자』와 『손빈병법』에 보이는 전쟁의 정당성과 부국강병사상에 대한 고찰은 춘추시대 『손자』의 군사사상과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작산한간』과 『마왕퇴한묘백서』에 보이는 군사사상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들은 전국시대부터 한(漢)대에 걸쳐 성립했다고 생각되는 다른 문헌들과의 연관성이 높아 다른 고대 병서의 성립과정을 해명할 때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관주의적 시각에 침윤되어 있는 고대중국의 군사사상 이해를 극복하고, 최근 다방면에서 활발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전략문화의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전쟁양상의 변화와 부국강병책

1. 전쟁양상의 변화

전국시대는 진(晉)이 위(魏)·조(趙)·한(韓)으로 분리된 기원전 453년부터 시작되었다.[3] 애초 진은 북방의 강국으로 진 문공이 패권을 장악한 이래 남방의 초나라와 춘추 말기까지

3)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구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진(晉)의 한·위·조로 삼분되는 기원전 453년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한·위·조가 주 천자에게 제후로서의 지위를 공식 승인받은 기원전 403년으로 보는 견해이다. 명분을 중시하는 측면에서는 후자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연구의 목적상 역사 사실 자체를 중시하여 실제 진이 삼분되었던 기원전 453년을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설을 취한다.

패권을 겨루었다. 그러나 한(韓)·위(魏)·조(趙)·지(知)·범(范)·중행(中行)의 여섯 씨족들이 점차 득세하여 진의 공실은 날로 쇠약해져 갔다. 결국 기원전 453년 진의 한씨·위씨·조씨 3가가 진공실의 토지를 분배하여 진국은 멸망하고 한·위·조의 3진이 새롭게 등장했다.[4] 한·위·조 3진은 병합과 공벌의 과정을 통해 개국했고 이 3국의 출현은 당시의 국제정세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국경이 모두 적대국과 인접되어 있어 매우 호전적이었던 이 3국의 출현은 전국시대의 무수한 전쟁과 세력 변동을 태동케 했다.

전국시대의 전쟁은 춘추시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었다. 춘추시대는 주왕조의 권위가 겨우 잔존한 가운데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대국과 그 사이에서 연명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소국이 병존하는 시대였다. 춘추시대의 전쟁에서는 주로 적대국과의 군사적 항쟁에 승리를 거두어 중원에서 패를 주창하는 형태로 자국에게 안녕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주요 전쟁 목적이었다.[5] 이런 의미에서 춘추시대의 전쟁은 천하통일을 지향하는 전국시대의 전쟁과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전국시대에 중국은 양육강식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남쪽의 강국 월(越)이 점차 쇠약해져감에 따라 진(秦)·제(齊)·초(楚)·연(燕)·조(趙)·위(魏)·한(韓)의 7국이 병립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은 이 7개 강국 이외도 노(魯)·송(宋)·정(鄭)위(衛)·중산(中山) 등 10여개의 중소 국가들이 병존하고 있었는데, 7개 군사강국은 영토 확장, 노동력 점유, 부의 약탈을 위해 서로 격렬한 병탄전쟁을 전개했다.[6]

전국시대의 전쟁 목적은 춘추시대의 패권이나 영토획득에 머물지 않고 '천하' 경영을 의식한 타국 병탄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전쟁의 직접적인 목표는 적의 성을 공격하여 적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시대에 각국 간에는 외교술, 권모술수, 책략 등이 난무한 가운데 강국 간의 합종과 연횡이라는 복잡한 정세가 출현했다. 맹자는 이러한 전국시대의 상황을 보고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여 사람을 죽이니 들판에 시신이 가득하고, 성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여 사람을 죽이니 성에 시신이 가득하다"라고 한탄했다.[7]

전쟁의 장기화와 그 규모의 확대에 따라 잔존한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국책(戰國策)』에 근거하면, 진과 초는 병력이 각각 100만, 전차 1000승, 기병이 1만 필이었고, 위는 병력이 70만, 전차 600승, 기병은 5000필이었으며,

---

4) 이춘식. 『중국 고대의 역사와 문화』(서울: 신서원, 2007), pp. 159-161.

5) 대표적인 전쟁 사례로 기원전 632년에 강대국인 진(晉)과 초(楚) 사이에 발생한 성복(城濮)전투가 있다. 이 전투에서 초는 진의 연합군에게 대패했지만 멸망하지 않았고, 진 문공은 주왕에게서 패자로 인정받았다. 『春秋左氏傳』 魯僖公 28年.

6) 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 編著. 『中國戰爭發展史』 上(北京: 人民出版社: 2002), p. 93.

7) 『孟子』, 「離婁上」.

제는 병력이 수십만, 조는 병력이 수천 명, 전차 1000승, 기병 만필, 한은 병력이 30만, 연은 병력이 수십만, 전차 700승, 기병은 6000필로 전쟁의 규모가 춘추시대와 비교해 급격히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마릉(馬陵)전투에서 위(魏)나라는 10만의 군대를 출동시켰고, 제서(齊西)전투에서 연나라는 제의 70여 성을 함락했으며, 이궐(伊厥)전투에서 진(秦)의 백기는 한·조 연합군을 공격해 24만 명을 참수하고, 특히 장평(長平)전투에서 조(曹)군의 사망자는 45만 명에 달했다. 비록 기록된 숫자가 과장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만 전국시대 전쟁의 일면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당시의 전쟁 양상은 총력전의 형태로 한 번의 전역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병력이 사상 당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격렬했던 전장에서 전투의 주력을 담당했던 주요 병종은 무엇이었을까? 춘추초기에는 주로 귀족들로 구성된 전차전이 주력이었지만 춘추 중·후기에는 전쟁규모가 확대되면서 보병이 주요 병과로 등장하게 되었다.[8] 전국시대에는 보병의 중시 추세가 계속되었으며 여기에 기병까지 가세하게 된다. 군대 편제를 보면 춘추시대에 전차 중심의 3군은 전국시대에 들어서 전차·보병·기병이 혼합된 편제를 보이게 된다. 이는 주요 전투원이 과거 지배 및 귀족 계층 중심에서 농민으로 이미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보병과 기병이 전장에서 주요 임무를 맡게 됨에 따라 전쟁형태도 전차전 중심에서 보병·차병·기병의 합동전으로 변화되었다. 전투 장소 또한 과거 전차전이 가능한 넓은 평원에서 구릉·산림·늪지대로 다양화 됐다. 그리고 보전합동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술도 전차전 중심의 정면 공격에서 보병과 기병을 활용한 측면공격, 유인, 매복, 우회, 후방 차단 등의 다양한 전술이 등장했다.

〈표 1〉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전쟁양상 비교

구분	춘추시대	전국시대
전쟁 목적	자국의 안전, 주왕조 차원의 징벌	'천하' 경영을 의식한 타국 병탄
전쟁 목표	한두 차례의 전투 승리로 타국의 성과 땅을 빼앗는 것	적국을 공격하여 완전 멸망
전쟁 기간	단기전	장기전
군대 편제	전차 중심의 3군	보병의 확대 (전차 3군+보병 3군)
전쟁 형태	전차전	보(병)·전(차)+기병의 합동전
병력 구성	지배 및 귀족 계층 중심	대규모 농민 동원
전투 장소	넓은 들	구릉, 산림, 늪
전술	정면 전차전	측면 공격, 유인, 매복, 우회, 차단 등 새로운 전술 등장

8)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세찬. "춘추시대의 전쟁수행방식과 전쟁관", 『史叢』 제91호(2017. 5), pp. 161-174 참조.

이러한 전국시대 전쟁형태 변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일반 농민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보병이 대두됨에 따라 당시의 신분질서가 동요하게 되었고 지배계층으로 살아왔던 귀족들이 저항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적 측면에서 대규모의 동원에 필요한 행정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들 대규모 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경제적 기반의 충실이 요구되었다. 각국의 통치자들은 격렬한 겸병전쟁의 와중에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치·군사 인재들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책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전국칠웅의 부국강병책

여기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전국시대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전국칠웅으로 일컬어지는 강대국들이 어떠한 부국강병책을 실시했는지 구체적인 시책들을 검토해 보겠다. 전국시대에 들어서 각국은 대내적으로 통치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겸병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력을 확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정치·군사 개혁들을 단행했다. 전국칠웅 중 가장 먼저 국가 개혁을 시도한 나라는 위(魏)였다.

위는 3진(晉)의 하나로 중원의 중심에 자립잡고 있었다. 대략 지금의 섬서성과 하남성 일대로 황하를 끼고 있었으며, 수도는 안읍(安邑, 지금의 서하현(西夏縣) 서북)에서 기원전 316년 대량(大梁, 지금의 하남성 개봉(開封))으로 천도했다. 위는 진·조·한·정·초·제·위 등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위의 문후(文侯)는 당시 최고로 성망 있던 제후로 기원전 445년 즉위 후 복자하(卜子夏), 전자방(田子方), 이회(李悝), 오기(吳起)를 비롯한 여러 인재들을 등용하여 정치·군사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재상으로 임명된 이회는 관작세습제 폐지를 비롯해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노동이 있어야 먹을 것이 있고, 공이 있어야 녹이 있다”라는 원칙하에 관리들을 선발하여 신상필벌을 명확히 했다.[9] 또한 정전제를 폐지하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켰으며, 풍년일 때 국가에서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일 때 보통가로 파는 ‘평적법(平糴法)’을 시행해 사회의 안정을 도모했다.

위 문후는 오기를 진과 위가 대치하고 있던 요충지, 황하 일대의 서하(西河) 군수로 임명하여 그곳의 방어를 책임지게 했다. 오기는 서하에서 이른바 ‘무졸제(武卒制)’라는 군사개혁을 시행하여 강대국 진(秦)을 수차례 격퇴시키고 5개성을 획득했다. 오기의 군사개혁의 핵심은 정예병 3000명을 선발하여 병사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선발된 병사들 가족에게는 주변의 땅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10] 진군이 쳐들어

9) 『漢書』, 「食貨志」.

10) 『吳子』. 오자의 구체적인 군사사상에 대해서는 제 3장을 참조.

오면 서하를 수비하던 병사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토지를 지키기 위해 전력으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오기는 진군과의 몇 차례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회의 정치개혁과 오기의 군사개혁으로 위는 전국 초기 최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혜왕(惠王: 기원전 370-319) 이후 한·조·제·진으로부터 연합 공격을 받은 위는 영토를 크게 상실하였고, 다시 부흥하지 못했다.

위 다음으로 국정개혁을 시도한 나라는 조(趙)였다. 조는 중원의 제일 북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략 지금의 산서성을 중심으로 섬서성 동남부와 산동성의 서부 일대를 포함했다. 기원전 425년 진양(晉陽, 지금의 산서성 태원(太原))에서 중모(中牟, 지금의 하남성 학벽산성(鶴壁山城))로 천도한 후 다시 기원전 386년에 한단(邯鄲, 지금의 하북성 한단)으로 수도를 옮겼다. 조는 서쪽으로 진, 동쪽으로 연, 남쪽으로 한·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조의 열후(烈侯)는 기원전 403년 공중(公仲)을 재상으로 삼고, 우축(牛畜)을 사(師)로, 순흔(荀欣)을 중위(中尉)로, 서월(西越)을 내사(內使)로 임명하여 국정개혁을 추진했다. 이들은 조의 내정을 개혁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부여했으며, '절재검용(節財儉用)'제를 시행하여 국가 재정의 내실을 기했다. 특히 후대에 조 무령왕(武靈王: 기원전 325-299)은 군사제도를 개혁하면서 '호복기사(胡服騎射)'라는 강력한 기병부대를 조직하여 조를 신흥 군사강국으로 만들었다.[11]

전국시대 최초 패권국이었던 위가 쇠약해지자 다음으로 제(齊)가 강성해졌다. 제의 위왕(威王: 기원전 355-320)은 추기(鄒忌)를 재상으로 삼아 내정을 강화하고,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신하들에게 언로를 개방하여 적극적으로 간언을 하도록 했으며, 상벌을 분명히 하고, 인재를 등용했다. 특히 그는 군사가인 손빈(孫臏)을 등용하여 군대를 정예화시킴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했다. 당시 제의 군대는 '격기(擊技)'의 병사로 불릴 정도로 전투력이 뛰어났고, 군사강대국으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부국강병책을 시행하여 군사력을 강화한 제는 위군을 계릉(桂陵)에서 격퇴하여 강대국 위의 세력을 약화시켰으며, 기원전 343년에는 유명한 마릉(馬陵)전투에서 위군을 완파함으로써 위의 패권은 제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 기원전 284년 연(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수도 임치를 포함한 70여 성이 함락되었다. 후에 연군을 물리치고 국토를 대부분 회복했으나 중원의 패권은 상실했다.

초(楚)는 춘추 말기에 오(吳)의 침입을 받아 국력이 일시 쇠약해졌으나, 전국 초기에 진(陳)·채(蔡)·기(杞)·거(莒)를 비롯한 약소국들을 병합하고, 월을 멸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당시 초의 영토는 북으로는 하남성 남부, 동으로는 강소성과 절강성 연해, 서로는 섬서

11) 高銳 外.『中國軍事史略』上冊(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 pp. 166-168.

성 남부와 사천성 동부, 서남쪽으로는 귀주성 동북부에 달하여 전국칠웅 가운데 영토가 제일 넓었다.[12] 특히 도왕(悼王)은 오기가 위에서 초로 망명해오자 그를 영윤(令尹)에 임명하여 국가 개혁을 추진했다. 오기는 토지 개간과 농업 증산에 노력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관리를 줄이고 권문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켰으며, 군대의 처우와 전투력을 제고시켰다. 그 결과 초의 국력은 크게 신장되어 도왕 때에 삼진(三晋)을 패배시키고, 서쪽으로는 진(秦)을 공격했다. 그러나 기원전 381년 도왕이 사망하자 오기는 초의 기득권세력들에게 살해당했으며, 오기가 추진했던 정치개혁 또한 중단되었다.

제가 쇠락하자 이번에는 서부 내륙에 위치한 진(秦)이 강성해졌다. 진은 가장 낙후되고 미개했던 국가였으나 헌공(獻公) 때에 군사력을 정비해 위를 두 번이나 격파했다. 헌공 다음에 즉위한 효공(孝公)은 부왕의 부국강병책을 계속 추진했다. 특히 효공은 위국 출신이었던 상앙(商鞅)을 등용하여 정치·군사·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진을 한순간에 강대국으로 발돋움시켰다. 상앙(商鞅)은 두 차례의 개혁을 실시했다. 1차 개혁은 기원전 356년에 단행했다. 이때 연좌제와 간사밀고제를 시행하여 백성을 통제했고, 호적제를 정비하여 세수를 늘렸으며, 20등급의 군작제를 만들어 무공을 세우는 행위를 독려하였고, 중농억상 정책을 시행하여 상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장려했다. 2차 개혁은 6년 후인 기원전 350년에 실시되었다. 이때는 현을 설치해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는 한편, 토지제도의 개혁과 부세제도를 확립하여 6국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다.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 군사강대국으로 성장한 진은 기원전 352년과 340년 위를 공격하여 이전에 상실했던 하서(河西) 지역을 회복했다. 이때부터 진은 황하를 점하여 동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기원전 318년 효공 사후 혜왕(惠王)이 즉위하자 개혁반대파들은 상앙을 모함하여 처형했다. 그렇지만 초나라와는 달리 진의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상앙의 개혁정책을 유지했기에 진의 국력과 군사력은 타국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었다.

한(韓)은 7개국 중 영토가 가장 작았던 국가로 산서 남부와 하남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의 소후(昭候)는 기원전 355년 신불해(申不害)를 재상으로 삼아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공상필벌을 철저히 했다. 신불해가 재상으로 있던 15년 동안 한은 통치가 강화되었고 사회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다른 국가들처럼 국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소후 사망 이후 한의 국력은 급속히 쇠퇴했다. 마지막으로 연(燕)은 지금의 중국 요동반도에 위치했으며 한과 마찬가지로 정치 개혁이 비교적 완만했다. 기원전 318년 연왕 쾌(噲)는 재상 자지(子之)에게 선양하여 연의 부흥을 꿈꿨으나 태자 평(平)이 반란을 일으켜 내전이 발

12) 이춘식(2007), p. 164.

생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인접국 제가 침공하여 연의 국력은 일시에 쇠락했다.[13]

이상에서 전국시대 전국칠웅을 중심으로 그들의 부국강병책을 검토해 보았다. 전국시대에 전국칠웅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나름대로의 개혁정치를 펼쳐나갔다. 개혁정치의 강도와 지속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랐고, 그 중에서 위·제·진 삼국이 가장 강력한 개혁정치를 추진했다. 전국시대에 제일먼저 국정개혁을 시행한 위가 패권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7국 중 가장 강력한 정치·경제·사회·군사개혁을 추진한 진이 패권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개혁정치를 강력하게 시행했던 국가들은 국력과 군사력이 강성해져 갔으며, 개혁정치가 완만했던 국가들은 국력이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전국시대의 부국강병책은 각국의 명운을 좌우했던 것이다.

Ⅲ. 『오자』·『손빈병법』의 군사사상

1. 『오자』의 군사사상

『한비자(韓非子)』에는 전국시대의 병서 유포상황에 대해서 "지금 경내의 모두가 전쟁을 말하며, 손자와 오자의 책을 소장한 자는 집집마다 있다"라고 기술했다.[14] 근래 학자들의 병서 연구에 있어서 『손자』에 비해 『오자』의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과거에는 『오자』는 『손자』와 병칭되며 당시를 대표하는 병서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15] 이에 여기서는 『오자』의 군사사상적 특징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단, 『오자』의 개별적인 요소에 관해 재검토하는 것은 피하고 『오자』의 군사사상적 의의를 앞서 검토한 전국시대의 전쟁양상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손자』가 중국 사상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군사사상이라 칭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상을 확립하긴 했지만, 전쟁의 정당성과 부국강병책에 관한 문제 등은 이론적으로 충분하게 발전되지 않았다.[16]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오자』의 군사사상적 특징들을 검토한다면 『손자』 이후 중국의 군사사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 그 정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시대에 각국이 추진했던 부국강병책과 관련해서 『오자』는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

---

13) 中國軍事史編書組. 『中國歷代軍事戰略』 上冊(北京: 解放軍出版社, 2006), p. 102.

14) 『韓非子』, 「五蠹篇」.

15) 『오자』의 편찬과정에 대해서는 김경현, 『오자/울료자』(서울: 지만지, 2008) 참조.

16) 기세찬(2017), pp. 174-179.

가? 위 무후(武侯)가 오기에게 “군대를 정비하고, 인재를 선발하며,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기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자고로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군신의 예와 상하의 법도를 세우고, 관리와 백성들이 직분에 충실하도록 하며, 풍습에 따라 가르치고, 훌륭한 인재를 가려 뽑아 유사시에 대비 했습니다… 따라서 강국의 군주는 반드시 그 백성을 파악합니다. 백성 중 담력과 기백이 있는 자들을 모아 1개 부대를 편성하며, 전장으로 나아가 전력으로 그 충성과 용맹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을 모아 1개 부대를 편성하며, 높은 곳을 넘고 먼 곳을 잘 달리는 자들을 모아 1개 부대를 편성하며, 왕의 신하가 그 지위를 잃었으나 공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모아 1개 부대를 편성하며, 성을 버리고 지키지 않았지만 그 불명예를 씻고자 하는 자들을 모아 1개 부대를 편성합니다. 이 5개 부대는 군의 정예입니다. 이들 3000명이 있으면, 어떠한 포위망도 뚫을 수 있고,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17]

여기에서 나라와 군대를 강성하게 하는 방법을 묻는 위 무후의 질문에 오기는 군주가 군신간의 예와 법도를 명확히 하고, 각자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하며, 인재를 뽑아 유사시에 대비하며, 군주가 백성을 실태를 파악한 뒤에 능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그 능력에 따라 5개 부대를 편성하여 3000명의 정예병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재 선발과 법령의 정비를 통해 내정을 안정을 기하고, 정예병을 편성하는 적재적소의 용병론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자』는 “나라가 화합하지 않으면 군을 출정시킬 수 없습니다. 군이 화합하지 않으면 진을 칠 수 없습니다. 진영이 화합하지 않으면 나아가 싸울 수 없습니다. 전투에 화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18]라고 했다. 이는 오기가 무엇보다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군의 화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 화합이 나라(國)→군(軍)→진(陣)→전투(戰)라는 선후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19] 이것은 『오자』가 전국시대의 빈번한 전쟁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평상시 국가와 국민의 화합을 전제로 한 여러 국내 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오자』의 독특한 군사사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졸제’라 불리는 병사 선발사상이다. 오기는 문후와 무후 2대에 걸쳐 서하(西河) 군수로서 서하 방위의 임무를 맡아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20] 오기는 어떻게 군대를 양성하여 서쪽의 강국 진(秦)을 수십 차례 싸워 이

---

17) 『吳子』, 「圖國篇」.

18) 『吳子』, 「圖國篇」.

19) 湯淺邦弘. 『中國古代軍事思想史硏究』(東京: 硏文出版, 1999), p. 84.

길 수 있었는가? 「도국편」에는 "문후는 오기를 대장군으로 삼아 서하를 지키도록 했다", "제후들과 크게 싸운 것이 76회로, 그 중 64회를 대승했으며, 나머지는 대등했다. 토지를 사방으로 개간하여 1000리의 영토를 넓혔으니 모두 오기의 공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기가 위의 중앙군을 지원받아 싸운 것이 아니라 서하에서 자체적으로 둔전제를 실시해 농민병을 선발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정예병을 만든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근거로 『순자』의 「의병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위의 무졸은 선발된다", "시험에 합격하면 부역을 면제받고 그의 논과 밭에 혜택을 주었다. 이것은 여러 해가 지나더라도 그 권리를 빼앗지 못했다."[21] 위의 무졸은 중앙군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선발되었고, 선발된 이후에는 요역의 면제와 전택의 세를 감면하는 등의 특권이 주어졌던 것이다.

한편, 『오자』는 병사의 선발뿐만 아니라 그 배치도 중요하게 여겼다. "일군 중에는 반드시 호랑이처럼 용맹한 병사가 있으며, 힘으로 가마솥을 들어 올리는 병사가 있으며, 발이 융마처럼 빠른 병사가 있으며, 적의 깃발을 뺏고 장수를 벨 수 있는 유능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선별하여 아끼고 우대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군명(軍命)이라 합니다"[22]와 같은 언급이 보인다. 또한 "전투 훈련의 방법은, 작은 사람은 창을 지니게 하며, 큰 사람은 활을 지니게 하며, 힘이 센 사람은 깃발을 들게 하며, 용감한 자는 징과 북을 잡게 하며, 허약한 자는 취사를 시키고, 머리가 좋은 자는 참모로 삼습니다"[23]라고 했다. 즉 『오자』의 병사 선발사상은 단순히 선발에 그치지 않고 선발된 병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용병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병졸을 하나의 '무리'로 파악하고 이를 집단으로써 통솔하기 위한 기술을 중시했던 『손자』와는 다른 사상으로, 『오자』는 오히려 반대로 병졸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선발한다는 독특한 주장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병력의 지휘통솔 면에서는 『손자』와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동시에 보인다. 먼저 유사점으로 오기 또한 군대의 법령과 상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후가 "용병의 방법은 무엇이 가장 으뜸인가"라고 질문하자 오기는 "만약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상벌이 불신되면 징이 울려도 멈추지 않고, 북을 쳐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100만 명이 있다 한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24]라고 대답했다. 즉 오기는 『손자』와 유사하게 징과 북으로 지휘하는

---

20) 서하란 당시 진(秦)과 위(魏)의 국경을 흐르는 황하의 옛 이름이다. 이 서하 지역은 위가 진을 방어하기 위한 요충지였다.

21) 『荀子』, 「議兵篇」.

22) 『吳子』, 「料敵篇」.

23) 『吳子』, 「治兵篇」.

24) 『吳子』, 「治兵篇」.

군대는 법령과 상벌을 명확히 하여 지휘계통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오자』에는 병사를 통솔함에 있어서 유가적인 정신이 엿보인다. 이것은 『손자』에 보이지 않는 『오자』만의 독특한 사고이다. 『사기』의 「손자오기열전」에 오기가 "병사 중 가장 낮은 자와 입고 먹는 것을 같이 하고… 병사와 노고를 서로 나누어 가진다", "종기를 앓는 병졸의 고름을 오기가 직접 빨았다"라는 기록이 있다.[25] 오기의 이러한 행동을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 즉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전투에 전력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26] 그보다는 그의 개인적인 경력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오기는 "일찍이 증자(曾子)에게 배우고 노군을 섬겼다"라고 『사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오자』에 "유가의 복장(儒服)을 하고… 문후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다. 또한 『오자』의 「도국편」에 "성인은 이를 도(道)로써 편안하게 하고, 이를 의(義)로써 다스리며, 예(禮)로써 움직이고, 인(仁)으로써 어루만진다… 이에 성탕(成湯)이 걸(桀)을 쳐서 하나라의 백성들이 기뻐하였고, 주나라 무왕이 주(紂)를 쳐도 은나라 백성들이 그르다고 여기지 않았다"[27]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오기는 '도'에 더하여 '의', '예', '인'이라고 하는 유가적 덕목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가의 '성인'을 이상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언하면, 오기는 유가의 전통을 존중하려한 성향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시대에 각국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오자』는 과연 전쟁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오자』에는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 오자가 말했다. "무릇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분을 다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익을 다투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증오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28]

여기에서 『오자』는 전쟁의 원인을 '명분', '이익', '증오', '내란', '기근'으로 설명하고 있다. 『손자』에는 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묘산의 결과가 이익(利)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9] 이것은 매우 실리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구체

---

25) 『史記』, 「孫子吳起列傳」.
26) 湯淺邦弘(1999), p. 95.
27) 『吳子』, 「圖國篇」.
28) 『吳子』, 「圖國篇」.
29) 『孫子』, 「時計篇」.

적으로 전쟁의 모습을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오기가 설명한 위의 다섯 가지 전쟁 형태를 그가 직접 경험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고대 병서 중에서 전쟁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폭넓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오자』는 전쟁의 종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그 이름 또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병(義兵)입니다. 둘째는 강병(强兵)입니다. 셋째는 강병(剛兵)입니다. 넷째는 폭병(暴兵)입니다. 다섯째는 역병(逆兵)입니다."[30] 『오자』에서는 이처럼 전쟁의 성격을 의병, 강병(强兵), 강병(剛兵), 폭병, 역병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병', '역병'이라는 관점은 전쟁의 정당성의 문제에 있어서 전국시대 중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군사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의병' 사상은 이후 『맹자』, 『묵자』, 『사마법』, 『여씨춘추』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예를 들면, 맹자는 전국시대 중기에 왕도의병설(王道義兵設)을 주창하여, 바람직한 군사행동은 덕이 있는 왕에게만 허락된 '의전(義戰)'이며,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한 제후국의 군사행동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침략행위라고 인식했다.[31] 반면, 『여씨춘추』에서는 모든 투쟁을 '병(兵)'이라고 정의한 뒤에 공격적인 전쟁과 방어적인 전쟁이 무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부정하려 한 '언병론(偃兵論)'과 '구수론(求守論)'을 엄격히 비판했다. 그리고 전쟁의 정당성을 인간의 본성, 역사적 필연성, 사회적 요청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역설했다.[32]

결론적으로 『오자』에서 전쟁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분석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춘추시대에 여전히 막연하게 의식되고 있던 전쟁의 여러 가지 성격들이 여기에서는 명확히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자』의 의병 사상은 『맹자』를 비롯한 후대의 문헌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 『손빈병법』의 군사사상

손빈(孫臏)은 제(齊) 위왕(威王)의 군사(軍師)로 기원전 353년 계릉(桂陵)전투와 기원전 341년 마릉(馬陵) 전투에서 강국 위(魏)를 패배시켜 제가 중원의 패권을 잡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사기』에 의하면, 손빈은 춘추시대 오왕을 섬긴 손무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

30) 『吳子』, 「圖國篇」.
31) 『孟子』, 「盡心篇」.
32) 湯淺邦弘(1999), p. 351.

지만, 그가 저술한 『손빈병법』은 송대의 '무경칠서'에 그 이름이 빠져 있어서 실존 여부는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1972년 중국 산동성 임기현 은작산에서 발견된 약 5000매의 죽간 중에 현존 13편 『손자』와 일치하는 병서와 함께 이와는 구분되는 『손빈병법』이 발견됨으로써 그 의문은 해소 되었다. 이 『손빈병법』은 전국시대 중기에 저술된 것으로 당시의 전쟁관과 군사사상이 춘추시대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여기서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 『손빈병법』의 군사사상적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검토할 것은 『손빈병법』의 전쟁에 대한 인식이다.

> ① 손빈이 위왕을 알현하고 말했다. "전쟁(兵)에 승리한다면, 멸망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끊어진 왕의 계보도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영토를 빼앗기고 사직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33]

> ② 요임금은 공공(共工)을 멸망시켰으며, 순임금은 삼묘(三苗)를 변경으로 쫓아냈습니다… 주의 무왕은 은의 폭군 주왕을 멸망시켰습니다. 또한 은(殷)나라와 엄(奄)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자, 주공(周公)은 이들을 토벌했습니다. 그런데 인덕은 오제에 못 미치고, 능력은 삼왕보다 떨어지며, 지혜도 주공보다 훨씬 뒤지는데도 오히려 "인의 도덕을 숭상하고 예악을 사용하면 천하를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반대합니다. 이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요임금이나 순임금과 같은 성군도 이를 원했지만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켜 천하를 바로잡았던 것입니다.[34]

여기서 ①은 『손빈병법』의 기본적인 전쟁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쟁이 국가의 흥망과 사직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전쟁 인식은 전국시대의 전쟁이 춘추시대처럼 한 번의 전투로 패권을 다투거나 강화로 종결되는 비교적 소규모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손빈병법』은 전국시대의 전쟁 그 자체의 승패가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는 대규모의 전쟁을 전제로 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손자』의 전쟁관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진다. 『손자』의 시계편에도 "전쟁(兵)은 국가의 대사요, 사생의 땅이요, 존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35]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손빈병법』은 단순히 『손자』의 전쟁에 관한 인식을 부연한 것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전쟁관을 펼쳤다. ②를 보면 『손빈병법』에서는 '인의'와 '예악'만을

---

33) 『孫臏兵法』, 「見威王篇」.
34) 『孫臏兵法』, 「見威王篇」.
35) 『孫子』, 「始計篇」.

표방하는 반전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전쟁은 천하를 복종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정당하면서도 필연적인 현상이라 역설한다. 『손자』에서도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간주하고는 있지만, 『손빈병법』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한층 더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한 것이다.36) 이러한 점에서 앞서 전쟁의 형태를 '의병', '역병' 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해 의로운 전쟁과 의롭지 않은 전쟁을 구분한 전국 초기의 『오자』와는 확연히 변화된 전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손빈병법』의 적극적인 전쟁관은 공세적 군사사상으로 이어진다. 「위문왕편(威王問篇)」에서 위의 장군 전기(田忌)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 기세, 계책, 술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손빈은 "모두 긴급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격하여 방어하지 않는 것이 전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했다.37) 『손빈병법』에서는 수동적인 방어보다는 능동적인 공격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손빈병법』의 공세적 군사사상은 「십문편(十問篇)」에 잘 설명되어 있다. 어떤 군사가가 "양쪽 군대가 대치하여 교전하려고 한다. 적의 병력은 우리보다 많고 또 강하다… 우리의 병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을 격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손빈은 "우리의 전군을 셋으로 나누어 그 중에서 정예 병사를 선발하여 결사대를 편성합니다. 나머지 두 부대를 양 날개로 전개하고 결사대를 선봉으로 삼아 적의 지휘부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것이 정면으로 전개하고 공격해 오는 적을 붕괴시키고 적의 장수를 죽이는 방법입니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손빈은 심지어 수적으로 열세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방어보다는 공격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손자』, 「모공」편에 "전쟁의 원칙은 병력이 적보다 열 배일 때는 적을 포위하고, 다섯 배일 때는 적을 공격하며, 두 배일 때는 계략을 써서 적을 분산시키며, 병력이 적과 비슷할 때는 전력을 다하여 싸우고, 병력이 적보다 적을 때에는 적과 부딪치지 말고 싸움터에서 벗어나야 한다"38)고 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한 『손자』는 "전쟁에서 최상책은 계책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며, 차선책은 외교로 굴복시키는 것이며, 최하책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39)라고 하면서 공성전을 하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손빈병법』은 「웅빈성편(雄牝城篇)」을 별도로 할애하여 공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손빈병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견고한 성은 공략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의 지형과 성곽의 형태, 그리고 적군의 상황에 따라 성을 공격하는 방법

36) 湯淺邦弘(1999), p. 106.
37) 『孫臏兵法』, 「威王問篇」.
38) 『孫子』, 「謀攻篇」.
39) 『孫子』, 「謀攻篇」.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당연히 전국시대 중기에 공성무기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성곽공격전술의 대두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적국을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시대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른 전쟁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손빈병법』에 보이는 부국강병사상이다. 부국강병책에 대한 제의 위왕과 손빈의 아래와 같은 문답이 있다.

> 위왕이 손자에게 물었다. "제의 학자들이 과인에게 강병(强兵)을 실시하라고 하는데 모두 방법이 다르다. 어떤 자는 과인에게 정치를 잘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자는 백성에게 식량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하고, 어떤 자는 백성을 쉬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손자는 "모두가 강병에 있어서 급선무가 아닙니다. 부국(富國)이 우선입니다"라고 대답했다.[40]

여기에서 제의 위왕이 손빈에게 어떻게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수 있냐고 묻고 있다. 이에 손빈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관건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답변한다. 즉 강병(强兵)은 반드시 부국(富國)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오직 나라가 부유해져야 비로소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강병은 부국에서 나오고 이는 국가의 경제가 군사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41] 이는 앞서 전국시대의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른 전국칠웅의 부국강병책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손빈병법』에는 부국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다. 이것은 손빈이 정치보다는 주로 군사(君師)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손빈병법』에는 강병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전쟁 승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찬졸편(纂卒篇)」이다. 여기서는 전쟁의 여러 가지 승리의 조건을 열거하면서 "전쟁의 승리는 병사를 잘 선발하는 데 있다"[42]고 하며, '제(制)', '세(勢)', '신(信)', '도(道)'보다 더 우선시 했다. 『손빈병법』에는 군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찬졸(纂卒)'이고 다른 하나는 '중졸(衆卒)'이다. 『손빈병법』에는 우수한 '찬졸역사(纂卒力士)'와 일반병졸로 구성된 '중졸(衆卒)'로 명확히 구별한다. 여기서 '찬졸'은 적진을 부수고 적의 장수를 사로잡기 위한 부대이고, 중병은 다른 작전 임무를 분담한 다음 함께 협력하는 부대이다. 『손빈병법』은 "현명한 군주나 병법에 통달한 장군은 오로지 많은 병력에만 의존해서 승리를 거두려 하지는 않습니다"[43]라 하

---

40) 『孫臏兵法』, 「强兵篇」.

41) 이병호. 『손빈병법』(서울: 홍익출판사, 1996), pp. 21-22, p. 143.

42) 『孫臏兵法』, 「纂卒篇」.

43) 『孫臏兵法』, 「威王問篇」.

면서 정예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손빈병법』에는 "군대를 부리고 백성을 다루는 방법은 권형(權衡)이다. 권형이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다"[44], "용맹하고 날래며 전투에 익숙한 병졸을 선발하여 적의 선봉 돌격대를 방어한다"[45]는 등의 내용이 보인다. 이것은 『오자』의 병사 선발사상과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오자』의 '무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변경의 토지개발과 면세조치라는 장기적인 시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앙변법의 '농전체제'의 선구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손빈병법』의 '찬졸'은 다양화된 전쟁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 기술과 용력이 뛰어난 자를 그때그때 후한 상으로 보증한 특별부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46]

이상에서 전국중기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병서로서 『손빈병법』을 택하여 그 사상적 특징을 검토했다. 『손빈병법』은 기본적으로 『손자』의 군사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손빈병법』에 보이는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적극적 사고, 공세적 군사사상, 그리고 부국강병사상 등은 격렬해진 전국시대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Ⅳ. 출토문헌에 보이는 군사사상: 『은작산한간』·『마왕퇴한묘백서』

앞 장에서는 전국시대 주요 병서인 『오자』와 『손빈병법』의 군사사상을 검토해 보았다. 전국시대의 전쟁은 전쟁이 장기화 대규모화 되면서 이미 '병서'가 독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군사사상의 전개를 둘러싼 논의도 단지 '병서'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기보다는 관련된 여러 문헌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1970년대 중국에서 발견된 『은작산한간』과 『마왕퇴한묘백서』를 중심으로 그 군사사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은작산한묘에서 발견된 죽간과 마왕퇴한묘에서 발견된 백서는 정치·군사와 관련된 대량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47] 과거 '무경칠서'의 틀을 벗

44) 『孫臏兵法』, 「行篡篇」.

45) 『孫臏兵法』, 「官一篇」.

46) 湯淺邦弘(1999), p. 112.

47) 산동성 임기(臨沂) 은작산한묘에서 출토된 『은작산한간』 가운데는 오랫동안 그 존재 자체가 확실치 않았던 『손빈병법』과 현행본으로 추정되는 『손자』, 그리고 『육도』, 『울료자』와 유사한 문헌이 발견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수법(守法)」, 「왕병(王兵)」이라는 이름을 지닌 대량의 군사관계 문헌이 발견되었다. 또한 호남성 장사(長沙)의 마왕퇴한묘에서 출토된 『마왕퇴한묘백서』에는 전국시대부터 진한(秦漢)에 이르는 정치와 군사의 실태와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湯淺邦弘(1999), p. 5.

어난 군사사상에 관한 여러 가지 사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사상까지 다루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관련 출토문헌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전국시대의 전쟁양상과 군사사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이들 출토문헌에는 어떠한 전쟁 인식을 담고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은작산한간』의 「왕병(王兵)」[48]에서는 아래와 같이 군사력 행사를 전제로 한 전쟁관을 보여준다.

> 군주의 존비귀천과 나라의 존망안위의 근원으로 군대(兵)보다 중한 것이 없다. 따라서 폭란을 주벌하고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벌함은 반드시 군대로써 하고, 간사함을 □□하고 기괴한 일이 퍼지는 것을 막음에는 반드시 형벌로써 한다. 그런 즉 군대란 본래 밖으로는 난을 주벌하고 안으로는 간사함을 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군주를 중하게 여기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49]

여기서는 군대를 '군주의 존비귀천과 나라의 존망안위의 근원'이고, '군주를 중하게 여기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의의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군대란 본래 밖으로는 난을 주벌하고, 안으로는 간사한 행동을 금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그 효력이 안팎을 불문하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50] 이것은 "군대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먼 곳에서 복속해 오고, 이에 덕이 성하여 온 세상에 베풀어지게 됩니다"[51]라고 하면서 왕도를 실현하는 왕이 스스로의 인덕을 베풀면 무력행사 없이도 세계를 복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순자의 왕도(王道)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사고는 단지 『은작산한간』의 출토문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마왕퇴한묘백서』의 「명군(明君)」[52]에는 다음과 같은 왕과 신하의 문답이 나온다. "임금은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싸워) 이기면 존경받게 됩니다. 공격하여 땅을 취하고… 그 소임은 공격하여 싸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현사명군(賢士明君)은 공격하여 싸우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군대를 모읍니다."[53] 여기에서 왕이 저절로 존경받게 상황은 구체

---

48) 1985년 중국 문물출판사에서는 은작산한묘죽간에서 출토된 「守法」·「要言」·「庫法」·「王兵」·「市法」·「守令」·「李法」·「王法」·「委法」·「田法」·「兵令」·「上篇」·「下篇」의 총 13편을 편의상 「守法守令等十三篇」으로 명명했다. 여기서도 이러한 구분을 따르며 이하 「守法守令等十三篇」의 내용은 銀雀山漢墓竹簡整理小組編. 『銀雀山漢墓竹簡(壹)』(北京: 文物出版社, 1985)를 저본으로 한다.

49) 「守法守令等十三篇」, 「王兵」.

50) 湯淺邦弘(1999), p. 143.

51) 『荀子』, 「議兵篇」.

52) 이하 마왕퇴한묘에서 출토된 문헌 중 「明君」의 내용은 國家文物局古文獻研究室編. 『馬王堆漢墓帛書(壹)』(北京: 文物出版社, 1980)를 저본으로 한다.

53) 「明君」.

적으로 “싸워 이기는 것”, “땅을 취하는 것”에서 초래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그 소임이 “공격하여 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는 현사명군은 군사력의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현명한 왕, 즉 ‘명군’이 군사력의 강화와 군사적 승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은 송대에 7가지 병서를 채택하여 명명한 ‘무경칠서’에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사고방식이다.

다음으로 검토해 볼 것은 이들 출토문서에 포함된 부국강병사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은작산한간』의 「수법수령등십삼편(守法守令等十三篇)」에는 당시의 국가와 성시(城市)를 대·중·소로 구분하거나 위정자를 제·왕·패 등으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현은 100리, 중현은 70리, 소현은 50리, 대현은 2만가, 중현은 1만 5000가, 소현은 1만가”[54]라는 것과 “대국은 법제를 분명히 하여 인의를 바로잡는다. 중국은 방어를 통해 공을 이루고, 소국은 양성하여 평안을 이룬다”[55] 등이다. 이러한 구분은 전국시대에 국력의 분화가 진행되어 상·중·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56] 또한 이러한 구분은 전국시대 각국이 부국강병을 추구하여 소국은 중국을 목표로, 중국은 대국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했음을 시사한다. 출토문헌들에는 부국에 대한 방법론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은작산한간』의 「왕법」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육친을 화합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영토를 넓히는 것이다. 군주를 존중하는 것이다. 영(令)을 시행하는 것이다. 나라가 부유해지면 백성이 많아지고, 백성이 많아지면 군대가 강해지며, 군대가 강해지면 영토는 넓어지고, 영토가 넓어지면 군주가 존중받게 되고, 군주가 존중받으면 영이 행해지고, 영이 행해지면 적이 제압되고, 적이 제압되면 제후가 복종하며, 제후가 복종하면 [위엄이] 서고, 위엄이 서면 곧 왕자의 뛰어난 다스림인 것이다.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57]

여기에서는 왕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내부의 화합을 도모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이어서 군대를 강하게 하고, 영을 시행하고, 적국을 제압하여 영토를 넓히라고 권하고 있다. ‘부국’, ‘강병’, ‘행령’이라는 표현은 사실 법가사상을 연상케 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유사한 내용으로 「왕병」편에는 “인재를 등용하면 천하가 그를 공경하고, 군대를 모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때를 기다리면 큰 공을 이루고, 무력을 취하면 악을 제거하고

54) 「守法守令等十三篇」, 「庫法」.
55) 「守法守令等十三篇」, 「要言」.
56) 湯淺邦弘(1999), p. 176.
57) 「守法守令等十三篇」, 「王法」.

천하를 이롭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인재 등용', '군사력 증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군에 장군이 없으면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다. 민간에 관리가 없으면 축적은 없다. 관부에 우두머리가 없으면 무기는 조악해진다. 조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백성들의 행복은 없다"[58]라고 하면서 '장군', '관료', '조정'이 자국의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실력 강화에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 부국강병사상은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기고, 또한 그것을 위해 병사들을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의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렇다면 전란의 세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출토문헌들에는 어떠한 전략적 사고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① 원한을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승리가 보일 때 군사를 일으키고 승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중지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획이 우선 세워진 연후에 병사를 일으켜야 한다.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병사를 일으키면 자멸한다… 적국의 통치를 잘 알지 못하면 쳐서는 안 되고, 적국의 축적을 알지 못한다면 승리를 기약할 수 없으며, 적국의 군대를 잘 알지 못한다면 먼저 진을 쳐서는 안 된다.[59]

② 군대를 3회 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1회 출정하는 경비에 해당하고, 3회 출정하는 경비는 적국과 한번 전쟁하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 번 군대를 일으키는 경비는 10년 동안 축적한 경비를 쓰는 것이고, 한 번의 전쟁에 사용되는 경비는 몇 세대 동안 축적한 공력을 다 소모하는 것이다.[60]

③ 무릇 병사들은 뜻이 하나로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패한다… 병사들은 장군이 있으면 싸우고, 장군이 없으면 도망간다… 병사들이 장군을 적보다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병사들이 적을 장군보다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패한다. 싸우지 않고서도 승패를 미리 알려면, 아군의 장군과 적에 대한 경중을 계산해 보면 된다. 적과 장군은 저울과 같다.[61]

④ 장군과 병사들은 부자의 친함이나 피를 나눈 무리이거나 육친의 정이 있는 관계가 아니다… 형벌을 엄하게 하고, 상을 명확히 하고, 공벌의 득을 완벽히 하고, 부월을 나란히 하고, 군기를 장식하며, 공을 세우면 반드시 상을 주고,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처형한다.[62]

---

58) 「守法守令等十三篇」, 「王兵」.
59) 「守法守令等十三篇」, 「王兵」.
60) 「守法守令等十三篇」, 「王兵」.
61) 「守法守令等十三篇」, 「兵令」.
62) 「守法守令等十三篇」, 「兵令」.

여기서 ①은 전략의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반드시 승리의 확신이 선 연후 계획을 세워 전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손자』의 「시계편」에서도 주장한 '계획(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위정자의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피아의 군사력을 냉정하게 비교 평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지만 비로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적국의 '통치', '경제', '군대' 등에 대한 정보들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한다면 섣불리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정보력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②에서는 "한 번 군대를 일으키는 경비는 10년 동안 축적한 경비를 쓰는 것이고, 한 번의 전쟁에 사용되는 경비는 몇 세대 동안 축적한 공력을 다 소모하는 것이다"라며, 군사 행동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솔하게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손자』에도 존재한다. 『손자』의 「작전편」에는 "전차 1000승, 병력 10만과 군량을 1000리에 걸쳐 수송해야 하며, 내외의 경비, 빈객의 비용, 전쟁물자, 전차와 갑옷의 보급하는데 매일 1000금이 필요하다. 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10만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作戰篇」)라고 주장하고 있다.[63] 심각한 전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병서 모두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전쟁의 규모와 기간 면에서 춘추시대보다 전국시대의 전쟁이 훨씬 더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건임을 반영하고 있다.

③과 ④는 병사들의 통솔에 관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다. 『손자』의 「시계편」에서 전쟁 전에 양측 장군의 역량에 관해 객관적으로 비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③에서는 병사들의 통솔 관점에서, 병사들이 자국의 장군과 적군을 비교하여 "병사들이 장군을 적보다 무서워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병사들이 적을 장군보다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하면서 자국의 장군과 적군을 비교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또한 ④에서는 장군과 병사들 사이에는 육친의 정이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가 없으므로 형벌을 엄하게 하고, 명확히 하여 장군이 병사들을 통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장군 스스로 솔선하여 병졸과 친하고 그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군대를 통제하라는 『오자』의 생각과는 다르다.[64] 병사들을 상벌로 엄격히 통제하려고 하는 점은 유가적이기 보다는 매우 법가적이다.

이상에서 『은작산한간』과 『마왕퇴한묘백서』를 중심으로 전국시대의 시대 상황과 연관하여 그 군사사상적 의의를 검토해 보았다. 고대 출토문헌의 「왕병」과 「명군」에서는 군사력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인덕에 의해 세계를 복종시킬 수 있

63) 『손자』, 『作戰篇』.
64) 『吳子』, 「將軍篇」.

다는 유가적 왕자(王者)가 아니라 무력행사를 전제로 한 패자(霸者)이다. 또한 부국강병사상은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기고, 또한 그것을 위해 병사들을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의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되었다. 그래서 「왕병편」과 「병령편」에서는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전쟁에 신중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사용에 있어서 지휘통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출토문헌들은 전국시대 제국의 분열과 전투 상황을 배경으로 매우 현실적인 군사사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원리라는 시각에서 군사적 승리 문제를 뛰어 넘어 전쟁 준비와 승리한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들까지 고려되고 있었다.

V. 결 론

본고는 전국시대의 전쟁양상의 변화와 그 군사사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중국의 전국시대는 전쟁형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었다. 전국시대는 전쟁의 주요목적이 성과 땅을 빼앗는 것에서 영토의 확대로 바뀌었고, 소국 겸병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강국 간의 합종과 연횡이라는 복잡한 국제정세가 출현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술이 등장했으며, 전쟁의 잔학성과 파괴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전국시대 전쟁양상의 변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각국의 통치자들은 격렬한 겸병전쟁의 와중에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인재들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책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국시대에 전국칠웅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나름대로의 개혁정치를 펼쳐나갔으며, 개혁정치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했던 국가는 번영의 길로 나아갔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전국시대의 주요 병서인 『오자』와 『손빈병법』은 『손자』의 사상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군사적 사고의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오자』는 특히 전쟁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분석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전쟁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손빈병법』에서는 '인의'와 '예악'만을 표방하는 반전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전쟁은 천하를 복종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정당하면서도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손빈병법』의 공세적 군사사상은 격렬해진 전국시대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전쟁이 장기화 대규모화 되면서 전국시대의 전쟁은 이미 '병서'가 독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은작산한간』과 『마왕퇴한묘백서』에는 전국시대의 시대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군사적 사고들이 존재한다. 먼저 전국시대의 군사력은 타국에 대한 단순한 억제력이 아니라 국가를 강성하기 위해 타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동하고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왕병」과 「명군」에 보이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인덕에 의해 세계를 복종시킬 수 있다는 유가적 왕자(王者)[65]가 아니라 무력행사를 전제로 한 패자(霸者)였다. 그리고 이러한 패자를 만드는 것이 군사력의 증강과 전쟁의 승리에 있다고 한 점은 부국강병책에 의거해 전국의 시대를 끝내고자 했던 상앙의 변법을 연상케 한다. 결론적으로 전국시대의 군사사상은 당면한 적국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같은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군사적 승리를 위해 국가 체제를 어떻게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국가의 통치원리까지 고려되고 있었다.

65) 대표적으로 페어뱅크(John k. Fairbank)는 중국의 전략문화의 전통을 기본적으로 이른바 공자-맹자 패러다임(Confucius-Mencian paradigm)이라고 주장했다. Frank A. Kierman, Jr. and John K. Fairbank, eds., *Chinese Ways in Warfa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 7.

참 고 문 헌

기세찬. “춘추시대의 전쟁수행방식과 전쟁관”,『史叢』제91호(2017. 5).

김경현.『오자/울료자』(서울: 지만지, 2008).

이병호.『손빈병법』(서울: 홍익출판사, 1996).

이춘식.『중국 고대의 역사와 문화』(서울: 신서원, 2007).

Frank A. Kierman, Jr. and John K. Fairbank, eds.. *Chinese Ways in Warfa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高銳.『中國上古軍事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5).

高銳 外.『中國軍事史略』上冊(軍事科學出版社, 2000).

國家文物局古文獻研究室編.『馬王堆漢墓帛書(壹)』(北京: 文物出版社, 1980).

『孟子』.

『史記』.

『孫臏兵法』.

『孫子』.

『荀子』.

『吳子』.

銀雀山漢墓竹簡整理小組編.『銀雀山漢墓竹簡(壹)』(北京: 文物出版社, 1985).

『戰國策』.

中國軍事史編書組.『中國歷代軍事戰略』上冊(北京: 解放軍出版社, 2006).

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 編著.『中國戰爭發展史』上(人民出版社, 2002).

『春秋左氏傳』.

湯淺邦弘.『中國古代軍事思想史研究』(東京: 研文出版, 1999).

『韓非子』.

『漢書』.

The Patterns of Warfare and Military thought in Warring States Period

Ki, Se-chan

Keywords

Wu-Zi, Sun Bin's Art of War, Warring States Period, the patterns of warfare, military thought, the view of warfare in early China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patterns of warfare and military thought in Warring States Period (453-221 B.C.). The Warring States Period of China had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change of the form of warfare. The main goal of warfare changed from taking land and castle to expanding territory.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situation which was called 'he zong lian heng(合從連衡) appeared, as the annex of small countries had been almost completed. This change of the pattern of warfare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had a great impact on the entire society. The Seven Warring Sates initiated their own reformative politics with the goal of achieving national prosperity and enhancing military power. The countries which continually and strongly executed their reformative politics had maintained their prosperity for a long time, while the others which did not had fallen into decline.

The 'Wu-zi' and 'Sun Bin's Art of War,' the Warring States Period's main art of war, reflected the pattern of warfar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Wu-zi' tried to systematically classify the form of complicated warfare, and analyze the cause and nature of warfare. The 'Sun Bin's Art of War' criticized anti-war activists and regarded warfare as the inevitable series of incidents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In the excavated literatures 'yin que shan zhu jian(銀雀山漢簡)』' and 'ma wang dui han mu bo shu(馬王堆漢墓帛書)', the warfare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had already become the issue that was discussed not only in 'bing shu(兵書),' but also in political thought. The literatures not only encourage the active use of military power, but also writes that the form of ideal king is not confucian 'wang-zhe(王者)' but 'bai-zhe(霸者)' based on the use of armed force. In conclusion, the military thought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also considers the national governing principle as a way to organize and develop the system of state for military victory beyond the simple military issue.

[논문투고일 : 2017. 07. 28]
[심사의뢰일 : 2017. 09. 08]
[게재확정일 : 2017. 09. 27]

국방연구 2017년 9월
제60권 제3호, pp. 67-92

도덕적 역량 검사도구(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한 통일·안보의식측정도구 개발 기초 연구*

박균열**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조사 대상 및 방법
Ⅳ. 조사 도구에 대한 검증
Ⅴ. 맺음말

요 약

본 연구는 도덕적 역량 검사도구(MCT: Moral Competence Test)라고 명명된 도덕성 검사도구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통일·안보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시도이다. 객관적인 측정도구로 가치의식을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남북한의 첨예한 이념적 대립을 전제하고 통일과 안보에 대한 가치의식을 측정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 하지만 그 판단의 과정을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의 가치 의식을 수렴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은 매우 높다.

MCT는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측정 대상자들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이 도구는 미국의 도덕심리학자인 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과 도덕적 추론에 근거하여, 독일의 도덕심리학자인 G. Lind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도구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원리는 가치가 실재하고, 그 실재하는 가치가 높고 낮음의 위계를 갖고 있으며, 그 위계에 대해 정서적 지향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덕성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결과값이 도덕적 역량의 정도인 C-점수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도덕심리학의 원리를 정치적인 주제인 한국의 통일과 안보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방법론적인 창의성을 가진다. 바로 이러한 점은 보편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과 타당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핵심어: 도덕적 역량 검사도구, 통일·안보의식, 도덕심리학, C-점수, 도덕성 발달, 도덕적 추론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6S1A5A2A01024542).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Ⅰ. 서 론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문제는 군사적 영역을 넘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남북한의 문제는 정치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제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문제는 상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1] 상호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평화문화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전제해야만 가능하다. 일찍이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상호 협력을 모색해왔지만 이들은 모두 공동체에 대한 평화를 갈구하는 기대감을 전제하고 있다.[2] 평화를 갈망하는 국가는 군사적 문제를 포함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범위만 확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인류학자 E. B. Tylor가 고전적으로 밝힌 바 있듯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되는 지식, 신념, 도덕, 습관 등을 포괄하는 생활양식의 복잡한 총체로서의 문화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3] 이런 면에서 안보의 문제도 문화의 문제이다.[4]

문화적 양태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신념과 도덕과 같은 가치관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경우 대응해야 할 적(敵)이기도 하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남한 내의 정권이 가진 스스로의 정통성 시비가 있을 때와 우리의 안보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북한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한 내의 문화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남남(南南)갈등'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5]

---

1)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15), pp. 265-283.

2) Emanuel Adler, Michael Barnett,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security communities", Emanuel Adler, Michael Barnett, eds.,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30.

3) E. B. Tylor, *Primitive Culture* (Nabu Press, 2014[1871]), p. 1: "Culture, or civilization, taken in its broad, ethnographic sense, is that complex whole which includes knowledge, belief, art, morals, law, custom, and any other capabilities and habits acquired by man as a member of society."

4) 안보문제를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Alastair Iain Johnston,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19(4) (1995); Peter J. Katzenstein, "Conclusion: National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Y: St. Martin's Press, 1996); John S. Duffield, *World Power Forsaken: Political Cultur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German Security Policy after Unific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Darryl Howlett, "Strategic Culture. Reviewing Recent Literature", *Strategic Insights*, 4(10) (2005).

5) 남남갈등이라는 용어는 남한 내부의 갈등을 의미하는 신조어인데,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박찬석, 『남남 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 (경기: 인간사랑, 2001);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남남 갈등 진단 및 해

이와 같이 안보 문제는 국가의 모든 영역이 관련되면서 그 구성원들의 생활양식 전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보 문제에 대한 가치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의 결과에 따라 도출된 결과값으로는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치 의식 측정은 "당신은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와 같은 선호도 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와 같은 선호도 조사가 현재도 통일의식(Unification Consciousness),[6] 안보의식(Security Consciousness)[7]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엄격히 말하자면 통일의식, 안보의식이라기보다는 통일여론조사, 안보여론조사로 명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된 안보의식은 더욱 복잡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안보의식을 편의상 통일·안보의식(Unification & Security Consciousness)이라고 한다. 대개 의식이 단순한 인식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가치 의식'이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 가치의식을 측정하면서, "당신의 도덕성은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다면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응답자도 신뢰도 높은 응답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중층적인 한국인의 통일·안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기왕에 도덕심리학(Moral Psychology)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도덕성 발달(moral development),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 도덕적 역량(moral competence) 등의 개념을 원용하고자 한다. 이 개념들은 초기 도덕심리학자들인 J. Piaget[8]와 L. Kohlberg[9] 등에 의해 구축

소방안』(경남: 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차문석·마인섭, 『북한 문제와 남남 갈등』(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통일의식조사의 문항은 별도의 알고리즘이 없이 경향성을 알아보는 여론조사이다. 그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oo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5단계 서열척도: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7)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1989년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안보의식조사의 문항도 별도의 알고리즘이 없이 경향성을 알아보는 여론조사이다. 그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5단계 서열척도: 높다 ↔ 낮다)

8) 도덕심리학자로서 J. Piaget의 인지발달론에 대한 공헌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 John C. Gibbs, "2장 인지발달론적 관점", William M. Kurtines, Jacob L. Gewirtz, 문용린 역,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서울: 학지사, 2002), pp. 59-64; J. Piaget, *Moral Judgment of the Child* (M. Gabain, trans.) (NY: Free Press, 1965[1932]); J. Piaget, *The Development of Thought: Equilibration of Cognitive Structure* (A. Rosin, trans.) (NY: Viking Press, 1977[1975]).

9) 도덕심리학자로서 L. Kohlberg의 인지발달론에 대한 공헌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 John C. Gibbs, "2장 인지발달론적 관점", William M. Kurtines, Jacob L. Gewirtz, 문용린 역,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서울: 학지사, 2002), pp. 65-72; L. Kohlberg, "The Development of Modes of Moral Thinking and Choice in the Years Ten to Sixtee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8); L. Kohlberg, "Moral Development and Identification", H. Stevenson,

되었고, 이후 J. R. Rest,[10] G. Lind와 같은 도덕심리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특히 G. Lind가 창안한 도덕적 역량 검사도구(MCT: Moral Competence Test)는 응답자들의 자기꾸밈(self-faking)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복잡한 통일·안보상황에 대한 가치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원용한다.[11]

이 연구는 린트가 개발한 MCT의 기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통일·안보의식을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도이다. 따라서 향후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더 높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ed., *Child Psychology*, 62nd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art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L. Kohlberg, "The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Ideology", M. L. Hoffman,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1 (NY: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L. Kohlberg,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 Approach to Socializatio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9); L. Kohlberg, R. Kramer,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2 (1969), pp. 93-120.

10) J. R. Rest, "New Approaches in the Assessment of Moral Judgment",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Y: Holt, Rinehart & Winston, 1976), pp. 198-220; J. R. Rest, *Revised Manual for the Defining Issues Tes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79a); J. R. Rest,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9b); J. R. Rest,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Y: Praeger, 1986); J. R. Rest, D. Cooper, R. Coder, J. Masanz & D. Anderson, "Judging the Important Issues in Moral Dilemmas: An Objective Measure of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0 (1974), pp. 491-501.

11) 이와 관련한 G. Lind의 선행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G. Lind, "Growth and regression in moral-cognitive development", In: C. Harding, ed., *Moral Dilemmas: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Chicago: Precedent Publishing Inc., 1985b); G. Lind, "How does one measure moral judgment? Problems and alternative ways of measuring a complex construct"[German: Wie mißt man moralisches Urteil? Probleme und alternative Möglichkeiten der Messung eines komplexen Konstrukts], In: G. Portele, ed., *Sozialisation und Moral* (Weinheim: Beltz, 1978); G. Lind, "The theory of moral-cognitive judgment: A socio-psychological assessment", In: G. Lind, H. A. Hartmann & R. Wakenhut, eds., *Mor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environment. Studies in the philosophy and psychology of moral judgment and education* (Chicago: Precedents Publishing Inc., 1985a); G. Lind, 박균열·정창우, 『도덕적 민주적 역량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How to Teach Morality: Promoting Deliberation and Discussion, Reducing Violence and Deceit*)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2017[2016]); G. Lind, *Ist Moral lehrbar? Ergebnisse der modernen moralpsychologischen Forschung*[Can Morality be Taught? Research Findings from Modern Moral Psychology]. Second Edition (Berlin: Logos-Verlag, 2002); G. Lind, *Moral ist lehrbar: Handbuch zur Theorie und Praxis moralischer und demokratischer Bildung*[Morality Can be Taught. Handbook on Theory and Practice of Moral and Democratic Education] (Munchen: Oldenbourg-Verlag, 2003). 기타 보다 상세한 내용은 G. Lind의 홈페이지 참고: http://www.uni-konstanz.de/ag-moral

Ⅱ. 이론적 배경

1. 도덕성 발달 및 도덕적 추론

미국의 정치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M. C. Nussbaum은 인간 자체가 추론적 경향성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추론을 자유주의 철학의 전통의 핵심적 특징에 기반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이 전통의 핵심은 인간 존재에 관한 이중의 직관이다. 즉 인간이 된다는 것만으로 모두는 사회의 어디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평등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가치의 일차적인 원천은 그들 내의 도덕적 선택의 힘이며, 그 힘은 목적에 관한 자기 자신의 평가와 일치하는 삶을 계획하는 능력에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직관에 대해 – 그것은 그 핵심에 있는 자유주의를 그리스 및 로마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의 사고와 연결시킨다 – 자유주의 전통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강조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더 참가한다. 곧 사람들의 도덕적 평등성은 그들에게 사회와 정치에 의한 어떤 대우의 형식들에 대해서 공정한 권리를 수여한다는 것이다. 이 대우가 무엇인가는 전통 내에서 공정한 권리를 수여한다는 것이다. 이 대우가 무엇인가는 전통 내에서 논쟁의 주제가 될 것이지만, 공유된 출발점은 이 대우가 다음의 두 가지를 밀접하게 관련시킨 일들을 행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시켜야만 하며, 선택자로서 개인의 평등한 가치를 존중하고 증진시켜야 한다.[12]

도덕성은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개별 구성원인 인간들이 각기 바람직하게 지향해야 할 가치 정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향은 학자들에 따라 달리 해석되었다. 전통적으로 도덕성의 개념은 도덕적 성숙, 동기, 행동에 초점을 두고, 도덕성을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보는 문화적 상대성을 가정한다. 반면 인지발달론적 관점은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도덕적 적합성 혹은 성숙성의 문화보편적인 경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즉 인지발달론은 도덕성이 인간의 인지 능력의 발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13]

그런데 이러한 도덕성은 도덕적 행위의 기초인 도덕적 추론에 의해 작동된다. 결국 도덕성의 발달은 도덕적 추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 콜버그는 발생학적

---

12) M. C. Nussbaum, *Sex and Social Justi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54.

13) John C. Gibbs, “2장 인지발달론적 관점”, William M. Kurtines, Jacob L. Gewirtz,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2004), p. 59.

14) L. Kohlberg, “The Claim to Moral Adequacy of a Highest Stage of Moral Judgment”, *The Journal of Philosophy*, 70(18) (1973), pp. 630-646.

인식론(genetic epistemology)[15]에 기반한 피아제의 생각을 발전시켜서,[16] 도덕적 추론에 의한 도덕성 발달의 단계를 구체화했다(〈표 1〉 참조).

〈표 1〉 발달의 수준과 단계에 따른 도덕판단의 분류

수준	도덕 판단의 기반	발달의 단계
Ⅰ	도덕가치는 사람이나 표준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類似물리적 사건에, 사악한 행위에, 또는 유사 물리적 욕구에 귀속한다.	단계 1. 복종 빛 처벌 정향(orientation). 우월한 힘내지 권능에 대한 자기중심적 존경, 혹은 좋은 게 좋다는(trouble-avoiding)태도. 객관적 책임
		단계 2. 순수 이기주의 정향. 자기의 욕구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도구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이다. 각 행위자의 욕구 및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상대주의에 대한 각성. 소박한 평등주의, 그리고 상호성 및 교환에 무게를 둠
Ⅱ	도덕가치는 훌륭하고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즉 인습적 명령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서 성립한다.	단계 3. 착한 아이 정향. 다른 사람을 돕고 기쁘게 해주고 승인을 얻으려는 정향, 당연한(natural) 요컨대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식의 역할행동 그리고 의도성에 의거한 판단
		단계 4. 권위와 사회질서 유지 정향. "의무수행"에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존경 표시 및 사회질서 유지 그 자체에 무게를 둠. 타인의 응당한 기대에 따름.
Ⅲ	도덕가치는 공유되거나 공유할만한 표준, 권리, 의무에 대한 자아의 동조에서 성립한다.	단계 5. 계약맺음과 법 존중 정향. 협약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기대나 규칙이 지닌 임의적 요소를 분별해냄 혹은 그것의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인식함. 계약, 타인의 권리 내지 의지의 존중, 다수의 복지 등의 견지에서 의무를 규정함.
		단계 6. 양심 혹은 원리 정향. 현실적으로 제약을 주는 사회규칙 쪽뿐만 아니라 논리적 보편성 및 일관성에의 호소를 담고 있는 선택의 원리 쪽에 무게를 둠. 행위의 지도력인 양심에 그리고 상호존중 및 신뢰의 무게를 둠.

출처: L. Kohlberg, 김민남·진미숙 역, 『도덕발달의 심리학』 (경기: 교육과학사, 2000[1984]), pp. 44-45.

15) E. von Glasersfeld, "An exposition of constructivism: Why some like it radical",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Monograph*, 4 (1990), pp. 19-29, 195-210.

16) 피아제는 아동의 탄생부터 2세까지를 감각운동기(sensorimotor period), 2세부터 7세까지를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 7세부터 11세까지를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 그리고 11세 이상을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로 분류한다. 인지발달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는 지식의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구도(Schema), 기존 구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 유입 절차인 동화(Assimilation), 기존 구도의 변화를 위한 적응(Accommodation), 동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평형(Equilibration)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J. Piaget, *The Development of Thought: Equilibration of Cognitive Structure* (A. Rosin, trans.) (NY: Viking Press, 1977[1975]); J. Piaget, *The Essential Piaget*, H. E. Gruber, J. J. Voneche, eds. (NY: Basic Books, 1977); R. E. Fancher, A. Rutherford, *Pioneers of Psychology: A History* (NY: W. W. Norton, 2012); J. W. Santrock, *A Topical Approach to Lifespan Development* (8th ed.) (NY: McGraw-Hill, 2016); https://www.verywell.com/piagets-stages-of-cognitive-development-2795457 (검색일: 2017. 7. 29).

콜버그는 도덕성의 발달과 추론에 있어서 인지적 이성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도 동시에 중요함을 강조했다.[17] 도덕성은 단순히 어떤 원칙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거나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인지발달론자들에게 있어서 도덕성 발달과 도덕적 추론은 도덕성의 관계성과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적 도구이다.

2. 도덕적 역량

도덕적 역량(moral competence)[18]이란 도덕적 행위자가 스스로에게나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사고, 정서, 행동의 통합되어 발휘되는 능력이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콜버그는 도덕적 역량을 "내면적 도덕 원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도덕적 판단 능력과 그 판단과 조응한 행위 능력"이라고 정의한다.[19] 이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도 한다. 아시아계 Hing Keung Ma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적 역량이란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위를 하기 위한 정서적 정향성과 높은 수준이 발달 단계에서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도덕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20] 도덕적 역량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G. Lind가 도덕적 역량 검사 도구(MCT: Moral Competence Test)를 만들게 되면서부터였다.[21]

---

17) L. Kohlberg, "Moral development", in J. M. Broughton, D. J. Freeman-Moir, eds., *The Cogni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James Mark Baldwin: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Genetic Epistemology*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 1982), pp. 139-141.

18) 도덕적 역량에 대해, 영어권에서는 moral competence와 moral competency를 혼용한다. 대개 도덕심리학자들은 전자를 선호한다.

19) L. Kohlberg,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moral ideology", In M. L. Hoffman,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I (NY: Russel Sage Foundation, 1964), p. 425.

20) Hing Keung Ma, "Moral competence as a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nstruct: conceptual bases and implications for curriculum development,"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Development of a Pioneering Program in a Chinese Context*, D. T. L. Shek, H. K. Ma, and J. Merrick, Eds. (Freund Publishing House, London, UK, 2007), pp. 183-191; Hing Keung Ma, "Moral Competence as a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nstruct: A Conceptual Review",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Vol. 2012 (2012), https://www.hindawi.com/journals/tswj/2012/590163/ 재인용 (검색일: 2017. 7. 29).

21) G. Lind 교수는 2014년 말부터(G. Lind 교수의 홈페이지 내의 다른 설명에서 보면 2013년부터라는 설명도 있다.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발송된 이메일을 기준으로 볼 때, 2014년이 맞다고 본다) MC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이전에는 Moral Judgment Test(MJ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이전에도 측정도구와 관련된 논문과 책자 속에서는 여전히 Competence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측정도구에 명칭이 수정되어 포함된 것은 2014년이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도덕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G. Lind 교수의 MCT가 가장 유력하며 희소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출판된 G. Lind 교수의 저서에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G. Lind, 박균열·정창우, 『도덕적 민주적 역량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2017[2016]).

그는 콜버그의 인터뷰에 의한 도덕판단력 측정도구(MJI: Moral Judgment Interview)와 이를 객관화한 J. Rest의 주제정의형 도덕판단력 측정도구(DIT: Defining Issues Test)의 자기꾸밈 효과를 최소화하고, 특히 DIT에서 5단계 이하 단계 값들이 거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도덕적 역량이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보다는 더 높은 도덕적 사고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즉 린트에게 있어서 도덕적 역량은 도덕적 판단 역량을 말한다.[22]

Ⅲ.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경남 진주 소재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학교급별 담당 교사와 교수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다. 표본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의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여 집단별 총 250명을 목표로 했다.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중학생 49명, 고등학생 57명, 대학생 88명으로 총 194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성별은 남자는 91명(46.96%), 여자는 103명(53.1%)으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 평균연령은 18.7±3.1(세)로 10대가 102명(52.6%), 20대는 92명(47.4%)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대상자 중에서 61명(31.4%)이 신앙을 갖고 있었다.

2. 조사 도구

한국의 실정에 맞는 통일·안보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G. Lind가 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MCT의 알고리즘을 원용하여 만들어졌다. 2개의 딜레마(대북 인도적 지원, 통일비용)를 상정하였으며, 그 주인공은 각기 여자와 남자로 상정하였다. 논리적 타당도 확보를 위해 조사 도구 제작 단계에서 윤리교육학 전공 교수 3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부록 1] 참조).[23]

MCT를 통해서 얻어진 값을 C-점수라고 한다. MCT는 콜버그의 도덕발달 6단계에 기초한 객관식 선다형 측정으로서 세계 70여 개국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고, 웹사이트에 하

---

22) G. Lind, “Chapter 4. Meaning and Measurement of Moral Competence”, ibid., pp. 59-89; https://www.uni-konstanz.de/ag-moral/b-liste.htm#lind_2016_logos (검색일: 2017. 7. 29).

23) 조사 도구에 대한 설명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다음의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참고한 것이다. 박균열·이상호, 『공직자 청렴판단력 측정도구 개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연구보고서 (2016), pp. 26-30.

루 2,000명 이상이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도구는 주로 유럽 및 남미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MCT는 두 가지 이야기들('노동자의 딜레마'와 '의사의 딜레마')을 담고 있다. 각 딜레마에 있어서 주인공은 어떤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동과 관련한 규칙에 대해 갈등을 겪는다. MCT는 DIT와는 달리 단순 선호도의 정도가 아니라 그 이유를 중시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상호 의사소통인데, 그 담화 행태 저변에 깔려있는 논리적 근거는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지속된다. MCT는 이와 같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가치정향을 측정해낸다는 점에서 현실 적용성이 높은 도덕 판단력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 MCT의 한국적 표준화는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일차적 목표 이외에도 그와 같은 부수적인 목표도 동시에 갖고 있다.

MCT는 콜버그의 연구에 의해 입증된 인지발달론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24] 첫째, MCT는 선호도 순서(order of preferences)를 중시한다. 즉 도덕적 딜레마에서 피험자들은 도덕적 추리 단계를 순서대로 선호해야 한다.[25] 둘째, 준단방향구조(quasi-simplex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인접한 단계들 간의 상관관계는 더 멀리 떨어진 단계들 간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아야 한다. 셋째, 인지-정서적 평행(cognitive-affective parallelism)을 나타낸다. 인지발달과 정서의 높은 상관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26] 넷째, 문항 속의 논증 과정에서 비록 가정된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equivalence of pro and con argument) 단계 지향은 일정하게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MCT는 어려운 도덕적 과업(a difficult moral task)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특정주제에 대한 도덕적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역량(moral competence)을 측정하는 것이다. MCT가 태도가 아닌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 상향을 가장한다고 해도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27]

---

24) 이하 MCT의 특징은 그 타당도 조사에서 적용될 기본적인 지침격에 해당된다.

25) 한 북한이탈주민(성별: 여성, 북한에서의 경력: 교사, 고향: 함경북도, 연령: 40대말, 정착 후: 대학원 박사과정)과의 개별 인터뷰 결과 후자의 결과를 보였다. 그녀의 단계별 점수는 1단계 5점으로 가장 높았고, 2단계 3, 3단계 -5, 4단계 1, 5단계 4, 6단계 -7이었는데, C-점수는 27.628로 낮은 점수는 아니었다. (2016. 10. 13. 개별 인터뷰)

26) 이 세 번째의 인지-정서 평행 개념을 적용한 척도의 구성은 -4에서부터 +4까지의 단일한 9점 척도로 구성되는데, 이는 기존의 리커트 척도의 긍정형과 부정형을 함께 붙여놓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의차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의 네 가지 차원(평가 차원, 능력 차원, 활동성 차원, 수용성 차원) 중에서 평가 차원의 척도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4 ~ +4의 구성을 0~8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해서 조사하고, 입력 및 처리 과정은 어의차별척도 형식으로 짜여진 MCT 고유 계산자로 진행했다.

27) L. Kohlberg, "The Development of Modes of Moral Thinking and Choice in the Years Ten to Sixtee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8); Rest, op. cit., 1979a; 1979b; 박균열, "도덕 판단력 측정도구 MJT의 특징과 활용법", 『도덕윤리과교육』, 제23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6), pp. 136-137.

C-점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선호태도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관심과 원칙에 의해 결정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부록 2]의 계산자 공식 참조). C-점수의 만점은 100점이다. 대체로 1-9점은 '낮음', 10-29점은 '중간', 30-49점은 '높음', 50점 이상은 '아주 높음'으로 평가된다.[28] 이 도구는 이미 한국형 표준화가 완료되어 활용되고 있다.[29]

3. 자료 처리

본 연구는 C-점수 계산을 간편하게 구현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EXCEL 계산자를 활용했으며, 그 수식에 적합하게 SPSS 명령어를 활용하여 모든 수치를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각 단계별 평균 수준의 변화, 각 단계와 C점수 간의 상관성, 대상자별 인식수준의 차이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단계별 차이, 단계유형별 차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과 종속표본 t 검증(Paired Sample t test), 요인분석(Factor Analysis)[30]을 실시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대상 그룹별 별 평균 인식차이는 독립표본 t 검증(Independent Samples t test)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 α=.05이다.

Ⅳ. 조사 도구에 대한 검증

1. 조사대상의 기술통계량

가. Stage별, Stage 유형별 차이

통일문제 MCT에 대한 Stage별, Stage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각 단계별 평균 청렴도 수준은 1단계는 0.09, 2단계는 -1.78, 3단계는 -1.12, 4단계는 0.04, 5단계는 평균 0.74, 6단계는 평균 -0.77로 나타났으며, 각 Stage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9.730,

---

28)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1988).

29) 이원봉·박균열, 『도덕판단력 측정: MJT와 DIT를 중심으로』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12); 박균열, "도덕적 판단력 도구 MJT의 한국적 표준화 연구", 『윤리연구』, 제94호, 한국윤리학회 (2014), pp. 249-275.

30) 심사위원 중 한 분이 각 단계에 대한 요인분석 방식에 대해 지적하면서 반복측정분산분석을 권고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준거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MCT를 만든 G. Lind 교수의 연구절차를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의 요인분석은 다양한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검증이 아니라 1~6단계(또는 그 역逆도 가능)가 순서대로 나타나는지, 특히 낮은 단계군(群)(1~3단계)과 높은 단계군(4~6단계)이 잘 구분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초 기술의 방향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p〈.001), Stage 유형별 차이는 긍정가정유형(M=-0.94)과 부정가정유형(M=0.00)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801, p〈.001). 검사의 전체 C-점수는 평균 31.08점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Stage별, Stage 유형별 차이

	Stage별 차이							Stage 유형별 차이			C-점수
	Stage1	Stage2	Stage3	Stage4	Stage5	Stage6	F(p)	Stage 1-3	Stage 4-6	paired t(p)	
M	.09	-1.78	-1.12	.04	.74	-.77	9.730 ***	-.94	.00	-3.801 ***	31.08
SD	6.09	6.25	5.59	5.53	5.85	5.78	(.000)	4.87	4.72	(.000)	19.45

*p〈.05 **p〈.01 ***p〈.001

나.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통일문제 MCT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Stage별(F=4.895, p〈.001), Stage 유형별(F=-2.519, 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는 Stage별(F=5.156 p〈.001), Stage 유형별(F=-2.844, p〈.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각 Stage별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Stage 3, Stage 6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성별간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인식수준이 높았다. 또한 C-index는 성별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성별에 따른 차이

		Stage별 차이							Stage 유형별 차이			C-점수
		Stage1	Stage2	Stage3	Stage4	Stage5	Stage6	F(p)	Stage 1-3	Stage 4-6	paired t(p)	
남자	M	-.86	-2.95	-1.80	-1.05	-.18	-1.54	4.895 ***	-1.87	-.92	-2.519 *	31.80
	SD	5.95	5.35	5.34	5.20	6.21	5.61	(.000)	4.44	4.70	(.014)	18.95
여자	M	.93	-.76	-.52	1.01	1.55	-.10	5.156 ***	-.12	.82	-2.844 **	30.43
	SD	6.11	6.81	5.76	5.65	5.41	5.87	(.000)	5.10	4.59	(.005)	19.96
t(p)		-2.064 * (.040)	-2.464 * (.015)	-1.595 (.112)	-2.636 ** (.009)	-2.073 * (.039)	-1.742 (.083)		-2.536 * (.012)	-2.611 * (.010)		.490 (.625)

*p〈.05 **p〈.01 ***p〈.001

다.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른 통일문제 MCT의 차이를 살펴보면, 10대, 20대는 Stage별(F=5.907, p〈.01; F=4.473, p〈.01), Stage 유형별로는 10대(t=-3.117, p〈.01), 20대(t=-2.332, p〈.05) 모두 부정가정유형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Stage별 연령차이서에는 C-index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Stage 별, Stage 유형별로 연령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0대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연령에 따른 차이

		Stage별 차이							Stage 유형별 차이			C-점수
		Stage1	Stage2	Stage3	Stage4	Stage5	Stage6	F(p)	Stage 1-3	Stage 4-6	paired t(p)	
10대 (a)	M	1.16	-.33	-.18	1.02	2.00	.47	5.907 *** (.000)	.22	1.16	-3.117 ** (.002)	30.75
	SD	5.83	6.04	5.47	5.74	5.36	5.44		4.84	4.78		20.43
20대 (b)	M	-1.09	-3.39	-2.17	-1.04	-.65	-2.15	4.473 ** (.001)	-2.22	-1.28	-2.332 * (.022)	31.43
	SD	6.17	6.12	5.56	5.10	6.07	5.86		4.60	4.31		18.43
t(p)		2.603 * (.010)	3.499 ** (.001)	2.519 * (.013)	2.636 ** (.009)	3.231 ** (.001)	3.232 ** (.001)		3.581 *** (.000)	3.726 *** (.000)		-.241 (.810)

*p〈.05 **p〈.01 ***p〈.001

라. 대상별에 따른 차이

대상별에 따른 통일문제 MCT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은 Stage별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F=3.787, p〈.05)과 대학생(F=7.756, p〈.001)은 Stage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tage 유형별로는 긍정가정유형과 부정유형간에는 중학생은 유의한 인식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생(F=-2.362, p〈.05)과 대학생(F=-3.248, p〈.01)의 경우는 부정가정유형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Stage별 대상별 차이에서는 Stage6을 제외한 모든 Stage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tage 1, Stage4는 중학생과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았으며, Stage 2, 3, 5은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긍정가정유형(F=6.485, p〈.01), 부정가정유형(F=5.372, p〈.01)에 대해서 대상별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긍정가정유형은 대학생의 인식이 가장 낮으며, 부정가정유형은 중학생과 대학생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대상별에 따른 차이

		Stage별 차이							Stage 유형별 차이			C-점수
		Stage1	Stage2	Stage3	Stage4	Stage5	Stage6	F(p)	Stage 1-3	Stage 4-6	paired t(p)	
중학생 (a)	M	-.57	-.49	-.29	.04	.29	-.69	.539 (.747)	-.45	-.12	-.663 (.511)	31.23
	SD	6.22	5.19	4.45	5.55	5.89	5.97		4.44	5.15		19.22
고등학생 (b)	M	1.79	.11	-.07	2.00	2.35	.46	3.787** (.002)	.61	1.60	-2.362* (.022)	33.21
	SD	5.39	6.77	6.19	5.83	5.43	5.58		4.95	4.65		21.72
대학생 (c)	M	-.64	-3.73	-2.27	-1.23	-.05	-1.61	7.756*** (.000)	-2.21	-.96	-3.248** (.002)	29.64
	SD	6.28	5.94	5.59	5.98	5.94	5.72		4.76	4.26		18.12
F(p)		3.211* (.042)	8.515*** (.000)	3.511* (.032)	6.216** (.002)	3.176* (.044)	2.253 (.108)		6.485** (.002)	5.372** (.005)		.576 (.563)
Scheffe		a,c〈b	c〈a,b	c〈a,b	a,c〈b	c〈b			c〈a,b	a,c〈b		

*p〈.05 **p〈.01 ***p〈.001

마. 신앙에 따른 차이

신앙에 따른 통일문제 MCT의 차이를 살펴보면, Stage별 변화는 신앙이 있는 경우(F=2.979, p〈.05), 신앙이 없는 경우(F=7.785, p〈.001) Stage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tage 유형별로는 신앙이 있는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신앙이 있는 경우는 부정가정유형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094, p〈.001). 또한 각 Stage별 신앙차이를 살펴보면, Stage 3(t=2.309, p〈.05)에서 신앙이 있는 경우의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Stage 유형별, C-index에 대해서는 신앙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신앙에 따른 차이

		Stage별 차이							Stage 유형별 차이			C-점수
		Stage1	Stage2	Stage3	Stage4	Stage5	Stage6	F(p)	Stage 1-3	Stage 4-6	paired t(p)	
있다	M	1.02	-1.41	.23	.16	1.15	-.07	2.979* (.012)	-.05	.42	-.962 (.340)	30.89
	SD	5.93	5.93	5.03	5.85	6.49	5.94		4.54	5.18		18.57
없다	M	-.33	-1.95	-1.74	-.02	.56	-1.10	7.785*** (.000)	-1.34	-.19	-4.094*** (.000)	31.16
	SD	6.13	6.41	5.74	5.40	5.55	5.70		4.98	4.49		19.92
t(p)		1.436 (.153)	.563 (.574)	2.309* (.022)	.209 (.835)	.653 (.515)	1.156 (.249)		1.721 (.087)	.823 (.411)		-.092 (.927)

*p〈.05 **p〈.01 ***p〈.001

2. 조사 도구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도

신뢰도는 설문과정 내적인 문제이므로 조사대상의 반응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 α계수에 의한 내적 일관성을 검증했는데, .78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7〉 참조).

〈표 7〉 검사지의 신뢰도

	통일문제		전체
	대북인도적 지원의 딜레마	통일비용 준비에 대한 딜레마	
중학생	.552	.727	.808
고등학생	.570	.795	.810
대학생	.519	.514	.716
전체	.556	.795	.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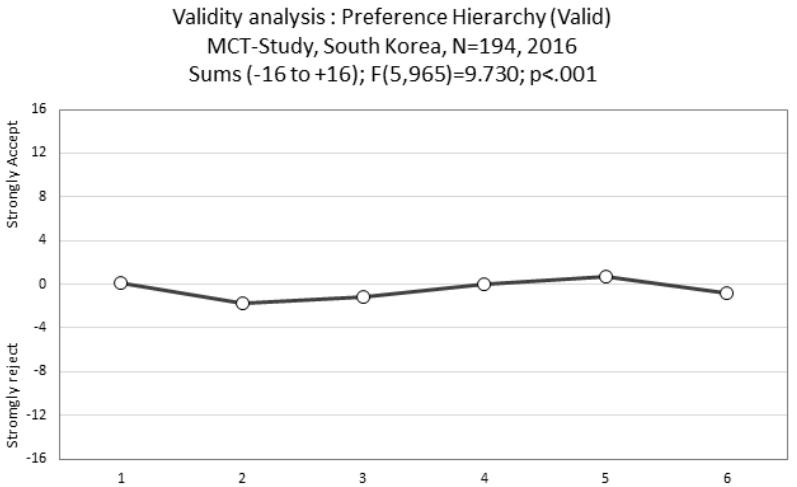
3. 조사 도구의 타당도 검증

이 타당도가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타당도는 자[尺]의 문제인데, 이 연구가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 자를 제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타당도는 두 가지를 살펴본다. 우선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이다. 이는 재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의 타당도이다. 즉 한국적 공직자에 맞는 스토리인지의 문제이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보완한다. 다음으로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이다. 이는 준거타당도라고도 하는데, 기존에 이미 검증된 준거와 견주에 결과 값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타당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G. Lind교수가 이미 제시해둔 도덕적 발달단계별 선호도 순서 검증, 준단방향구조 검증, 인지-정서적 평행 검증, 연령에 따른 C-점수의 지속 검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도덕적 발달단계별 선호도 순서 검증

각 단계별 평균 청렴도 수준은 1단계는 0.09, 2단계는 -1.78, 3단계는 -1.12, 4단계는 0.04, 5단계는 평균 0.74, 6단계는 평균 -0.77로 나타났으며, 각 Stage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9.730$, $p<.001$), 1단계보다는 2단계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점진적으로 향상되며 6단계에서 다소 감소하는 패턴이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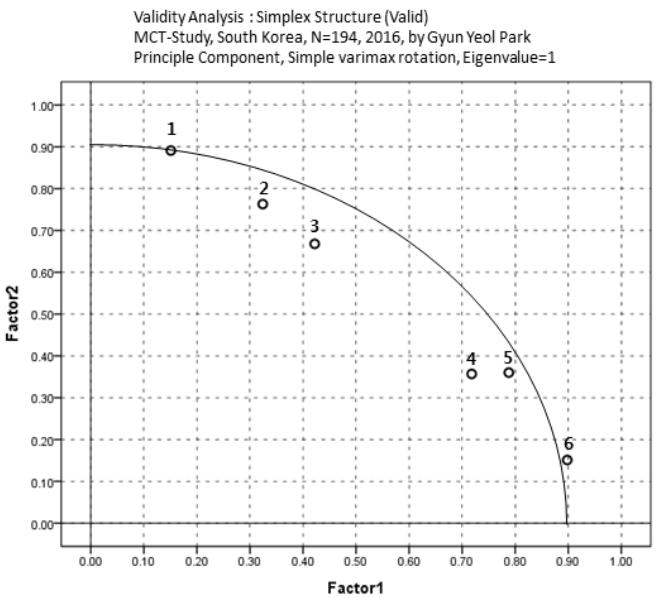
[그림 1] 도덕적 발달단계별 선호도 순서 검증 결과



나. 준단방향 구조 검증

고유값 1을 부여하여 2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콜버그의 도덕발달 6단계 간의 관계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단계끼리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상 패턴을 보인 것이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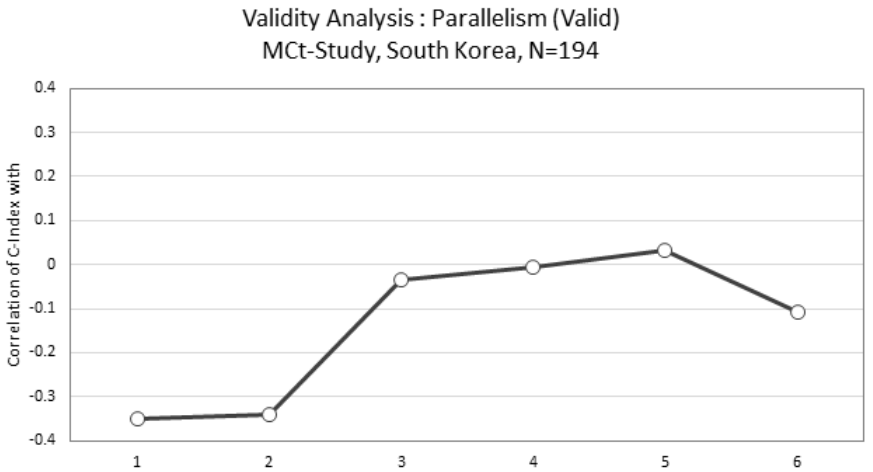
[그림 2] 준단방향 구조 검증 결과



다. 인지-정서적 평행 검증

각 Stage와 C-점수 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Stage 1과는 r=-.350, Stage 2와는 r=-.340, Stage 3과는 r=-.035, Stage 4와는 r=-.006, Stage 5와는 r=.033, Stage 6과는 r=-.108로 나타나 1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상관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아졌으며 6단계에서 다소 떨어지는 패턴이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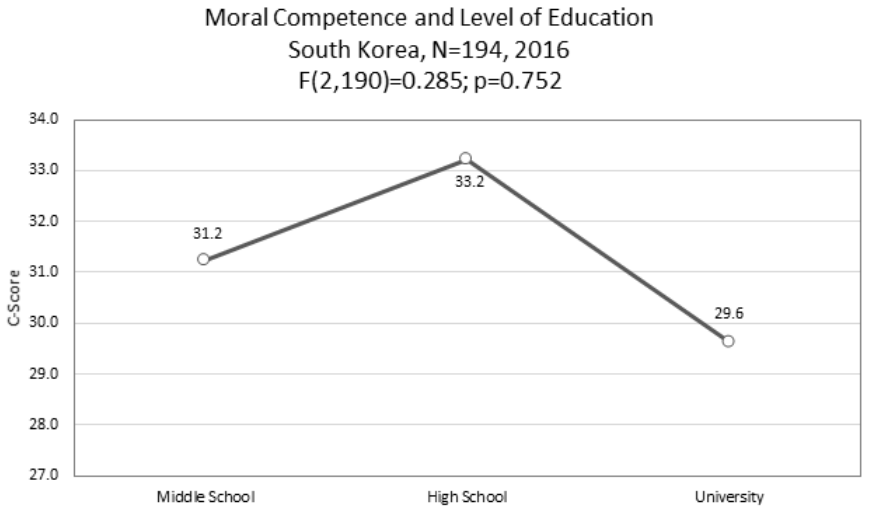
[그림 3] 인지-정서적 평행 검증 결과



라. 연령별 C-점수의 지속 검증

각 대상별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중학생은 평균 31.2, 고등학생은 평균 33.2, 대학생은 평균 29.6로 나타나 대학생의 C-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그림 4] 연령별 C-점수의 지속 검증 결과



V. 맺음말

이 연구는 도덕성 검사 도구인 MCT의 구성원리를 활용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통일·안보 가치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기초적인 시도이다. 이 연구는 MCT가 이미 학교 현장과 공무원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통일·안보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출발했다.

이 연구는 통일·안보의식측정도구 시안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원판 MCT의 타당도 검증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우선 도덕적 발달단계별 선호도 순서 검증에서 전반적으로 -16에서 +16까지의 응답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1단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6단계가 5단계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타당도 높은 도구로 판명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둘째, 준단방향 구조 검증 결과는 정상 패턴을 보였다. 다만 같은 인습수준의 3, 4단계의 거리가 비교적 멀다는 점이 특이하다. 셋째, 인지-정서적 평행 검증 결과는 감내할만한 수준이다. 이는 도덕발달단계와 C-점수 간의 상관성을 말하는데, 6단계 지지자들의 C-점수가 비교적 낮게 난 점은 특이하다. 하지만 이것은 MCT에 대한 세계적인 타당화 검증 선행 연구 결과에 비하면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넷째, 연령별 C-점수의 지속 검증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대체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서 C-점수가 높아졌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낮아졌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인데, 세계

적인 추세와 견주어보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 검증은 이성적인 도덕성 발달 단계와 감성적인 찬성과 반대 의지 간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인데, 성인이 되면 선호의지가 더 분명해져야 하는데 조사신뢰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않은가 추정된다.

이 연구는 통일·안보의식을 가치의식이라고 가정하고, 가치의식을 측정하는 기존의 도구의 측정 알고리즘을 원용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다만 딜레마 스토리 해독에 대한 응답자들이 친화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성과 반대에 대한 지지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 통일·안보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친화성 높은 주제의 발굴 등의 난제를 극복한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타당도를 확보한 도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당초 교육을 전제하고 상정한 딜레마 스토리를 제거하고, 통일·안보의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문장만으로 질문지를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안보의식은 통일과 안보 문제에 대한 단순한 여론이라고 할 수 없으며, 통일에 대한 염원이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이다. 통일과 안보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지향하는 가치의식에 기반한 통일·안보의식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비록 이 연구가 완전한 결실을 얻지는 못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서 완성도가 높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1] 통일·안보의식측정도구 기초(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음 통일·안보관련 가상의 딜레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평소의 생각이나 느낀 바를 편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박균열 교수 올림

〈대북인도적 지원의 딜레마〉

한지원 양은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총괄책임자이다. 북한 당국도 그녀를 매우 신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지원양은 굶주림에 죽어가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약품이 없어 죽어가는 병자들을 돕고 있다. 그런데 1주일 전에 하나밖에 없던 남동생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해서 서해안의 어떤 섬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북한의 불법 포격 도발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깊은 고민에 빠진 한지원 양은 북한의 호전적 행위에 환멸을 느껴서 퇴사를 결심했다. 이제 북한 당국의 잔학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로 결심했다. 다음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의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에 ○ 또는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동의 안함 ⟷ 매우 동의함								
1. 북한이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그동안 강력하게 보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0	1	2	3	4	5	6	7	8
2. 북한의 만행을 고발하는 공식적인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	0	1	2	3	4	5	6	7	8
3. 자신의 동생의 죽음을 모른 체 하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3)	0	1	2	3	4	5	6	7	8
4. 설령 북한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소속된 시민단체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처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5)	0	1	2	3	4	5	6	7	8
5. 그녀가 갑자기 퇴사를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그녀에 대한 좋은 평판에 큰 흠집이 생길 수도 있다. (3)	0	1	2	3	4	5	6	7	8
6. 그녀가 퇴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증오심은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다. (1)	0	1	2	3	4	5	6	7	8

주: '*' 표시의 괄호 속 숫자는 콜버그 6단계 중 해당 단계를 의미함.

〈통일비용 준비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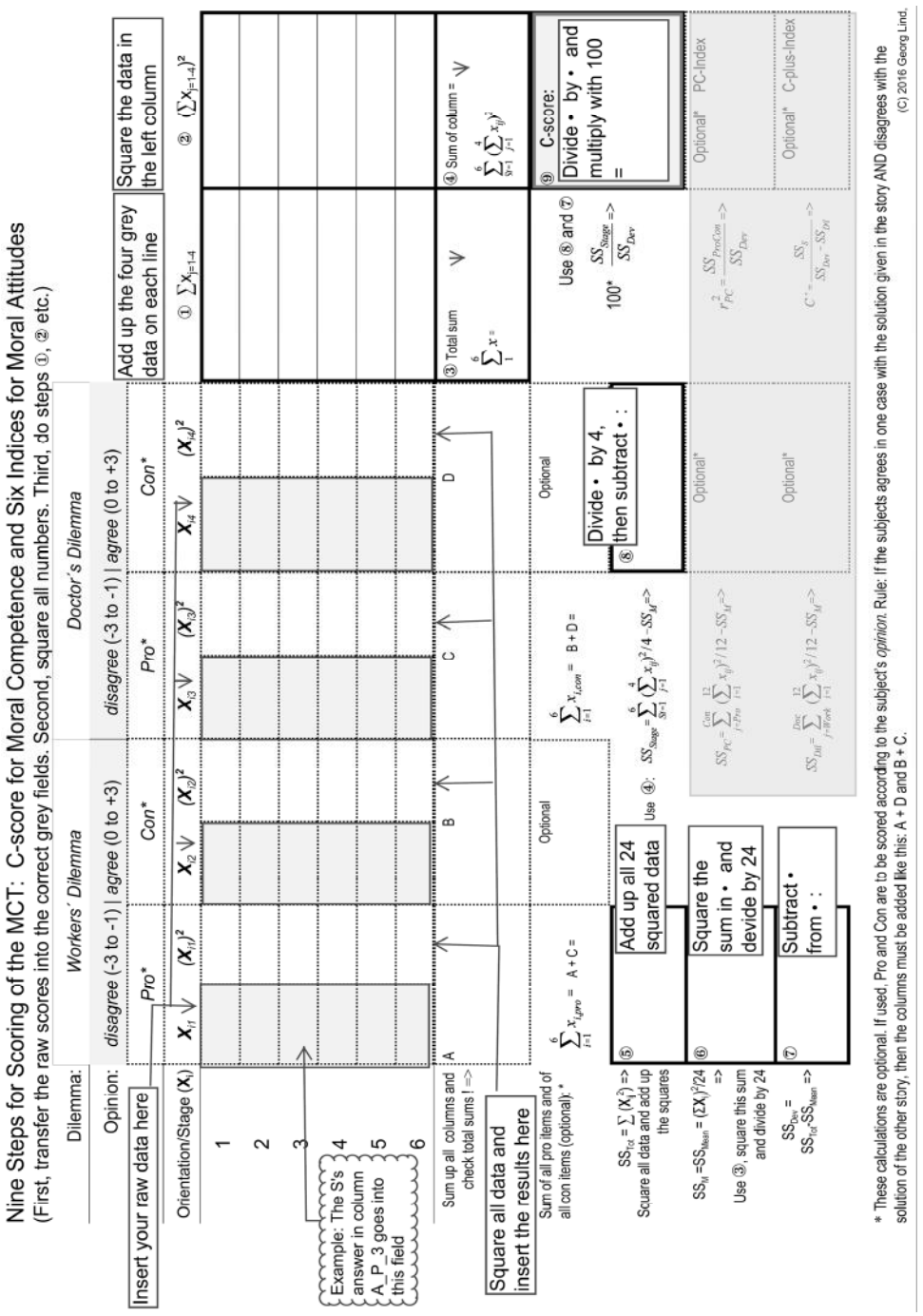
정준비 군은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통일비용조달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다. 정군은 10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이다. 정군은 평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왔다. 그것을 위해서는 통일비용을 마련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군의 주변 친구 중 한 명이 하루는 그에게 그렇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만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곧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비판했다. 이에 정군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결국 정군은 자신이 극복해야 할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포기하게 되었다. 다음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의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에 ○ 또는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동의 안함 ←→ 매우 동의함								
1. 탈북자가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회 질서와 관행을 유지하는 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0	1	2	3	4	5	6	7	8
2. 탈북자는 아직 소수 약자이기 때문에 정군이 캠페인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자기 가족과 본인만 피곤하게 될 것이다. (2)	0	1	2	3	4	5	6	7	8
3. 통일비용을 마련하려고 하는 캠페인은 남북한의 평화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6)	0	1	2	3	4	5	6	7	8
4. 만약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캠페인이 우리 사회의 전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6)	0	1	2	3	4	5	6	7	8
5. 정군의 캠페인은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정부의 정책에 저촉된다면 해서는 안 된다. (4)	0	1	2	3	4	5	6	7	8
6. 정군의 친구는 부러워서 한 말일지도 모른다. 정군은 자신의 캠페인이 탈북민도 좋고 모든 구성원들도 다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캠페인을 계속했었어야 했다. (2)	0	1	2	3	4	5	6	7	8

※ 여러분 본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__1) 여자 __2) 남자 **2. 신앙**: __1) 있다 __2) 없다 **3. 나이**: _____세

[부록 2] MCT 계산자



출처: https://www.uni-konstanz.de/ag-moral/b-liste.htm#lind_2016_logos (검색일: 2017. 7. 29).

참 고 문 헌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남남 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 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안보의식조사』 (각년도)

박균열, "도덕 판단력 측정도구 MJT의 특징과 활용법", 『도덕윤리과교육』, 제23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6).

박균열, "도덕적 판단력 도구 MJT의 한국적 표준화 연구", 『윤리연구』, 제94호, 한국윤리학회 (2014).

박균열·이상호, 『공직자 청렴판단력 측정도구 개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연구보고서 (2016).

박찬석, 『남남 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 (경기: 인간사랑, 200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각년도)

이원봉·박균열, 『도덕판단력 측정: MJT와 DIT를 중심으로』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12).

차문석·마인섭, 『북한 문제와 남남 갈등』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15).

Adler, Emanuel Michael Barnett,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security communities", Emanuel Adler, Michael Barnett, eds.,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1988).

Duffield, John S., *World Power Forsaken: Political Cultur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German Security Policy after Unific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Fancher, R. E., A. Rutherford, *Pioneers of Psychology: A History* (NY: W. W. Norton, 2012).

Gibbs, John C., "2장 인지발달론적 관점", William M. Kurtines, Jacob L. Gewirtz, 문용린 역,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2002).

Glasersfeld, E. von, "An exposition of constructivism: Why some like it radical",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Monograph*,

4 (1990).

Howlett, Darryl, "Strategic Culture. Reviewing Recent Literature", *Strategic Insights*, 4(10) (2005).

Johnston, Alastair Iain,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19(4) (1995).

Katzenstein, Peter J., "Conclusion: National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Y: St. Martin's Press, 1996).

Kohlberg, L.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moral ideology", In M. L. Hoffman,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I (NY: Russel Sage Foundation, 1964).

Kohlberg, L., "Moral Development and Identification", H. Stevenson, ed., *Child Psychology*, 62nd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art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Kohlberg, L., "Moral development", in J. M. Broughton, D. J. Freeman-Moir, eds., *The Cogni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James Mark Baldwin: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Genetic Epistemology*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 1982).

Kohlberg, L.,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 Approach to Socializatio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9).

Kohlberg, L., "The Claim to Moral Adequacy of a Highest Stage of Moral Judgment", *The Journal of Philosophy*, 70(18) (1973).

Kohlberg, L., "The Development of Modes of Moral Thinking and Choice in the Years Ten to Sixtee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8).

Kohlberg, L., "The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Ideology", M. L. Hoffman,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1 (NY: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Kohlberg, L., R. Kramer,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2 (1969).

Lind, G., "Growth and regression in moral-cognitive development", In: C.

Harding, ed., *Moral Dilemmas.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Chicago: Precedent Publishing Inc., 1985a).

Lind, G., "How does one measure moral judgment? Problems and alternative ways of measuring a complex construct"[German: Wie mißt man moralisches Urteil? Probleme und alternative Möglichkeiten der Messung eines komplexen Konstrukts], In: G. Portele, ed., *Sozialisation und Moral* (Weinheim: Beltz, 1978).

Lind, G., "The theory of moral-cognitive judgment: A socio-psychological assessment", In: G. Lind, H. A. Hartmann & R. Wakenhut, eds., *Mor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environment: Studies in the philosophy and psychology of moral judgment and education* (Chicago: Precedents Publishing Inc., 1985b).

Lind, G., *Ist Moral lehrbar? Ergebnisse der modernen moralpsychologischen Forschung*[Can Morality be Taught? Research Findings from Modern Moral Psychology], Second Edition (Berlin: Logos-Verlag, 2002).

Lind, G., *Moral ist lehrbar: Handbuch zur Theorie und Praxis moralischer und demokratischer Bildung* [Morality Can be Taught: Handbook on Theory and Practice of Moral and Democratic Education] (Munchen: Oldenbourg-Verlag, 2003).

Lind, G., 박균열·정창우, 『도덕적 민주적 역량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How to Teach Morality: Promoting Deliberation and Discussion, Reducing Violence and Deceit*)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2017[2016]).

Ma, Hing Keung, "Moral Competence as a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nstruct: A Conceptual Review",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Vol. 2012 (2012).

Ma, Hing Keung, "Moral competence as a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nstruct: conceptual bases and implications for curriculum development,"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Development of a Pioneering Program in a Chinese Context*, D. T. L. Shek, H. K. Ma, and J. Merrick, Eds. (Freund Publishing House, London, UK, 2007).

Nussbaum, M. C., *Sex and Social Justi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iaget, J., *Moral Judgment of the Child* (M. Gabain, trans.) (NY: Free Press, 1965[1932]).

Piaget, J., *The Development of Thought: Equilibration of Cognitive Structure* (A. Rosin, trans.) (NY: Viking Press, 1977[1975]).

Piaget, J., *The Essential Piaget*, H. E. Gruber, J. J. Voneche, eds. (NY: Basic Books, 1977).

Rest, J. R. "New Approaches in the Assessment of Moral Judgment",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Y: Holt, Rinehart & Winston, 1976).

Rest, J. R., D. Cooper, R. Coder, J. Masanz & D. Anderson, "Judging the Important Issues in Moral Dilemmas: An Objective Measure of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0 (1974).

Rest, J. R.,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9a).

Rest, J. R.,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Y: Praeger, 1986).

Rest, J. R., *Revised Manual for the Defining Issues Tes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79b).

Santrock, J. W., *A Topical Approach to Lifespan Development* (8th ed.) (NY: McGraw-Hill, 2016).

Tylor, E. B., *Primitive Culture* (Nabu Press, 2014[1871]).

http://www.uni-konstanz.de/ag-moral

https://www.hindawi.com/journals/tswj/2012 /590163/

https://www.verywell.com/piagets-stages-of-cognitive-development-2795457

A Basic Research to Make Tool to Measure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 Security Using Moral Competence Test made by G. Lind

Park, Gyun Yeol

Keywords

Moral Competence Test(MCT),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and Security, Moral Psychology, C-Index, Moral Development, Moral Reasoning

As a foundation to measure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 Security, this study focuses the algorithm of MCT (Moral Competence Test) which was made by G. Lind. Presupposing a sharp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very difficult to estimate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and security. Moreover in South Korea, the consciousness is not just consciousness but very complicate value-based consciousness. Korean people had needed to make sure the highly normative demand to sustain the state.

MCT is a tool to measure the morality based on the moral psychology. This tool was developed by German moral psychologist G. Lind. He has tried to follow the academic footprints of L. Kohlberg. The core principle starts at the point that value is not factual but real. G. Lind has specificly and discretely divided high and low values hierarchy, and the rational and emotional orientation to those values are taken to the C-index which symbolizes the degree of moral competence.

This study has its methodological creativity in that it applies the general principles of moral psychology to the very political theme of unification and security in Korea. Unfortunately this study still has some limits to show great validity. So this study waits for additional research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and validity.

[논문투고일 : 2017. 07. 30]
[심사의뢰일 : 2017. 09. 08]
[게재확정일 : 2017. 09. 27]

국방연구 2017년 9월
제60권 제3호, pp. 93-117

군(軍)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배경기,* 조창래**

Ⅰ. 서 론
Ⅱ. 군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 실태
Ⅲ. 민간 물류시장 및 병원물류의 변화
Ⅳ. 미군 의무물자 주공급자 제도
Ⅴ. 군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 개선방안
Ⅵ. 결 론

요 약

우리 군은 창군 이래 미군의 물류체계를 원용하여 다단계(4~5단계) 지원구조를 가졌다. 이러한 물류체계는 물품의 지원속도 감소, 재고비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미군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부터 의약품을 시작으로 '주공급자 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 군 역시 2008년부터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우리 군의 의약품 주공급자제도가 가진 공급의 불안정성, 전시 대비 미흡 등과 같은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2016년에 시도한 3자 물류에서 2자 물류로의 전환을 비롯한 최근 민간의 물류변화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최신 의무물자 보급체계 전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시 대비 주공급업체의 별도 재고 유지, 생산능력 우선권 확보, 의무물자 보급 부대의 완충능력 강화 등과 같은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핵심어: 의약품 주공급자제도, 의무보급, 군수

* 국방기술품질원 육군 중령(진).
** 국군의무학교 육군 소령

Ⅰ. 서 론

1990년대 초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미국은 국방 예산을 감축하고, 민간기업의 성과지표인 "효율성"을 군대에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DLA[1]는 443개 야전창고와 17개의 보급창에 $824M정도의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최수동·탁성환·김상호, 2002, p.82) GAO[2]는 몇몇 민간 기업들과 같이 재고자산의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에게 부담시켜 재고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군이 적용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GAO, 1991). 이에 미군은 1993년부터 의약품을 대상으로 주공급자 제도를 도입하여, 1997년부터는 전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의약품 및 의무물자에 주공급자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이유는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 당시 전체 소요량의 8%만을 보급창 재고로 보급하고, 나머지 92%는 새로 획득했기 때문이며, 평시 사용하는 품목과 전시 필요한 품목 선정의 오류로 인해 대량으로 전투지역에 분배된 장기 비축약품은 대부분 부상자 치료에 부적합하였기 때문이다(조관식, 2009).

창군 이후 미군의 물자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의 다단계 지원구조[3]는 의약품에 대한 지원속도 감소, 수요 왜곡, 재고비 증가 등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다(조관식, 2009).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은 미군의 주공급자 제도를 모방하여 2005년 '국방기본정책서' 군수개혁 과제에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를 반영하고, 2008년부터 시험적용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먼저 도입한지 8년이 지난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의 보완사항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 민간 물류시장, 병원의 물류 변화 추세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군의 의무물자 주공급자 제도를 통해 우리 군(軍)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특히 미군의 안정적인 의무물자 공급을 위한 조달 전략, 전반적인 주공급자 제도 운영체계, 전쟁 중인 USCENTCOM[4] 책임 지역, USPACOM[5] 책임 지역 중에서 휴전 중인 한국에 대한 주공급자 제도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DLA(Defense Logistics Agency) : 미(美) 군수본부

2)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을 말하며, 이 기관은 연방기관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예산집행시 그 청구권을 확정·조정하는 권한과 지불을 거부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예산과 회계에 관한 법률해석권도 보유하고 있다(이종수, 2009).

3) 국방물류는 공급자에서 사용자까지 최대 5단계(공급자-군수사-군지사-사단-편성부대-사용자)를 거쳐 지원되는 구조임(조관식, 2009)

4) USCENTCOM : U.S. Central Command, 미 중부군 사령부

5) USPACOM : U.S. Pacific Command : 미 태평양 사령부

Ⅱ. 군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 실태

현재 우리 군의 의약품, 위생재료, 수술재료 보급 방법은 중앙조달[6], 부대구매, 주공급자 제도[7]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군 병원에서는 의무사령부를 통한 통합구매 방법이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주공급자 제도는 그 동안 사용자, 주공급자, 육군 군수사령부간 자료처리를 위한 인터넷 기반의 '나라사랑 종합쇼핑몰'이 운영되는 등 여러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현재 우리 군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의 보완사항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공급자 제도 자체의 문제점 / 한계점

첫째, 영세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주공급자로 선정되어 안정적인 보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 2016년의 의약품 주공급 업체는 2014년 설립되어 2015년 기준 자본금 6억 5,469만원, 매출액 83억 714만원, 당기순이익 1억 4,251만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다.[8] 2016년 이 업체와 육군 군수사령부간의 계약금액 84.01억원을 감안하면 이 업체의 영세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나라에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의약품 도매업체는 43개 이며,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업체는 9개 이고, 업계 1위 업체는 연매출이 1조원을 넘는다.[9] 이러한 대형 업체들 대신 영세한 업체가 주공급자로 선정된 이유는 주공급자의 선정기준이 입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쟁 입찰이고, 2000년대 초 주공급자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제한 및 발전시킬 사항으로 제시되었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1조 (장기계속계약)」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업체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수동·탁성환·김상호, 2002, p.135).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년도별 계약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연승약품, 연승약품, 유평약품, 주천약품, 연승약품, (주)위캔케어, (주)플러스팜으로 매년 계약업체가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세한 업체는 계약기간동안 일부 품목에 대한 품절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사용부대에

---

6) 전군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현지조달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일체의 공통품목을 중앙단일 조달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군수품 조달은 중앙조달을 원칙으로 함(육군본부, 2012)

7) 사용자가 직접 업체에 청구하고 업체가 직접 사용자에게 직납하는 형태의 군수지원체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조달기간의 단축, 재고수준의 감소, 민군 역할분담에 의한 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이점이 있음(육군본부, 2012)

8)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company-info-view?idx=6670276

9)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84441

서는 대체 약품을 사용하거나 부대구매 제도를 통해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다. 실제 15년에는 17번의 품절 현상이 발생하였다(육군군수사령부, 2015). 또한 기존업체와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1~2주의 청구 제한기간이 발생하여 긴급소요 발생시 부대별로 자체 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단일업체가 전군 의무부대와 군 병원을 지원하고 있어 안정적인 보급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평시에도 이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시에는 공급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진다. 2017년 처음으로 ㈜하이스트팜과 ㈜주천약품을 대상으로 계약이 맺어졌지만, 이는 안정적인 보급을 위한 주·예비 공급자를 구분한 것이 아닌 일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10]을 구분하여 계약한 것이다(육군군수사령부, 2017).

셋째, 청구시스템이 없는 부대는 사용자 대기기간이 길어져서 적시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인터넷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청구하여 수령까지 소요되는 사용자 대기기간은 16년 기준 평균 6.8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육군군수사령부, 2017). 하지만 주공급자 예산의 43%를 사용하고 있는 육군의 경우, 연대의무중대, 대대 의무실, 군단 직할부대 의무실 등은 별도의 청구시스템이 없어 인접 청구부대를 통해 신청 및 수령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청구시스템이 갖추어진 사·여단급 부대 및 군 병원 등을 제외한 소규모 의무부대들은 사용자 대기기간이 6.8일보다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2. 군의 관리 및 감독체계의 문제점

첫째, 계약문구에 위기상황 시 군의 수요에 대한 적시적이고 충분한 의약품 공급을 명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군(軍)과 주공급자는 계약에 의한 관계이므로 주공급자는 계약사항에 명시되지 않거나 위급함을 이유로 군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이행할 의무가 없다. 「2016년 의약품 주공급자 계약특수조건 제19조(전시등 국가 위기상항에서의 의약품 공급)」에 명시된 '예기치 못한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대량 소요 의약품의 청구에 대하여, 주공급자는 가능한 최대 물량을 납품한다'라는 내용은 운송 수단과 인원이 제한되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군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둘째, 의약품 청구부대의 보급수준이 높게 잡혀 있어 필요 이상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주공급자 품목들에 대한 사단의무대를 포함한 의약품 청구부대의 보급수준이 과거와

10) 퇴장방지의약품 :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원가가 보전되도록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2016년 3월 기준, 799품목)

동일한 30일분(운영수준 15일, 발주·수송기간 7일, 안전수준 8일)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국방부, 2017). 발주 및 수송기간이 주공급자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짧아졌고, 해공군 부대와 달리 사단의무대와 군 병원은 전시 상황에 따라 부대이동을 해야 하므로 이들 부대의 보급수준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선정된 주공급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가 없어 효율적인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육군 군수사령부는 주공급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최초 업체가 제시한 품목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계약 종료시 사용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육군군수사령부, 2017). 계약된 의약품의 시장 가격변동, 계약 품목에 대한 동일 효능의 복제약 대체 여부를 파악하고, 사용부대의 만족도와 의견을 실시간으로 주공급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Ⅲ. 민간 물류시장 및 병원물류의 변화

1. 일반 물류 동향

물류의 형태는 물류를 수행하는 주체와 화주와의 관계에 따라 크게 1PL(Party Logistics), 2PL, 3PL, 4PL로 구분할 수 있는데, 1PL은 자가 물류라고도 부르며,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직접 보관 및 운송하는 형태로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근거리 운송일 때 1PL을 적용한다. 2PL은 자회사 물류라고도 부르며, 자신의 물류를 담당할 물류 자회사를 만들어 물류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생산한 제품의 운송, 보관, 하역 등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와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물류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PL기업은 현대자동차의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글로비스, LG그룹의 범한판토스, SPC그룹의 삼립GFS을 들 수 있다. 3PL이란 제3자 물류라고도 부르며, 물류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한다. 3자 물류를 활용하면 기업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물류 부문에 들어갈 시간과 노력을 다른 곳에 투자함으로서 대고객 서비스을 강화할 수 있다(임기흥, 2007, p.214).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PL기업은 CJ대한통운을 들 수 있다. 4PL은 3PL업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관·하역·포장 등의 물류서비스에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재설계와 같은 물류 컨설팅과 IT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오문갑, 2013).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모기업의 강력한 자본력과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한 대기업 2PL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지난 10년간 국내 물류시장을 주도하는 가

장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왔다(김종칠 · 박동기, 2014, p.210). 이들은 물류 기능 자체가 모기업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타사에 대한 경쟁력 우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기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연구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동종업계로 시장을 확대하기도 한다. 현대 글로비스의 경우 국내로 수입되는 포드사의 캐딜락 자동차에 대한 완성차 물류서비스를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파리크라상을 비롯한 제빵 그룹인 SPC그룹의 삼립GFS도 식자재 제품관련 물류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햄버거 기업인 버거킹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등 자가 물류 노하우를 다른 식음료 물류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손정우, 2016).

반면 물류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의 해법으로 제시되었던 제3자 물류(3PL)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춘 대형 물류업체 부재로 화주기업들이 물류기능을 외부에 믿고 맡기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자사의 정보 공유를 꺼리는 폐쇄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아웃소싱 자체를 대해 부정적인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타산업에 비해 물류산업이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임기흥, 2007, p.225).

2. 병원 물류 동향

병원물류란 환자진료에 사용하는 모든 물자의 선정, 구매, 검수, 공급, 재고관리 및 폐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종석, 2014). 병원 물류관리는 물자계획,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관리, 재고물품을 검수, 저장, 불출하는 재고관리, 구매된 품목의 유지, 보수, 반납, 매각, 폐기를 관리하는 자산관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신혜정, 2009). 전국 222개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건비 42.8%, 재료비 32.2%, 관리비 22.7%, 기타 2.5%로 나타났다. 병원의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수탁운영형태[11] 50.6%, 가납운영형태[12] 30.2%, 직접 구매운영형태 19.2% 순으로 조사되었다(하정원, 2011, pp.59-60). 실제 우리나라의 상당수 대형 종합병원들은 구매관리 및 재고관리를 제3자 물류기업인 구매대행회사[13]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고, 대표적인 회사는

11) 각 병동이나 특수부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품들로 구매 창고에 일정 수량의 물품을 선납 받은 후에 사용부서에서 일청구로 나오는 수량만큼 불출 후 한 달 사용 수량을 거래처에 정산을 해주는 제품들로 구매대행업체에서 직접 창고를 관리

12) 특정부서에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구매창고를 거치지 않고, 각 사용부서에서 직접 선납을 받아서 사용한 후 한 달 사용수량을 공급사에게 정산을 해주며, 주로 고가의 제품이 많음

13) 구매대행회사(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GPO) : 다수 당사자의 대량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력(Buying Power)에 기초하여 공급자들로부터 가격할인을 받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출의 원천으로 하는 형태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에서 발달한 개념인데 구매대행회사가 주로 활동하는 사

이지메디컴, 케어캠프와 같은 회사들이 있다.

과거 병원물류의 경우 제3자 물류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왔다. 이는 병원 내 조직 및 공간구조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엄격한 재고관리가 어렵고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납품과 사용분의 파악, 적정재고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이상근, 2011, p.154). 이 같은 난점 때문에 종합적인 구매대행, 물류, 위탁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구매대행회사는 컴퓨터가 발달한 2000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회사들이 병원에 제공하는 물류서비스는 병원의 모든 의약품, 위생재료, 의료장비에 대한 구매대행, 병원 원내 창고를 대신한 외부 창고 운영, CCD[14]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구매대행회사가 병원에 대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병원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자 치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대형병원 구매대행회사들이 독과점적 역할을 악용해 공급사들에 대한 과도한 할인율 요구와 실제 서비스와 상관없는 부당한 수수료 징수, 정보이용료를 명목으로 병원에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정희석, 2016),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구매대행회사를 통한 물류 아웃소싱에서 직접구매 형태로 전환을 실시하였다.

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류 동향

분당서울대병원은 2016년 기준으로 의약품 구매에 약 850억원, 진료재료 구매에 약 1,100억원, 의료장비 유지 및 구매에 약 200억원을 배정하여 물류관련 비용이 전체 비용의 약35%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개원시부터 제3자 물류기업인 '이지메디컴[15]'이라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병원물품에 대해 구매계약 위탁운영을 시작, 2010년 물류창고를 외부로 위탁운영 하였으나, 2016년 4월부터 병원물품조달시스템[16]을 개발하여 직접 구매관리, 물품조달, 물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형병원들이 구매대행회사들을 통해 병원 물류관

업영역 가운데에는 의료 분야가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분야 구매대행회사가 대형병원을 상대로 구매, 물류 및 재고관리를 대행하는 등 활발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강한철, 2013, p.1).

14) CCD : Case Cart Delivery System, 수술별 물품을 표준화하여 창고에서 수술 건별로 가방에 포장하여 수술실까지 직접 배송하는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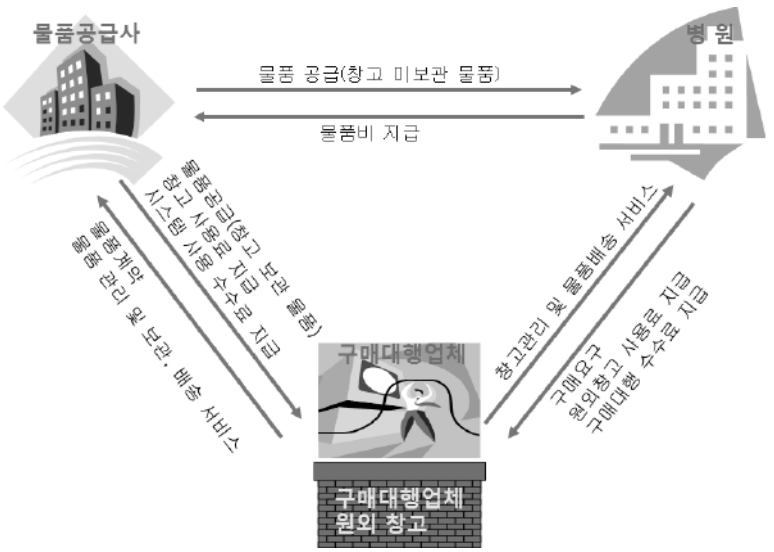
15) 2013. 10. 2 개정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나타난 기준에는 제3자 물류매출은 물류 사업의 총 매출액 중 제3자 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김종칠· 박동기, 2014, p.213), 이지메디컴은 15년 기준 제3자 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96%임.

16) Hospital Logistics System, HLS : 정부의 '나라장터' 계약기능과 군(軍)의 '국방물자시스템' 물자관리 기능이 모두 있는 병원 물류 전산시스템

리를 아웃소싱하는 추세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은 거꾸로 13년 동안 아웃소싱했던 물류관리를 직접 구매운영형태로 바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구매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구매대행 수수료와 창고이용료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병원 물류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물류업무를 외부 업체에 의존함에 따라 병원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신속히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적으로 의약품, 재료, 소모품 등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입찰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점점 없어져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실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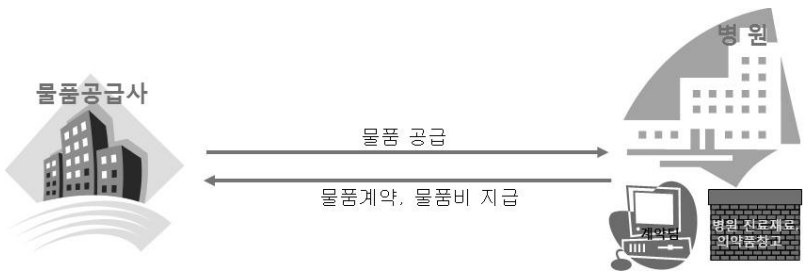
[그림 1] 2016년 4월 이전 물류시스템 프로세스(분당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구매운영형태로 전환했을 경우, 자체적인 물품조달 시스템 구축으로 수수료 절감의 직접 이익과 납품단가 하락(납품업체가 구매대행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 부분)에 따른 간접 이익이 발생하며, 자체 시스템 유지 및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병원과 달리 병원 물류관리에 대한 자체 물품조달시스템을 운영하며, 여기에 내부 직원들의 업무 노하우를 축적시켜 이를 다른 병원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추후 사업화할 수 있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물류시장에서 모기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기업 제2자 물류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 병원에 최적화된 전문적인 물류관리 노

하우를 유지 및 발전시켜 병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상품화시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그림 2] 2016년 4월 이후 물류시스템 프로세스(분당서울대병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창고는 원내 배송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병원 주변에 마련하였다. 진료재료, 특수수술재료 창고 운영 및 물품 배송은 별도의 물류 전문기업에 위탁함으로써, 물류전문기업의 물류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기타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Ⅳ. 미군 의무물자 주공급자 제도

1. 의무물자(8종, 의약품, 외과·진료재료) 조달

주공급자 제도를 도입하고 24년이 지난 현재 미군의 의무물자는 DLA의 DLA Troop Support라는 기관에서 조달을 담당한다. 2010년 이전까지는 DSCP[17]로 불렸다. 2015년 이 기관에서 집행한 의무예산은 $6.3B에 이른다. 이 의무예산 중 육군은 $1.6B, 공군은 $968.6M, 해군은 $863M, 해병대는 $49M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DHA[18] Home Delivery'로서 $2.4B이다(DLA Troop Support, 2016).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의 86%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주공급자 제도와 전자 구매(ECAT)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기관에서는 군에서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무물자도 조달을 실시한다. 평시 의무물자 조달 형태는 크게 전자상거래, 장기

17) DSCP : Defense Supply Center, Philadelphia

18) DHA(Defense Health Agency) : 2013년 가을에 미군의 의료체계가 재구성될 때 창설된 군 의료체계 최상위 관리기구

계약, 전통적인 조달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의약품 주공급자, 진료/수술재료 주공급자, 전자 구매(ECAT)이 있고, 장기계약은 의무장비 조달(CEP), 우발사태시 계약이 있다. 전통적인 조달방법은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자 직납과 군 보급소에 물품을 저장 및 분배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DLA Troop Support는 의약품 조달간 전평시 안정적인 의무물자 공급을 위한 'Just-in-Time delivery', 'Purchase access not stock'이라는 전략을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표 1〉 2015년 DLA Troop Support 의무예산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계	$6.3B (100%)
의약품 주공급자	$4.688B (74%)
진료/수술재료 주공급자	$594M (9%)
의무장비 조달(CEP[19])	$356M (6%)
전통적인 의약품 조달	$234M (4%)
전통적인 진료/수술재료 조달	$147M (2%)
전자 구매(ECAT[20]) *주공급자 미취급 품목	$186M (3%)
병원 *DLA에서 지원하는 연방 정부 기관병원 및 군병원	$110M (2%)

'Just-in-Time delivery'은 소요가 발생한 곳에 적시에 보급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공급자 제도, 전자구매(ECAT), 의무장비 조달(CEP), 전통적인 계약자 직납, 전통적인 보급소 운영(붕대, 군용 드레싱셋, 군용 셋장비)과 같은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으며, 'Purchase access not stock'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공급자가 보관중인 재고, 생산자의 생산능력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34M를 투자하여 $770M에 해당하는 접근권을 확보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주공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대비 재고 확보', 'DLA 소유의 공급자 재고 확보',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우발상황을 고려한 민간업체와의 계약으로 전시 필요한 의무물자에 대한 신규 구입 비중은 1991년 걸프전 당시 92%(조관식, 2002), 2002년 38%(최수동·탁성환·김상호, 2002, p.85), 2016년 24%(DLA, 2016)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2. 주공급자(Prime Vend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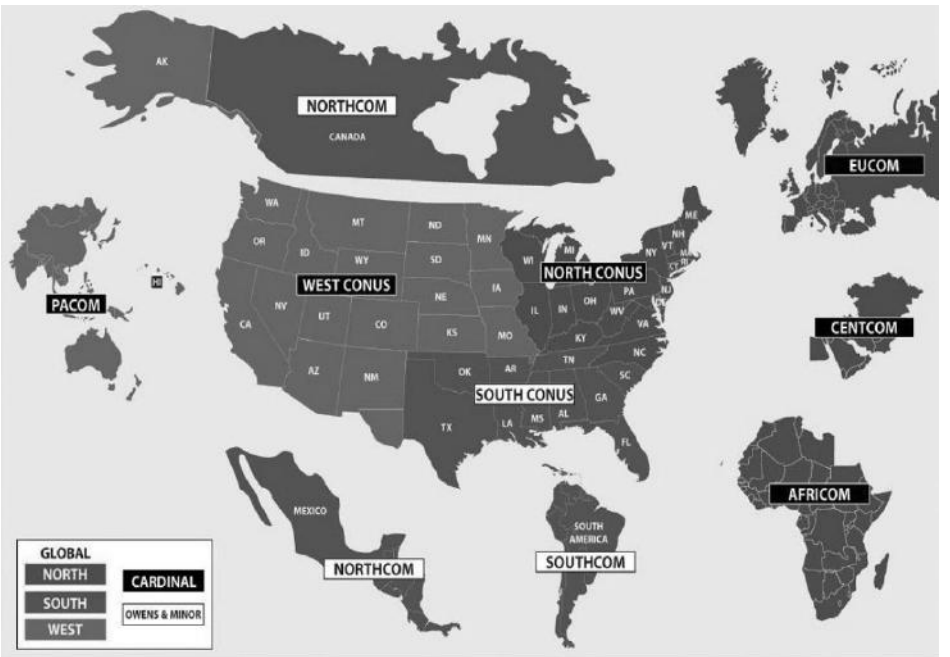
미군의 의무물자 주공급자는 현재 4세대이며, 지역별로 각각 주, 예비 주공급자를 선정하고, 이들 주, 예비 주공급자 이외에도 별도의 예비 주공급자를 선정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3세대 주공급자의 경우, 주(主) 주공급자는 Cardinal Health와 Owens & Minor 이며, 예비 주공급자는 AMD, MMS, Cardinal, Owens & Minor이었다. 4세대

19) CEP(Capital Equipment Program) : 5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주요 장비구매에 대한 계획, 관리에 적용

20) ECAT(Electronic Catalog System) : 주공급자 제도에서 미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각 부대별 부대구매로 인한 고단가 구입을 막기 위해 실시됨

주공급자는 3세대와 동일한 Cardinal Health와 Owens & Minor이며, [그림 3]에서 보듯이 Cardinal Health는 전 세계적으로 북부, 서부지역의 주(主) 주공급자, 남부 지역의 예비 주공급자이며, Owens & Minor는 전 세계적으로 남부지역의 주(主) 주공급자, 북부, 서부 지역의 예비 주공급자이다. 계약기간은 기본 20개월에, 20개월씩 2번 연장 가능하여 최대 5년이다(DLA Troop Support, 2011).

[그림 3] 미군의 4세대 의무물자 주공급자 지역



출처 : Bill Woltjen. (2011). "Medical & Surgical Prime Vendor". Philadelphia: DLA Troop Support. p.6 재인용

주공급자와의 계약에서 배송기간은 미국 국내는 일반적으로 1~2일, 국외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주문 후 7일 이내에 물자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주문 시설은 1개월 전에 예상주문 품목, 수량을 주공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예상 주문 수량의 110%를 넘는 수량에 대해서는 37일 안에 배송하면 되고, 과거 한 번도 주문한 적이 없는 품목은 90일 안에 배송을 실시하면 된다(Adam C. Resnick & William Welser Ⅳ & Keenan D. Yoho, 2014, p. 16).

3. 의무물자 보급체계

주공급자가 공급하는 품목 중 국내 보급의 경우 첫번째 배송지까지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 내에서 주공급자가 배송을 실시한다. 모든 의무시설과 일부 작전부대는 '고정 주문시설'로 지정이 되어 주공급자 및 전자구매(ECAT) 품목에 대해 주문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작전부대는 '고정 주문부대'에 부대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주문을 하고, 이 부대로 배송받아 자대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본토 밖의 부대는 모든 의무시설이 '고정 주문시설'로 지정되고, 나머지 부대들은 이 부대들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주문하고, 여기로 배송받아 자대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주공급자로부터 국외 여러 나라에 위치한 '고정 주문시설'까지의 배송은 미(美) 수송사령부와 민간 항공사 사이에 맺어진 'Cat A'[21] 계약에 의해 민간 항공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운임은 DLA가 항공사에 바로 지급한다. 2010년 국방부는 의무물자 조달간 $4.7B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16%인 $750M를 본토 밖 의무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였다. 이처럼 중간 보급계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송을 실시하고, 주공급업체를 포함한 민간 공급업체의 재고를 확보함으로써 군 저장시설에 보관해야만 했던 막대한 양의 재고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했다.

가. USCENTCOM 책임지역

미군의 의무물자(8종) 보급체계는 DLA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물자들의 보급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보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USCENTCOM 책임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의무물자는 USAMMC-SWA[22], USAMMCE[23], 주공급자를 통해 보급된다. USAMMC-SWA에는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3,000가지 정도의 품목들이 저장되고, 전체 보급량의 60% 정도가 이 분배소를 통해 보급되며, USAMMCE에서 재보급받는다. USAMMC-SWC에서 보급되지 않은 40%는 USAMMCE로 주문서가 전달되어 USAMMCE에서 곧바로 보급한다. USAMMCE에는 13,000가지 품목이 저장되며, 주공급자가 재보급을 실시한다. USAMMC는 USAMRMC[24] 예하부대로서, 독일 피르마센스에 위치한 USAMMCE,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USAMMC-

---

21) Cat A : Category A로서 주로 의무물자 수송시 적용되며, 첫번째 수령 목적지까지 배송한 물자의 무게(per pound)를 기준으로 운임을 책정하며, 국가별로 기준요금이 다름.

22) USAMMC-SWA : U.S. Army Medical Materiel Center, Southwest Asia, 카타르 Camp As Sayliyah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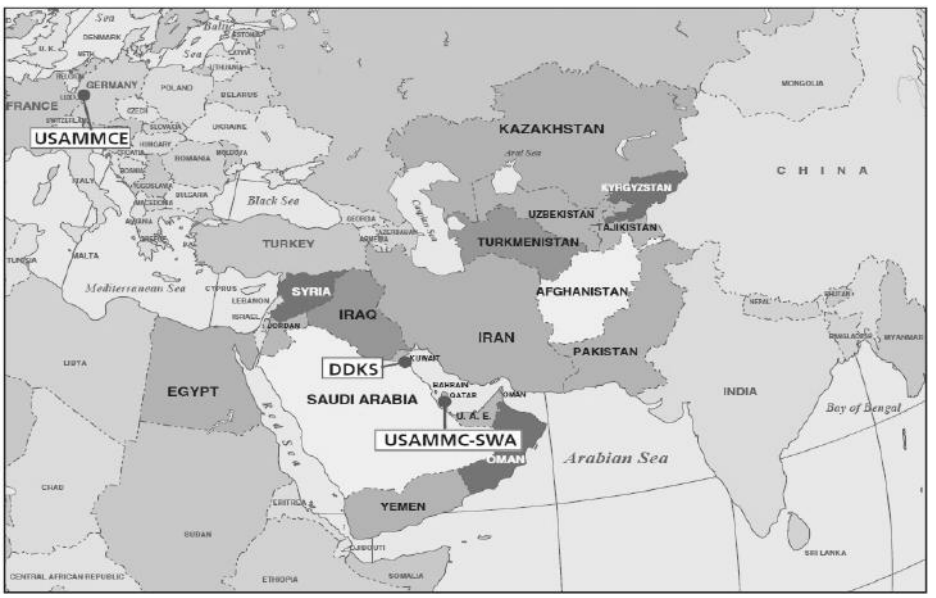
23) USAMMCE : U.S. Army Medical Materiel Center, Europe, 독일 Pirmasens에 위치함

24) USAMRMC(U.S. Army Medical Research and Materiel Command) : 미 육군 의무사령부(MEDCOM) 예하사령부로서 U.S. Army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mmand, U.S. Army Medical Materiel Agency, U.S. Army Health Facility Planning Agency가 통합되어 1994년에 창설됨

SWA, 한국 왜관에 위치한 USAMMC-K가 유지되고 있다.

의무물자를 제외한 다른 물자들은(2, 3, 4, 9종) DDKS[25], CONUS[26](주로 DDSP[27])를 거쳐 보급되며, 음식은 공급자에 의해 직납된다. DDKS는 DLA에서 관리하지만, 물품 공급 계약자 소유이며 이들에 의해 운영된다(William Welser Ⅳ, 2010).

[그림 4] USAMMCE, USAMMC-SWA, DDKS 위치



출처 : William Welser IV, Keenan D. Yoho, Marc Robbins 등. (2010). "Assessment of the USCENTCOM Medical Distribution Structrue". RAND ARROY CENTER. p.3 〈Figure 1.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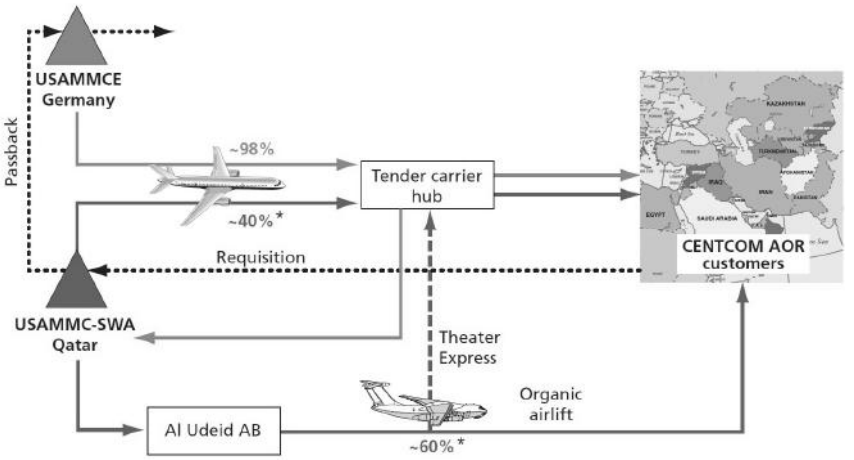
이라크, 아프카니스탄에 미군이 참전 중이었던 2009년 당시의 이 지역에 대한 의무물자 수송 구조를 살펴보면 USAMMCE에서 중부군 사령부 예하부대나 USAMMC-SWA까지의 수송은 98%이상이 민간 항공사를 이용했다. USAMMC-SWA에서 피지원부대로의 수송은 약 40%정도가 민간 항공사를 이용하고, 나머지 60%정도는 군용 항공기를 이용해서 수송했다.

25) DDKS : Defense Distribution Depot Kuwait, Southwest Asia

26) CONUS : continental U.S. distribution center로서 미 본토에 위치함

27) DDSP : Defense Distribution Depot Susquehanna, PA

[그림 5] 2009년 USAMMCE, USAMMC-SWC에 대한 수송 구조



출처 : William Welser IV, Keenan D. Yoho, Marc Robbins 등. (2010). "Assessment of the USCENTCOM Medical Distribution Structrue". RAND ARROY CENTER. p.43 〈Figure 3.1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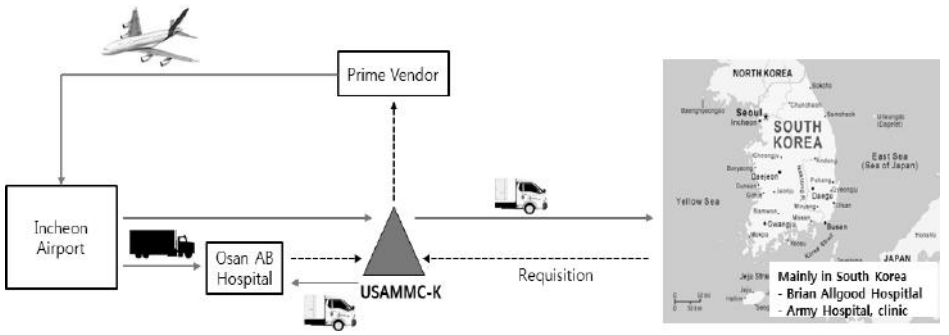
나. USPACOM 책임지역 / 한국

USCENTCOM 책임지역과 달리 USPACOM 책임지역은 주공급자로부터 의무시설까지 의무물자가 직접 배송된다. 하지만, 한국은 USPACOM 책임지역 중에서 예외적인 의무물자 보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으로 보급되는 대부분의 의무물자는 51의무단 소속의 오산 공군기지내에 있는 병원과 서울 용산구 육군 기지 내에 있는 Brian Allgood 병원에서 사용한다.

이 병원들은 주공급자(Prime Vendor)와 전자구매(ECAT) 공급자들로부터 곧바로 의무물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각 군 본부의 판단에 의해 실제 주공급자로부터 수령하는 물자의 양은 서로 다르다. 육군은 Brian Allgood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자는 USAMMC-K에 주문하고, USAMMC-K를 통해 받도록 했으며, 긴급히 필요한 물자는 USAMMC-K를 거치지 않고, 본토에서 바로 보급받도록 했다. 이는 차후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USAMMC-K의 지원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USAMMC-K의 전체 지원물량 중 Brian Allgood 병원 물량이 67%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USAMMC-K에서 Brian Allgood 병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물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주한 미(美) 육군에 대한 의무물자 보급 경로를 살펴보면 미국 서부에 있는 주공급자로부터 인천공항까지 민간 항공기를 통해 배송된 뒤, 차량을 이용하여 왜관에 위치한 USAMMC-K까지 갔다가 다시 역으로 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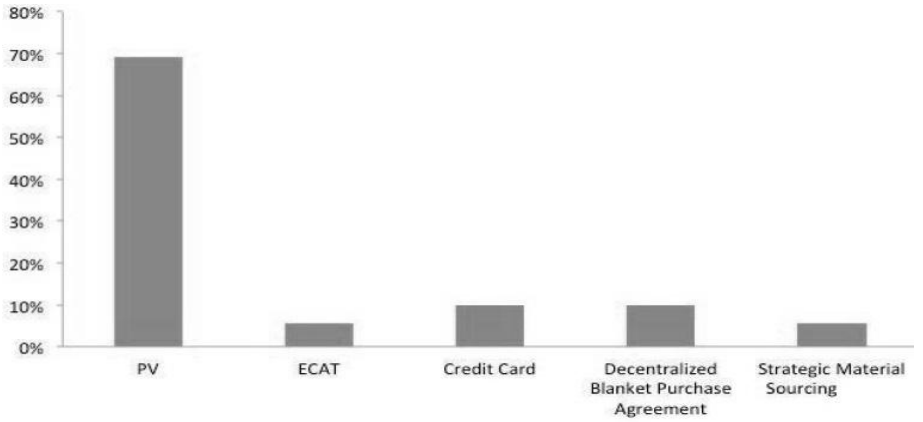
원병원 및 부대에 보급된다. 이와 반대로 오산 공군기지 병원은 대부분의 의무물자를 주공급자와 전자구매(ECAT) 공급자들로부터 곧바로 받으며, USAMMC-K에서는 일부만 받는다. 이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 병원은 발주 및 수송기간 7~37일을 고려해 충분한 재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육군부대의 의무시설, 병원은 USAMMC-K로 인한 발주 및 수송기간(1~2일)이 짧기 때문에 적은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Adam C. Resnick & William Welser Ⅳ & Keenan D. Yoho, 2014, p. 21). 대신 USAMMC-K는 30일분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6] 한국에 대한 USAMMC-K의 수송구조



USAMMC-K를 포함한 한국 내 다른 사용자들은 주공급자 제도, 전자구매(ECAT), 중앙조달 이외에도 신용카드 구매, 현지 공급자와의 개별 계약을 통한 부대구매를 이용해 일부 물자를 조달하고 있다. 미국 본토 밖에서 이처럼 다양한 조달방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본토 내에 비해 주공급자가 계약된 배송기간 내에 전달을 못하거나 전자구매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적기 때문이다.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USAMMC-K의 조달원별 물자비율을 살펴보면 주공급자 제도와 전자구매(ECAT) 비율이 75%에 달하는데, 이는 본토에 위치한 다른 기관의 약 80%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Adam C. Resnick & William Welser Ⅳ & Keenan D. Yoho, 2014, pp. 29-30).

[그림 7] 2010. 2 ~ 2011. 2 USAMMC-K의 구매현황



출처 : Adam C. Resnick, William Welser IV, Keenan D. Yoho. (2014). "Sourcing and Global Distribution of Medical Supplies". RAND ARROY CENTER. p.30 〈Figure 3.1〉 재인용

USAMMC-K는 우리나라의 민간 물류기업인 CJ와 계약을 맺어 일일단위로 한국내 미군병원, 각급부대 의무실까지 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美) 제2보병사단의 의무보급여단은 한국내 민간 수송수단과 자체 헬기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USAMMC-K에서 물자수령을 실시한다. 전시에는 현재 용산에 주둔중인 제65의무여단 소속의 의무보급중대들이 USAMMC-K에 배속되어 의무물자 배송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한 의무 비축물자를 USAMMA[28]와 APS[29]에 준비하여 유사시 신속한 전개와 의무물자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김은영, 2015).

다. IT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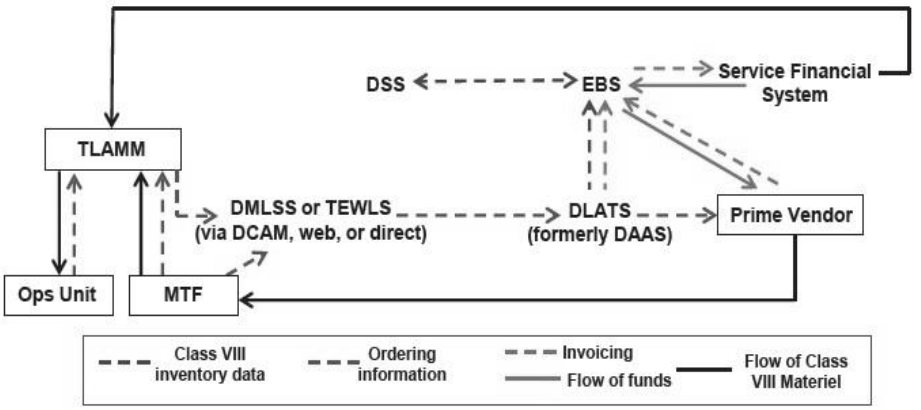
의무물자 조달 및 분배에 관련된 전반적인 IT 시스템을 요약하면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

28) USAMMA(U.S. Army Medical Materiel Agency) : USAMRMC 예하부대로 주로 의무물자 FMS(Foreign Military Sale)를 담당하며, 메릴랜드에 위치함

29) APS(Army Prepositioned Stock) : 사전 배치물자로서 APS-1은 CONUS에 위치하고, APS-3 사전 준비된 선박에 실려 있으며, APS-4는 한국 왜관의 USAMMC-K, 일본 사사미 Army Depot, 오키나와 Camp Kinser에 있고, APS-5는 카타르 도하의 USAMMC-SWC에 위치함

[그림 8] 의무물자 조달 및 분배에 관한 IT 시스템



출처 : Adam C. Resnick, William Welser IV, Keenan D. Yoho. (2014). "Sourcing and Global Distribution of Medical Supplies". RAND ARROY CENTER. p.3 〈Figure 1.1〉 재인용

DMLSS[30]와 TEWLS[31]은 모두 의무물자 조달 및 청구, 불출을 포함한 창고 재고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 지역내 TLAMM[32]과 의무시설에서 이 시스템들을 이용해 청구를 하면, DLATS[33]에서 관리하는 DAAS[34]를 통해 주공급자에게 주문정보가 전달된다. 주공급자 공급물자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면 주공급자와 DAAS에서 EBS[35]에 송장을 보내고, 이 송장을 근거로 각 군 재정 시스템에서 EBS를 통해 주공급자에게 금액을 정산한다. 각 청구부대의 물품의 청구, 불출 정보가 DAAS에 기록됨으로 유지되는 품목 재고에 관련한 데이터는 EBS로 보내지고, DSS[36]와 공유된다(Adam C. Resnick & William Welser Ⅳ & Keenan D. Yoho, 2014, p. 3).

30) DMLSS(Defense Medical Logistics Standard Support) : 국방 의무군수 표준지원 시스템

31) TEWLS(Theater Enterprise Wide Logistics System) : 전구 군수 시스템

32) TLAMM(Theater Lead Agent for Medical Material) : 전구 내 의무물자를 보급하는 최상위 부대

33) DLATS(Defense Logistics Agency Transaction Service) : DLA의 군수 시스템을 설계, 개발, 운용하는 부서이며, 국방부 예하의 여러 군수시스템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중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동일한 언어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유지함

34) DAAS(Defense Automatic Addressing System) : DLATS에서 운용하며, 국방부 예하 모든 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국방 군수 공급망에 접속할 수 있음

35) EBS(Enterprise Business System) : DLA의 재정 시스템

36) DSS(Distribution Standard System) : DLA의 창고관리 시스템

V. 군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 개선방안

우리 군의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는 2005년 군수개혁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되었다. 현재 주공급자제도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시행을, 의료기재류에 대해서는 시험적용, 품목확대를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전통적인 다단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군수변화의 커다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보완하고, 기존에 운영해오던 다단계 지원체계로 주공급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1. 선진 주공급자 제도의 세부 프로그램 확대적용

의약품 조달시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주공급자 제도는 미군이 의약품 조달시 사용한 'Just-in-Time delivery', 'Purchase access not stock'라는 두 가지 전략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나머지 세부 프로그램들이 같이 적용되어야 전평시 안정적인 의무물자 보급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 군은 기존의 다단계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지원속도 감소, 재고비용 증가, 소요 왜곡, 사용자 만족도 저하 등의 해결책으로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나머지 제도들은 도입하지 않았다. 우리 군이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에서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현재 미군들이 적용하고 있는 나머지 세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시를 대비한 주공급자의 별도 재고 유지, 주공급자 및 필수 비축물자 생산업체의 국방부 소유 재고 유지, 의약품 생산업체의 생산능력에 대한 우선 사용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 의약품 주공급자 전체 예산은 약 91억원으로 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의약품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업체는 평시 공급능력만을 보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시 공급능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연매출이 3,000억원이 넘는 대형 공급업체들을 의약품 주공급자로 선정하여 군을 위한 별도의 재고를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업체들이 보유한 재고에 대한 우선 사용권한을 특수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동원 대상업체 반영과 더불어 주공급자 제도 적용 품목에 대한 공급업체 재고,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주공급자 제도 예산 증액과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60조(장기계약)」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으로(길병옥, 2013, p.86) 주공급업체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

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다가 전시에 수요가 급증하는 압박붕대, 수액, 드레싱셋, 군용 의무물자 셋장비는 주공급자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중앙조달을 통해 군지사, 군수사 창고에 항시 안정적인 재고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달리 공급지역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2~3개로 분할하여 각 지역별로 주·예비 업체를 각각 선정하여 우발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2. 주공급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의 정립

현재 선정된 주공급자에 대한 관리는 반기 또는 연말 성과분석간 일부 사용부대 실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품목적절성을 파악하고, 배송이 지연된 품목 수량과 사유만 파악하는 실정이다. 미군은 주공급자에 대한 연간,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며, 사용자 만족도, 공급율, 가격 적정성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실시한다. 사용자 만족도 점검은 USAMMCE같은 중간 보급계통의 실무자들과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배송지연, 제품의 가격 변동, 공급자에 의한 취소품목 등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공급율 점검은 사용자들의 예상 청구량에 대한 주공급자의 공급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와 달리 미군의 주요 '고정 주문시설'들은 한 달 전에 다음 달의 예상 소요를 주공급자에게 제출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주공급자는 항상 90%이상의 공급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가격 적정성 검토는 주공급자가 사이트에 올려놓은 전자 카달로그의 품목별 가격에 대해 적절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상위 75%의 전 품목과 나머지 25%의 표본 품목에 대해 자체적인 가격 조사, 생산자 확인, 다른 업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품목별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월 30%에 해당하는 품목은 주공급자와 가격 재협상을 실시한다(Inspector General U.S. DOD, 2010). 우리 군은 최초 품목별 단가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이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기간동안 주문수량만큼의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이어서 중간에 품목 가격을 조정할 수 없고,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3. 전시를 대비한 의무물자 보급 부대의 완충능력 강화

주한 미군에 대한 평시 의무물자 보급체계에서 보았듯이, 미군은 미국 본토의 주공급자에 의해 주한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물자 보급이 가능하지만, 2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Adam C. Resnick & William Welser Ⅳ & Keenan D. Yoho, 2014, pp. 17)과 인천에서 왜관까지 거꾸로 이동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USAMMC-K를 통한 의무물자 보급

계통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급증하는 피지원부대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며, USAMMC-K를 통하지 않고 주공급자를 통해 직접 의무물자를 수령할 경우 오산 공군병원처럼 평시 재고량이 늘어나 부대이동을 자주 해야 하는 육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2009년 전쟁지역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에 대한 의무물자 지원이 USAMMCE, USAMMC-SWC를 통해 이루어진 것도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는 주공급자에 의한 직납이 급격한 수요변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공급자와 사용부대간에 완충부대를 둔 것이다. 재고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시스템을 운영하여 효율경영의 대명사로 알려진 도요타자동차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부품공장 폭발사고로 생산차질을 겪으며 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이수민, 2016) 이러한 완충부대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주공급자 제도를 실시하면서 그 동안 의무물자 보급의 완충부대 역할을 했던 다단계 보급지원 체계가 감축되고 민간 공급업체 및 생산업체의 재고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위기상황시 급증할 피지원부대의 수요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완충부대를 유지하면 재고비용이 발생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민간 대형병원의 재고관리에서 찾을 수 있다. 민간 대형병원의 의약품, 진료재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무물자는 병원 자산이 아닌 공급업체 자산이며, 공급업체에 의해 일일단위로 재보급된다. 공급업체는 인터넷 기반의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에 위탁보관중인 자산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병원은 창고에서 불출되는 품목별 수량에 대해 월단위로 정산을 실시해줌으로서 창고에 대한 공간만 제공하고 별도 재고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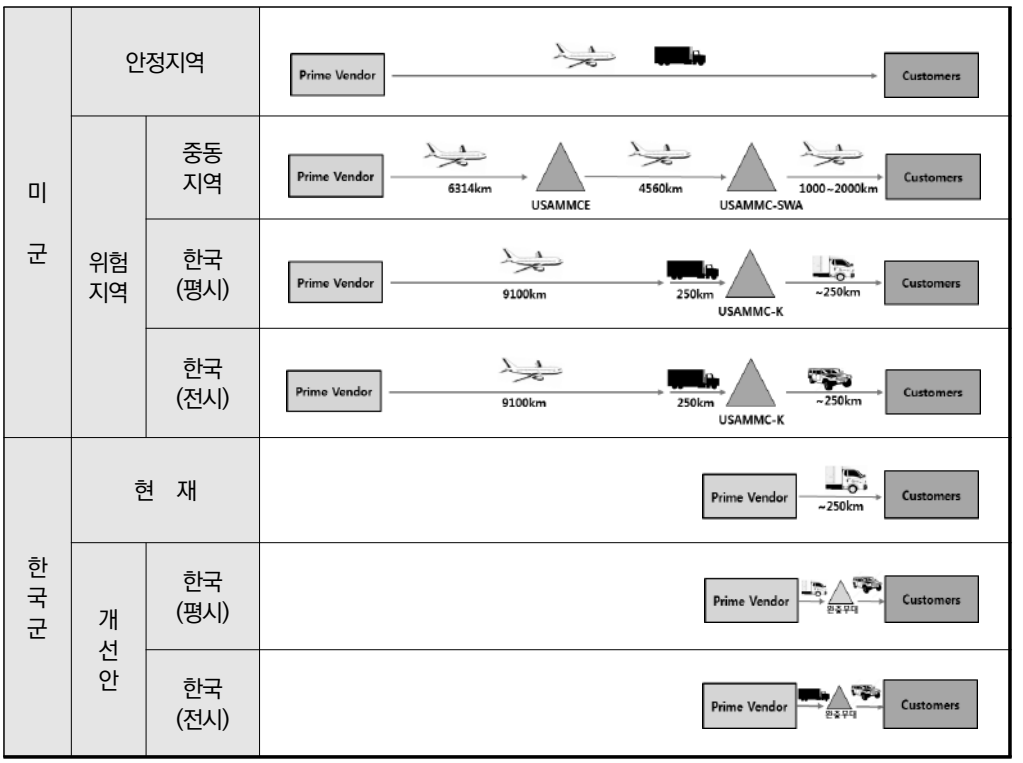
군지사, 군지단과 같은 중간 보급계통에 주공급자 소유의 의무물자를 30일분 정도 유지하도록 하고, 주공급자가 창고의 재고 수준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일 단위 품목별 재고 현황을 주공급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충은 주공급자가, 불출은 공간을 제공한 중간 보급계통 부대에서 실시하도록 하면 재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유사시를 대비한 완충부대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공급업체가 장기간 주공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안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로서 현재처럼 주공급자가 매년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시 이전 업체의 재고에 대한 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전시에는 중간 보급계통에 보관중인 민간 소유의 재고를 군 자산으로 전환하여 융통성 있는 보급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중간 보급계통뿐만 아니라 미래 군단 중심의 육군 부대구조 개편시 군단지원 군지단은 의무물자 주공급자의 최종 납지가 되고, 군지단 의무보급정비대는 이에 대한

저장, 배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예하 사단의무대 및 군 병원의 재고 증가를 막을 수 있고, 전시 급증하는 의무물자 수요와 보급로의 마비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미군, 한국군의 주공급자 제도 물자 흐름 및 한국군 개선안

: 주공급자 소유 : 군 소유



4. 주공급자 계약 특수조건의 개선

또한 주공급자 재고 및 생산자의 생산능력 확보, 주공급자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중간 보급계통 부대의 완충능력 강화와 더불어 주공급자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한다. 주공급자와의 관계는 계약문구에 의해 효력이 발휘되는 관계이므로, 위기상황시 의무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신뢰성 있고 합법적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별도 재고 유지, 전시 사용부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운반수단, 운반경로, 물량 등에 대해서 빈틈없는 문구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우리 군의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대기업 자회사 물류로 대표되는 물류시장의 변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의 물류 변화 및 미군의 의무물자 주공급자 제도 운영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주공급자 제도의 세부 프로그램을 우리 군의 주공급자 제도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주공급자 제도를 시행하며 전시를 대비한 주공급업체의 별도 재고 유지,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우선 사용권 확보, 필수 비축물자의 안정적인 재고 유지, 지원지역의 분할 및 지역별 주·예비 공급자 선정과 같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주공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주공급자가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파악, 주공급자의 공급 능력 유지를 위한 공급율 점검, 품목의 시장 가격 변동에 대응한 가격 적정성 검토가 월별,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시를 대비한 의무물자 보급 부대의 완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공급제도에 의한 재고 최소화는 평시 효율성은 향상시켰지만, 위기 상황시 피지원부대의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군의 USAMMCE, USAMMC-SWC, USAMMC-K 운영과 공급업체 소유의 재고를 창고에 보관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재고관리에서 효율적인 완충부대 운영을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주공급자와의 계약 특수조건을 보완해야 한다. 주공급자와의 관계는 지휘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한 법률적인 관계이므로, 위기상황시 안정적인 의무물자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의 여러 조건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공급업체와 장기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주공급자와의 계약 특수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의 물류변화와 우리와 환경 및 기반 여건이 다른 미군의 물류 사례를 통해 우리 군의 주공급자 제도를 논의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다른 조직과의 발전적인 비교는 현재보다 나은 미래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참 고 문 헌

강한철. (2013). “의료 관련 구매대행회사(Group Purchasing Organization)의 법적 문제”『서울법전』, 제20집 제3호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연구소.

국방부. (2017).「의약품 주공급자제도 업무지시」국지시 제17-002호

김은영. (2015). “Medical Materiel Supply System in USFK”.『OJT 성과보고서』. 국군의무사령부.

김종칠, 박동기. (2014). “국내 물류시장의 현황과 물류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0집 제3호 부산: 한국항만경제학회.

박종석.「병원물류 공동화를 위한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명지대산업경영공학과, 2016.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5)「병원물품조달시스템 구축(안)」.

손정우. (2016. 5. 2). “2PL 대세론, ‘왜’ 확산되나.”『물류신문』.

신동선. (2014). “의무물자 주공급자 제도 도입 성과와 과제.”『의무요람』, 30호.

신혜정,「중소 종합병원의 물류 구매 및 재고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소재 중소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오문갑. (2013. 12. 28). “중국 4자 물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관세학회지』, 제14권 4호 서울: 한국관세학회.

육군본부. (2012). 야전교범 3-0-1『군사용어사전』.

육군군수사령부 (2015)「2015년 의약품 주공급자 일시품절 및 품절해제품목 통보(17차)」.

육군군수사령부 (2017)「2017년 의약품 주공급자제도 계약결과 보고, 통보」

육군군수사령부 (2017).『2016년 주공급자 제도 운영 결과』.

이상근,「공동물류의 효과분석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 박사학위논문, 2011.

이수민, (2016. 4. 19). “지진에 실시간 생산시스템 타격..도요타 ‘효율 경영’ 또 시험대에”『서울경제신문』.

이종수, (2009).『행정학 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임기흥, (2007). “우리나라 제3자 물류업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1호 성남: (사)한국통상정보학회.

정희석. (2016. 7. 6). “‘초강수’의료기기협회, 공정위에 ‘이지메디컴’ 신고”『메디컬 타임즈』.

조관식. (2009). “국방물류혁신을 위한 주공급자 제도(Prime Vendor)의 한국군 적용방

안.”『주간국방논단』, 1284호.
최수동, 탁성환, 김상호,『IT 기술기반하의 통합자원관리체계 구축방안-주공급자 제도(Prime Vendor)의 한국군 적용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2.
길병옥.『효과적인 군수예산 집행을 위한 조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하정원,「AHP를 활용한 의료소모품의 구매방식 선정」,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Adam C. Resnick, William Welser Ⅳ, Keenan D. Yoho. (2014). “Sourcing and Global Distribution of Medical Supplies”. RAND ARROYO CENTER.
DLA Troop Support (2011). Medical & Surgical Prime Vendor, Bill Woltjen. (http://www.dtic.mil/ndia/2011DLA/TuesdayBDLATroopSupportMedicalSurgicalPrimeVendorProgram.pdf). (검색일 : 2016.8.20.)
DLA Troop Support (2016). DLA Troop Support Medical Supply Chain. http://www.ncmbc.us/docs/16MBB/ZOTOMAYOR.pdf. (검색일 : 2016. 9. 15).
DLA. (2016). AMSUS-SM Meeting 03 March 2016 Customer Pharmacy Operations Center (CPOC). http://www.amsus.org/wp-content/uploads/2014/05/AMSUS-Brief_Sweeney-03-March-2016-Final.pdf. (검색일 : 2016. 8. 14).
GAO. (1991). "DoD Medical Inventory : Reduction Can Be Made Through the Use of Commercial Practice"(NSIAD-92-58, Dec.5, 1991). GAO.
Inspector General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2010). "Medical/Surgical Prime Vendor Contract Supporting Coalition Forces in Iraq and Afghanistan" (D-2010-055, April. 29, 2010). Inspector General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William Welser Ⅳ. (2010). “Assessment of the USCENTCOM Medical Distribution Structure”, RAND ARROYO CENTER.

Limitation and Improvement of Military Medical Prime Vendor

Bae, Kyoung ki · Jo, Chang Lae

Keywords

Medical prime vendor, Logistic system, Army

From its inception, ROK military had a multi-level(4 or 5) logistic system based on US military logistic system, This logistic system has brought problems such as next solution. As ond of the solutions, the US military has introduced a 'Prime Vendor system' starting from medical supplies in 1993, and ROK military has also applied 'Medical Prime Vendor system' in 2008. After eight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ROK Prime Vendor system, this study has tried to examine limitations of this system such as instability of supply and lack of response to war, and trie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find improvement measure, we analyzed recent changes in the civil logistics system, including the transition from the Third party logistics(3PL) to the Second party logistics(2PL), which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of Bundang tried in 2016. In addition, we analyzed the entire system of the latest medical supplies of the US military including the USFK. Through this, we have found the following improvements. Such as maintaining extra stock of prime vendor for War time, securing priority of production capacity, strenghtening buffer capacity of medical supply units, and so on.

[논문투고일 : 2017. 07. 28]
[심사의뢰일 : 2017. 09. 08]
[게재확정일 : 2017. 09. 27]

국방연구 2017년 9월
제60권 제3호, pp. 119-143

군 조직 내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과 그 효과

노주영,* 손영우,** 정은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 론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군대의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그것이 군 생활과 갖는 관계를 확인하여 군 리더십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공군 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해 모델 적합성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주도적인 프로파일이 확인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도덕적 리더십 프로파일이었고 두 번째는 도덕적-자비로운 리더십 프로파일, 세 번째는 성숙한 도덕적-자비로운 리더십 프로파일, 네 번째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프로파일이었다. 각 프로파일은 군 생활에 있어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성숙한 도덕적-자비로운 리더십 프로파일이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였고 권위주의적 리더십 프로파일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군 리더십 교육에 있어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도덕적인 요소와 자비로운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가부장적 리더십, 잠재 프로파일 분석, 군 생활

* 공군소령.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Ⅰ. 서 론

리더십은 조직 내의 리더가 다른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1], 때로는 개인에게 영향을 끼쳐 헌신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또한, 리더십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적응에도 큰 영향을 준다[2].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좋은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변화를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게 했으며 변화에 대한 인지된 위협을 감소시켰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부하의 적응 과정에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써 리더십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군 조직의 리더십은 일반적인 조직의 리더십과는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군 조직이 갖는 독특성에 기인한다. 군 조직은 상하 및 동료 간 강한 연대의식과 일사불란한 명령체계, 계급적 권위주의의 특성을 갖고 있다[3]. 군 조직에서의 명령과 복종은 각자의 계급이라는 지위에 따라 이루어지고,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시 되는 집단 중심적 체제와 규율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수직적 계통과 상명하복 규율이 명확한 군대라는 조직은 일반 사회적 조직이나 기업조직과는 매우 다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이 사회 문화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공간에서 발휘되고[4] 문화적 요소가 리더십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5] 기존 일반 사회의 조직에서 연구된 리더십이 군고유의 문화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비상상황을 대비해 존재하는 군 조직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며 변화할 수 없는 본질적 요소 중 하나가 계급에 기반한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중심의 최근 리더십 이론들은 수평적 소통과 탈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군 조직에서 권위주의의 필수불가결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고려한 새로운 리더십 관점이 필요하다.

가부장적 리더십은 동양적 유교관을 바탕으로 Farh와 Cheng(2000)[6]에 의해 제시되었

---

1) House, R. J., & Aditya, R. 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leadership: Quo vadis?" *Journal of Management,* 23(1997), pp. 462-465.

2) Ben-Zur, H., Yagil, D., & Oz, D. "Coping strategies and leadership in the adaptation to social change: The Israeli kibbutz." *Anxiety, Stress & Coping,* Vol 18, No.2(2005), pp. 95-99.

3) 민진. "군대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 제3호(2011), pp. 116-118.

4) Dickson, M. W., Den Hartog, D. N., & Mitchelson, J. K. "Research on leadership in a cross-cultural context: Making progress, and raising new questions." *Leadership Quarterly,* 14 (2003), pp. 731-761.

5) Aktas, M., Gelfand, M. J., & Hanges, P. J. "Cultural Tightness-Looseness and Perceptions of Effective Leadership.",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47, No. 2(2016), pp. 294 -309.

으며, “아버지의 자비와 도덕적 청렴성이 강력한 권위와 규율과 결합된 리더십 형태”를 의미한다. 가부장적 리더십은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권위주의적 리더십, 자비로운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의 하위 세 수준으로 구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위계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부장적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가정한다는 점이다.7) 이러한 점에서 가부장적 리더십이 계층적이며 규칙 지향적인 조직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엄격하고 매우 다양한 위계적 관계가 공존하며 권위주의 요소가 필요한 군대라는 조직에서 가부장적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군 조직 리더십 개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리더십이 군 조직에서 어떤 패턴으로 주로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리더십 패턴들이 부하들의 군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부장적 리더십의 개념 및 프로파일

Silin(1976)과 Redding(1990)에 의해 대만의 리더십 개념과 행동이 서구의 경영자/관리자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Farh와 Cheng(2000)은 가부장적 리더십을 개인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한 원칙과 권위를 아버지와 같은 자비로움과 도덕적 완결성에 결합시킨 리더십 유형으로 정의하였다8). 이 정의에 따르면 가부장적 리더십은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자비로운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하위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된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절대 권위와 통제를 주장하고, 순종을 요구하며, 부하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지도자의 행동을 말한다. 자비로운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의 복지(가족 복지 포함)에 대한 개인적이고 전체적인 관심사를 보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도덕적인 리더십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억제하며, 모범으로 인도함으로써 탁월한 개인적인 덕목(예: 도덕적인 성격과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행동

---

6) Farh, Jiing-Lih, & Bor-Shiuan, Cheng. "A cultural analysis of paternalistic leadership in Chinese organizations." *Management and organizations in the Chinese context* (Palgrave Macmillan UK, 2000), pp. 84-127.

7) Pellegrini, E. K., Scandura, T. A., & Jayaraman, V.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of paternalistic leadership: An expansion of leader-member exchange theory.”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5(2010), pp. 391-420.

8) Farh, J. L., & Cheng, B. S.(2000), pp. 86-91.

으로 묘사된다.[9)]

가부장적 리더십이 정의된 이후 주로 대만과 중국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가부장적 리더십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heng, Chou, Wu, Huang, 그리고 Farh(2004)는 대만의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유형에 대한 반응을 비교해 보았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가부장적 리더십이 여전히 설명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직원의 권위에 대한 순응 정도가 조절 효과를 보임을 밝혔다.

Tang과 Naumann(2015)은 중국 호텔 47팀의 리더와 팀원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리더십이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자비로운 리더십과 도덕적 리더십이 조직 시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관계는 팀원들이 인지하는 LMX의 차이에 의해 조절되었다.[10)]

서구권에서도 가부장적 리더십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Aycan(2006)과 Pellegrini (2008) 등의 학자들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부장적 리더십을 정의하였다. Aycan은 그의 연구에서 서구권에서 가부장주의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1)]. Pellegrini는 가부장적 리더십에 대해 중동, 아시아 및 중남미와 같은 문화에서 널리 퍼져있으며 한정된 지역에서만 효과적이며, 서구의 문화에서는 자비로운 독재 혹은 은밀하고 교활한 차별의 형태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됨을 지적하였다.[12)]

가부장적 리더십에 대한 문화권에 따른 상반된 견해 속에서 국내의 가부장적 리더십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김재현과 진양호(2013)는 가부장적 리더십이 조직 동일시, 조직기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하위 구성 요소인 자비로운 리더십과 도덕적 리더십이 조직 동일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유의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조직기반 자아존중감에는 하위 세

---

9) Cheng, B. S., Chou, L. F., Wu, T. Y., Huang, M. P., & Farh, J. L. "Paternalistic Leadership And Subordinate Responses: Establishing A Leadership Model in Chinese Organization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7, No. 1(2004), pp. 91.

10) Tang, C., & Naumann, S. E. "Paternalistic leadership, subordinate perceived leader - member exchang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 Vol 21, No. 3(2015), pp. 299-301.

11) Aycan, Z. "Paternalism: towards conceptual refinement and operationalization. In: Yang KS, Hwang KK and Kim U (eds)" *Scientific Advances in Indigenous Psychologies: Empirical, Philosophical and Cultural Contrib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445-466.

12) Pellegrini E. K. & Scandura T. A. "Paternalistic leadership: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Vol 34, No. 3(2008), pp. 567.

리더십 모두가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3)]

왕환환과 김종관(2017)은 회사원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리더십과 자비로운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조직 동일시에는 모든 하위 리더십이 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직 동일시의 매개 효과에 대해서는 도덕적 리더십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14)]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가부장적 리더십의 하위 수준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더의 행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설명할 수는 없다.[15)] 이에 Farh, Liang, Chou, 그리고 Cheng(2008)[16)]은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파일 모델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했다. 여기서 구조적이라 함은 "공통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다차원적 배열"을 의미한다.[17)] 그들은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자비로운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을 높고 낮음에 따라 대문자 "A, B, C"와 소문자 "a, b, c"로 수준을 나누어 조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패턴이 뚜렷하고 이론적으로 분리되어 의미있는 가부장적 리더십 구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Farh와 동료들(2008)의 독립된 두 그룹의 중국 리더(학교장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실제적으로 나타난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은 주로 네 종류의 패턴으로 나타났다(ABC, AbC, aBC, abC).

2. 군대에 내재된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

중국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Farh와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 네가지 유형은 모두 높은 도덕성을 공통적 기초로 한다. 각 하위 수준의 리더십의 조합을 통해 여러 프로파일이 도출될 수 있음에도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프로파일만 확인된 이유는 무엇일까?

---

13) 김재현, 진양호. "가부장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 집단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과 인사", 『Tourism Research』 제 38권 제 2호(2013), pp. 116-117.

14) 왕환환, 김종관, "가장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조직 종일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 15권 제 2호(2017), pp. 150-151.

15) Tsui, A. S., Wang, H., Xin, K., Zhang, L. H., & Fu, P. P. "Let a thousand flowers bloom: Variation of leadership styles among Chinese CEOs." *Organizational Dynamics,* 33(2004), pp. 10.

16) Farh, J. L., Liang, J., Chou, L. F., & Cheng, B. S. (2008). "Paternalistic leadership in Chinese organizations: Research progres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Business leadership in China: Philosophies, theories, and practices(2008), 171205; Chou, W., Sibley, C. G., Liu, J. H., Lin, T., & Cheng, B. "Paternalistic Leadership Profiles: A Person-Centered Approach.",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Vol 40, No, 5(2015), pp. 689에서 재인용

17) Meyer, A. D., Tsui, A. S., & Hinnings, C. R. "Configurational approaches to organizational analysi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1993), pp. 1175-1195.

도덕성은 부하들의 잘못과 옳은 것을 구분하는 도덕적인 토대로서 작용한다. 또한 도덕성은 리더십 출현의 바탕이 된다.[18] 유교적 전통은 도덕적 성격과 개인적인 덕목을 강조하며,[19]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부하의 리더에 대한 도덕적인 특성 인식이 리더십 행동에 대한 정당성 평가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중국 사회에서 부도덕한 리더는 지도자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된다.[20] 따라서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도덕성은 이상적인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고, 낮은 도덕성을 나타내는 프로파일은 실제 분포에서 높은 도덕성을 갖는 프로파일에 비해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21] 또한 대만의 중대장의 리더십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을 분석한 Chou, Sibley, Liu, Lin, 그리고 Cheng(2015)[22]의 연구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갖는 리더십 프로파일이 분석 결과의 89.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유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직적 맥락은 다양한 패턴의 출현에 강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Farh와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공립 초등학교보다 사기업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군대는 계층적 구조에 대한 명확한 묘사와 공식적이고 엄격한 권위 구조가 있다. 군대는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조직으로 리더와 부하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조직과 비교해 볼 때, 군대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리더의 권위주의는 부하들에게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맥락에서 높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갖는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 패턴이 일반 사회 조직보다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높을 때 자비로운 리더십을 부하가 자비로운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점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바 있어,[23] 부하

---

18) Walumbwa, F. O., Avolio, B. J., Gardner, W. L., Wersing, T. S., & Peterson, S. J. "Authentic leadership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eory-based measure." *Journal of Management,* 34(2008), pp. 89-126.

19) Liu, J. H., Li, M. C., & Yue, X. D. "Chinese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The influence of benevolent authority." in M. H. Bond (Ed.). *Oxford handbook of Chinese psychology* (2nd ed.,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579-597.

20) Hwang, K. K. *Foundations of Chinese psychology: Confucian social relations* (New York, NY: Springer SBM. 2012) pp. 159-183

21) Niu, C. P. (2006). "Paternalistic leadership and its effectiveness: A scenario-based an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aipei City, Taiwan, ROC: National Taiwan University; Chou, W., Sibley, C. G., Liu, J. H., Lin, T., & Cheng, B.(2015), p. 690에서 재인용.

22) Chou, W., Sibley, C. G., Liu, J. H., Lin, T., & Cheng, B.(2015), p. 701.

23) Chou, W., Sibley, C. G., Liu, J. H., Lin, T., & Cheng(2015), p. 702.

들이 리더의 자비로운 리더십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동시에 높은 것으로 지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문화가 강한 군 조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교적인 사회문화와 고유의 조직 문화가 혼재한 군대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프로파일과 그 분포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군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가부장적 리더십의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리더십 프로파일의 분포 현황을 파악한다.

3. 군 생활과 리더십

리더십과 군 생활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군 생활 적응, 만족, 등의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와 분대수행, 교육훈련 성과 등 수행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연구는 군 생활 적응, 스트레스, 만족 등의 심리적 측면에 주안점을 둔 연구들이며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측면 중 군 생활 적응, 팔로워십, 리더에 대한 신뢰가 리더십 프로파일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군 생활 적응

Lazarus와 Folkman[24](1984)은 적응에 대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나가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환경과 조화롭게 순응하며 합리적으로 적용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과 요구가 환경과 분리되어 괴리되면 부적응이 되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Ben-Zur와 Yagil, 그리고 Oz(2005)에 의해 실시된 지역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평가 연구에 의하면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생활 방식의 주요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며 보다 나은 적응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25]

특히 군 조직은 "군대"라는 특수성과 "조직"이라는 일반성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조직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긍지 등이 강조되는 규범적인 조직이며,[26]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위계에 따라 권위가

24) Lazarus, R, 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Encyclopedia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Springer Pub, Co. 1984), pp. 21-30.

25) Ben-Zur, H., Yagil, D., & Oz, D.(2005), pp. 99-100.

26) 손지원. "군 입대 후 환경과 군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pp. 14-16.

부여되는 직위와 계급이 뚜렷한 조직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군 생활 적응은 일반 조직의 적응과는 다르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구희곤과 임수원(2011)[27]은 군 생활 적응을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는 것으로 "부여된 군대 임무에 대하여 사명감과 의무감, 희생정신을 가지며, 직책과 직무에 만족하고 군 조직의 규범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성현주(2014)는 군에서의 적응을 "급변한 군대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부여된 임무에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며, 군대에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28]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이대식, 서혜석, 변상해. 2016).[29]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군 생활 적응과 영향 요인에 의하면 군 생활 적응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받아들이며 적응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Ben-Zur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자원으로서 리더십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더십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며, Conger(1990)가 실시한 리더십의 부정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에서는 반대로 리더가 부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0] 이처럼 리더십이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하가 인지하는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에 따라 부하들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나. 팔로워십

1988년 Kelly가 '팔로워십의 힘'을 발표함으로서 팔로워십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Kelly는 팔로워십에 대해 "리더와 함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판적인 사고와 능동적 참여로 수행하는 과정이다"로 정의하였으며 이 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

27) 구희곤,·임수원. "군 병사의 스포츠참여와 집단응집성, 군 생활 적응성, 조직효과성 간의 인과모형", 『한국체육학회지』, 제 50권 제 5호(2011), pp. 297-307.

28) 성현주. "군생활 스트레스와 상담욕구가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p. 45.

29) 이대식, 서혜석, 변상해. "육군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 자살생각이 군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한국군사회복지학』 제 9권 제 1호(2016) pp. 5-31.

30) Conger, J. A. "The dark side of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1990), pp. 45-49.

정의되었다.[31]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리더십이 팔로워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최영표, 권재환, 김경종, 그리고 박종민(2013)의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팔로워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32] 이종길과 이도화(2016)의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팔로워십을 통해 군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 등이 있다.[33] 이들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팔로워십에 대해 촉진 효과를 갖는 반면 거래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의 경우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홍은결(2012)의 변혁적 리더십이 팔로워십에 미치는 효과[34]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은 팔로워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연구 결과는 리더십에 따라 부하들의 팔로워십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볼 가부장적 리더십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팔로워십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 리더에 대한 신뢰

Nyhan과 Marlowe(1997)에 의하면, 신뢰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수준이며 공정하고 도덕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뜻한다.[35] 신뢰는 다차원 구조로 조직 간 신뢰, 정치적 신뢰, 사회적 신뢰, 조직에 대한 신뢰, 상사와 부하간의 신뢰 등 다양한 구조를 갖는다.

리더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신뢰를 창출하고 유지한다. 즉 자신의 의사소통 및 부하를 지지하는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Woolston(2001)의 연구에 의하면 리더에 의한 문화적 규율의 보전이 새로운 학부장에 대한 교수진의 신뢰를 창출했다.[36] 서준호와 윤위석(2003)이 리더십 유형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리더십은 유형에 따라 계산 기반 신뢰, 지식 기반 신뢰, 동일시 기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달랐다.[37] 박찬욱과

---

31) Kelley, R. E. "In praise of followers." *Harvard Business* (Review case service, 1988) pp. 1-8.

32) 최영표, 권재환, 김경종, 박종민.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팔로워십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인문학회』 제 24호(2013) p. 380.

33) 이종길, 이도화.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팔로워십을 통해 군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제 38권 제 2호(2016), pp. 42-43.

34) 홍은결. "팔로워십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변혁적 리더십, 지각된 조직지원. 이기주의, 과업복잡성의 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pp. 40.

35) Nyhan, R.C. & Marlowe, H.A.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 *Evaluation Review*, Vol 21, No. 5(1997), pp. 614-35.

36) Woolston, R.L. 20002 "Faculty perceptions of dean transitions: does trust matt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UMI No. 3007300; Joseph, E. E., & Winston, B. E. "A correlation of servant leadership, leader trust, and organizational trust"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Vol 26, No. 1(2005), p. 7에서 재인용

황호성, 그리고 조아라(2016)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혁적 리더십이 관리자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리더십 활동이 높을수록 부하의 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MaKenzie, Philip, 그리고 Gregory(2001)[39]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관리자에 대한 신뢰에 대해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에 비해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리더십이 부하의 리더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며, 리더십 유형에 따라 그 영향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에 따라 리더에 대한 신뢰 수준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 부하들이 인지하는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에 따라 어떤 군 생활 특성을 갖는지 알아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부하들이 인지하는 상관의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 유형을 확인하고, 그것이 군 생활 적응과 맺는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약 10일에 걸쳐 총 660부를 배포하여 626부를 회수하였으나,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8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598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표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신분은 병사가 59.2%(354명), 부사관이 31.4%(188명), 장교가 9.2%(55명)으로 피라미드식 구조를 갖는 군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입대 후 복무기간은 24개월 이하가 66.9%(4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5개월에서 120개월이 20.6%(120명), 121

37) 서준호, 윤위석. “리더십 유형이 신뢰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 13권, 제 2호(2003), pp. 41-67.

38) 박찬욱, 황호성, 조아라. “영업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영업사원의 조직몰입 및 관리자신뢰에 미치는 영향: 영업유형 및 영업사원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마케팅관리연구』, 제 21권 제 2호(2016), p. 17.

39) MacKenzie, Scott B., Philip M. Podsakoff, & Gregory A. Rich.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Salesperson Performanc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29, No. 2(2001), pp. 115-134.

개월에서 240개월이 3.5%(21명), 241개월 이상이 4.0%(24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매우 다양한 위계관계가 혼재되어 있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병사 이외에도 부사관, 장교 또한 직속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군에 내재된 리더십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군 생활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탐색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성	583	97.5
	여성	15	2.5
신분	병사	354	59.2
	부사관	188	31.4
	장교	55	9.2
연령	19세 ~ 29세	497	83.1
	30세 ~ 39세	71	11.9
	40세 이상	30	5.0
학력	고등학교 졸업	362	60.5
	전문대 졸업	81	13.5
	대학 졸업	136	22.7
	대학원 졸업 이상	4	0.7
	기타	15	2.5
입대 후 복무기간	1개월 ~ 24개월	400	66.9
	25개월 ~ 120개월	123	20.6
	121개월 ~ 240개월	21	3.5
	241개월 이상	24	4.0

2. 연구도구

가. 가부장적 리더십 측정도구

가부장적 리더십 측정도구는 Farh와 Cheng(2000)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다. 가부장적 리더십은 도덕적, 권위주의적, 자비로운 리더십의 하위 요소를 가진 다차원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후속 연구에 의해 측정도구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40] 본 연

40) Wu, M., Huang, X., Li, C., & Liu, W. "Perceived interactional justice and trust-in-supervisor as mediators for paternalistic leadership"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8(2001), pp. 97-121; Chen, X. P., Eberly, M. B., Chiang, T. J., Farh, J. L., & Cheng, B. S. "Affective trust in

구에서는 Cheng, Chou, Wu, Huang, 그리고 Farh(2004)[41]에서 수정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42] 모든 설문 문항은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리커트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리더십으로 '나의 상관은 개인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지 않는다.' 문항을 포함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870으로 나타났다.

둘째,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나의 상관은 부하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시행한다.' 문항을 포함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912로 나타났다.

셋째, 자비로운 리더십으로 '나의 상관은 내게 힘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격려해준다.' 문항을 포함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950으로 나타났다.

나. 군 생활 적응

군 생활 적응은 장병들이 병영생활 속에서 생활관 생활, 임무수행 의지, 직무와 직책, 군 조직 환경이라는 영역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 장병의 군 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구승신(2004)[43]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장경숙(2008)[4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만 설문 문항 중 군의 정책과 맞지 않는 한 개의 문항은 제외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척도는

첫째, 심신의 상태로 '요즘 신체적 건강상태는 아주 좋다.' 문항을 포함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797로 나타났다.

둘째, 임무수행 의지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다면 의무기간 이상이라도 복무연장 하겠다.' 문항을 포함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882로 나타났다.

셋째, 직책과 직무만족으로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을 포함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828로 나타났다.

Chinese leaders: Linking paternalistic leadership to employee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40(2001), pp. 796-819.

41) Cheng, B. S., Chou, L. F., Wu, T. Y., Huang, M. P., & Farh, J. L(2004), p. 115.

42) 전문가에게 번안 의뢰 후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의뢰하여 재번안하는 과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43) 구승신. "신세대 병사의 군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 36-37, 111.

44) 장경숙. "신세대 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pp. 38-40, 79-80.

넷째, 조직 환경만족으로 '우리 부대 훈련정도와 군기상태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문항을 포함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934로 나타났다.

다. 팔로워십

팔로워십은 Colangelo(200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영현과 정범구(2004)가 제시한 비판적 사고, 능동적 참여, 목표일치성 지각, 팀정신의 4가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강국(2015)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대로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긍정적이면서 바람직한 부하특성으로 팀 정신과 능동적 참여를 발췌하여 측정하였다.[45] 능동적 참여란 "부하들의 업무 적극성, 헌신적 업무추진 및 노력의 정도, 부하의 목표와 지휘관 목표의 조화"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900으로 나타났다. 팀 정신이란 "지휘관의 부하 신뢰와 업무위임의 정도, 부하들의 솔선수범 및 헌신의 정도, 군 조직의 제한사항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5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α=.900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는 이강국의 연구에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라. 리더에 대한 신뢰

리더에 대한 신뢰는 제재기반, 지식기반, 상대와 동일시를 측정한다. 제재기반 대한 신뢰란 "조직 내에서 정해진 규율을 어겼을 때 가해지는 징계나 제재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한 신뢰"를 말하며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785로 나타났다. 지식기반 신뢰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상대방의 행동에 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한 신뢰"를 말하며 총 3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α=.842로 나타났다. 상대와 동일시에 기반한 신뢰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넘어선 상대방의 욕구에 대해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신뢰"를 의미하며 총 3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α=.896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는 Bass와 Avilio(1990)[46]가 개발한 항목을 구자용(2016)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한다.[47]

---

45) 이강국. "육군 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부하특성의 조절효과" 서울벤처개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pp. 76-79.

46) Bass, B. M. & Avolio, B. J.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evelopment: Manual for the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0), pp, 41-42.

47) 구자용. "군 지휘관의 리더십 유형이 부하 신뢰, 충성도,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p. 49.

3. 자료분석방법

장병들이 인지하는 리더십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그것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 및 절차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가부장적 리더십을 측정하여 장병들이 인지하는 프로파일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 중,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리더십 프로파일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고, 구분된 프로파일의 특징을 파악하여 유형화하였다. 이 때, 분석도구로 Mplus 6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 잠재프로파일분석에 따라 구분된 집단을 선행연구를 통해 적절한 프로파일로 분류 및 확정짓는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인 결과를 통해 도출된 집단의 수를 관찰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론적 의미와 구조적인 해석 가능성에 기반하여 최종 집단을 선택하였다.[48]

세 번째, 잠재프로파일분석에 따라 선정된 잠재집단이 나타내는 군 생활 지표가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를 활용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부하의 군 생활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장 뛰어난 리더십 프로파일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잠재집단의 수 선정

부하들이 인지하는 가부장적 리더십의 패턴에 따라 내재된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Mplus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과정은 잠재 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며 모형 적합도와 관련된 지수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피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수 중 본 연구에서는 BIC, saBIC, 엔트로피(Entropy)를 사용하였다. 정보기반 지수 중 하나인 BIC의 경우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믿을 만한 지수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saBIC는 표본 크기를 보정한 지수이다.

---

48) Muthén, B. "Beyond SEM: General latent variable modeling" *Behaviormetrika*, 29(2002), pp. 81-117.

BIC와 saBIC는 더 작은 값이 더 많은 차이가 설명되었음을 시사하며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집단분류의 확실성에 관한 지수인 엔트로피 값의 범위는 0에서 1.0까지이며, 높은 값을 갖는 모형이 개선된 예측을 나타낸다. 이 지수들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잠재 집단의 비율이 1%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49]

〈표 2〉 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모 형	BIC	saBIC	Entropy	잠재계층 분류율					
				1	2	3	4	5	6
2class	11697.250	11598.833	0.898	0.564	0.436				
3class	11103.155	10963.468	0.904	0.129	0.453	0.419			
4class	10752.879	10571.920	0.925	0.064	0.443	0.368	0.125		
5class	10574.850	10352.575	0.914	0.077	0.303	0.138	0.358	0.125	
6class	10398.691	10135.190	0.923	0.136	0.078	0.360	0.297	0.125	0.003

〈표 2〉는 모형의 수가 2개에서 6개로 증가할 때 나타나는 모델 적합도 지수를 나타낸다. 먼저 BIC와 saBIC는 모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어지며, 엔트로피 값은 모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지만 5개의 모형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잠재집단의 수가 4개인 모형에서 가장 높은 엔트로피 값을 가지며, 해석 가능성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우수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잠재집단을 가진 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2.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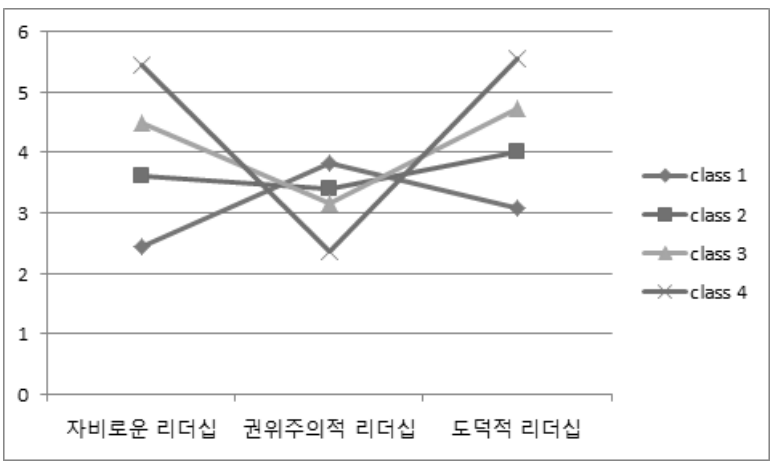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선정된 잠재집단의 하위 지표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명명하기 위한 프로파일의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49) 권재기.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역할자 분석-잠재프로파일 탐색, 특성예측 및 종단적 변화양상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제 45권(2014), pp. 191-227.

〈표 3〉 잠재집단 프로파일의 특성

		하위 구성요소의 특성			
		Estimate	S.E	Est'/S.E	P-Value
권위주의적 리더십	자비로운 리더십	2.438	0.187	13.025	0.00
	도덕적 리더십	3.086	0.253	12.223	0.00
	권위주의적 리더십	3.830	0.271	14.137	0.00
도덕적 리더십	자비로운 리더십	3.626	0.051	71.753	0.00
	도덕적 리더십	4.005	0.052	77.236	0.00
	권위주의적 리더십	3.391	0.056	60.833	0.00
도덕적-자비로운 리더십	자비로운 리더십	4.503	0.051	88.541	0.00
	도덕적 리더십	4.738	0.054	87.280	0.00
	권위주의적 리더십	3.158	0.074	42.666	0.00
성숙한 도덕적 -자비로운 리더십	자비로운 리더십	5.456	0.073	75.177	0.00
	도덕적 리더십	5.557	0.079	70.633	0.00
	권위주의적 리더십	2.359	0.144	16.343	0.00

[그림 1] 하위 지표에 따른 잠재집단 프로파일



[그림 1]에서 class1은 전체의 6.4%에 해당하며 세 개의 하위 구성요소 중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평균(3.83)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특히 자비로운 리더십의 평균(2.438)이 2 미만으로 다른 집단의 평균이 3 이상인 것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다. 도덕적 리더십의 평균(3.086) 또한 다른 집단의 평균이 4 이상인 것에 비해 낮아 '권위주의적 리더십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class2는 '도덕적 리더십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4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class2는, 자비로운 리더십은 3.626, 권위주의적 리더십 3.391, 도덕적 리더십 4.005의 평균을 갖고 있다. 자비로운 리더십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모두 평균 3이며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비해 도덕적 리더십의 경우 평균 4이상을 나타내어 '도덕적 리더십 집단'이라 하였다.

class3은 전체 36.8%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자비로운 리더십의 평균(4.503)과 도덕적 리더십의 평균(4.738)이 모두 평균 4를 넘긴 반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평균(3.158)은 4 미만인 집단이다.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평균이 낮고 나머지 두 리더십의 평균이 유사하여 '도덕적-자비로운 리더십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class4는 전체의 12.5%를 차지하며 자비로운 리더십(5.456)과 도덕적 리더십(5.557)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집단으로 class3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권위주의적 리더십(2.359)은 더 낮은 평균값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 자비로운 리더십과 도덕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조직 동일시와 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반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class3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도덕적 리더십과 자비로운 리더십에서 평균값이 높으며 권위주의적 리더십 평균값이 낮은 class4를 '성숙한 도덕적-자비로운 리더십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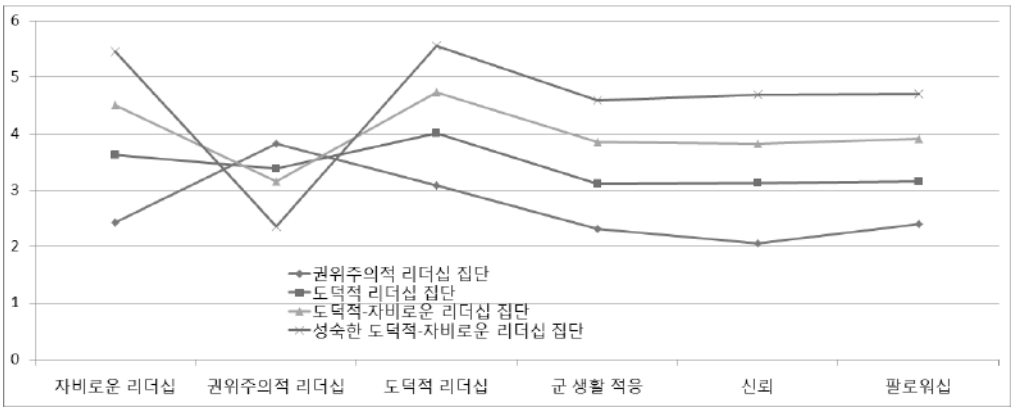
3. 잠재집단별 군 생활 관련 프로파일

잠재집단별 군 생활 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와 프로파일을 〈표 4〉,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 잠재집단 군 생활 특성의 기술통계

	군 생활 적응		리더에 대한 신뢰		팔로워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권위주의적 리더십	2.320	.773	2.061	1.065	2.268	1.098
도덕적 리더십	3.116	.457	3.128	.522	3.094	.483
도덕적-자비로운 리더십	3.856	.565	3.825	.565	3.928	.458
성숙한 도덕적 -자비로운 리더십	4.593	.456	4.697	.404	4.713	.423

[그림 2] 잠재집단별 군 생활 관련 프로파일



〈표 4〉는 각 잠재집단 별 군 생활 적응, 리더에 대한 신뢰, 팔로워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2]는 각 프로파일과 군 생활 특성과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4〉와 [그림 2]에 의하면 권위주의적 리더십 집단은 군 생활 적응, 리더에 대한 신뢰, 팔로워십의 모든 군 생활 관련 특성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성숙한 도덕적-자비로운 리더십 집단은 모든 특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군 생활 적응과 리더에 대한 신뢰, 팔로워십의 모든 특성들이 높을수록 군 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변수임을 생각해볼 때 성숙한 도덕적-자비로운 리더십 프로파일이 가장 우수한 프로파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가장 높은 권위주의적 리더십 집단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인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상하 간의 일사불란한 명령체계, 계급적 권위주의의 특성을 갖는 군 조직의 특수성이 리더십을 통한 군 생활 관련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면, 성숙한 도덕적-자비로운 리더십 프로파일에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 것은 기존의 학교 혹은 일반 기업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도덕적 리더십과 자비로운 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V. 결 론

1. 연구의 시사점

잠재 프로파일 접근법을 통해 군에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4개의 프로파일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 구조적인 접근법을 통해 높은 도덕성을 갖는 프로파일이 군에 보편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44.3%). 도덕적 리더십과 자비로운 리더십이 결합된 프로파일은 패턴이 유사하지만 평균값은 다른 두 개의 프로파일로 확인되었으며, 그 평균값의 차이에 따라 '성숙한' 프로파일과 그렇지 않은 프로파일로 구분하였다. 이 프로파일들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한층 우수한 리더십 유형으로 부하들에게 인정을 베풀며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는다. 특히 다른 두 프로파일들에 비해 군 생활 특성에서 높은 수준의 평균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 효과적인 가부장적 리더십 프로파일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이상의 세 리더십 프로파일은 높은 도덕적 리더십 특성을 공유하며 전체의 93.6%를 차지한다. 이러한 분포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리더의 도덕적 성격을 강조하며 부도덕한 리더는 리더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게 분포하는 프로파일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가장 높고 나머지 두 리더십은 낮았다(6.4%). 이 프로파일은 권위주의적 특징을 갖는 군에서도 군 생활 특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들을 보였다.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의 경우 부하들에게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정서를 조화시키는 것에 어려울 수 있으며, Farh와 Cheng (2000)이 언급했듯이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군이라는 조직은 일반적 사회 조직과는 달리 비상 상황이라는 극단적인 순간에는 단순한 명령 복종뿐만 아니라 부하의 목숨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부하의 리더에 대한 신뢰이며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서 부하의 팔로워십은 효율적인 임무 수행과 승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평시 리더의 부하들에 대한 인적 관리에 있어 군 생활 적응이라는 요소는 무형의 전력 손실을 막고 최상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성숙한 도덕적-자비로운 리더십' 프로파일의 군 생활 특성과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다른 프로파일들이 평균적으로 4점 미만인 것에 반해 평균 4.5 이상의 높은 값을 가지며 월등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군 리더십 교육에서 리더가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부하들을 배려하고 사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주는 자비로운 리더십 행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또한 권위주의적 특성이 강한 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행동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공군을 대상으로 표본을 모집하였기에 표본의 대표성이 제한되며 탐색적 차원의 연구 목표를 설정했기에 인과관계 증명이나 리더십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표본을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은 점 또한 한계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표본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군의 한 비행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조직 구성이 다른 육군이나 해군 등 다양한 군 조직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한 시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단적인 연구는 현재 잠재집단의 분포뿐만 아니라 분포의 변화와 변화를 야기한 원인, 그에 따른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

셋째, 다양한 결과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한 수행 지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군 조직 외의 일반 사회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교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제안된 가부장적 리더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활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군 조직과 일반 사회 조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 문화를 가진 여러 조직에서 가부장적 리더십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직 문화에 따른 비교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구승신. “신세대 병사의 군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구자용. “군 지휘관의 리더십 유형이 부하 신뢰, 충성도,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구희곤·임수원. “군 병사의 스포츠참여와 집단응집성, 군 생활 적응성, 조직효과성 간의 인과모형”, 'N『한국체육학회지』,'N제 50권 제 5호(2011).

권재기.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역할자 분석-잠재프로파일 탐색, 특성예측 및 종단적 변화양상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제 45권(2014).

김재현·진양호. “가부장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 집단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과 인사”, 『Tourism Research』 제 38권 제 2호(2013).

민진. “군대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 제3호(2011).

박찬욱·황호성·조아라. “영업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영업사원의 조직몰입 및 관리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 영업유형 및 영업사원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마케팅관리연구』, 제 21권 제 2호(2016).

서준호·윤위석. “리더십 유형이 신뢰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 13권, 제 2호(2003).

성현주. “군생활 스트레스와 상담욕구가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손지원. “군 입대 후 환경과 군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왕환환·김종관, “ 가장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조직 종일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 15권 제 2호(2017).

이강국. “육군 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부하특성의 조절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이대식·서혜석·변상해. “육군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 자살생각이 군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한국군사회복지학』 제 9권 제 1호(2016).

이종길·이도화.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팔로워십을 통해 군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제 38권 제 2호(2016).

장경숙. “신세대 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최영표·권재환·김경종·박종민.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팔로워십과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인문학회』 제 24호(2013).
홍은결. “팔로워십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변혁적 리더십, 지각된 조직지원. 이기주의, 과업복잡성의 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Aktas, M., Gelfand, M. J., and Hanges, P. J. “Cultural Tightness-Looseness and Perceptions of Effective Leadership.”,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47, No. 2(2016).
Aycan, Z. “Paternalism: towards conceptual refinement and operationalization. In: Yang KS, Hwang KK and Kim U (eds)” *Scientific Advances in Indigenous Psychologies: Empirical, Philosophical and Cultural Contrib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Bass, B. M. & Avolio, B. J.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evelopment: Manual for the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0).
Ben-Zur, H., Yagil, D., and Oz, D. “Coping strategies and leadership in the adaptation to social change: The Israeli kibbutz.” *Anxiety, Stress & Coping,* Vol 18, No.2(2005).
Cheng, B. S., Chou, L. F., Wu, T. Y., Huang, M. P., and Farh, J. L. “Paternalistic Leadership And Subordinate Responses: Establishing A Leadership Model in Chinese Organization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7, No. 1(2004).
Chen, X. P., Eberly, M. B., Chiang, T. J., Farh, J. L., and Cheng, B. S. “Affective trust in Chinese leaders: Linking paternalistic leadership to employee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40(2001).
Chou, W., Sibley, C. G., Liu, J. H., Lin, T., and Cheng, B. “Paternalistic Leadership Profiles: A Person-Centered Approach.”,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Vol. 40, No. 5(2015).
Conger, J. A. “The dark side of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 (1990).
Dickson, M. W., Den Hartog, D. N., and Mitchelson, J. K. “Research on leadership in a cross-cultural context: Making progress, and raising new questions.” *Leadership Quarterly*, 14(2003).

Farh, Jiing-Lih, & Bor-Shiuan, Cheng. "A cultural analysis of paternalistic leadership in Chinese organizations." *Management and organizations in the Chinese context*(Palgrave Macmillan UK, 2000).

Farh, J. L., Liang, J., Chou, L. F., and Cheng, B. S. (2008). "Paternalistic leadership in Chinese organizations: Research progres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Business leadership in China: Philosophies, theories, and practices*(2008).

House, R. J., & Aditya, R. 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leadership: Quo vadis?" *Journal of Management*, 23(1997).

Pellegrini E. K. & Scandura T. A. "Paternalistic leadership: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Vol. 34, No. 3 (2008).

Hwang, K. K. "Foundations of Chinese psychology" *Confucian social relations* (New York, NY: Springer SBM. 2012).

Joseph, E. E., & Winston, B. E. "A correlation of servant leadership, leader trust, and organizational trust"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Vol 26, No. 1(2005).

Kelley, R. E. "In praise of followers." *Harvard Business* (Review case service, 1988).

Lazarus, R, 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Encyclopedia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Springer Pub, Co. 1984).

Liu, J. H., Li, M. C., & Yue, X. D. "Chinese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The influence of benevolent authority." *in M. H. Bond (Ed.). Oxford handbook of Chinese psychology*(2nd ed.,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MacKenzie, Scott B., Philip M. Podsakoff, & Gregory A. Rich.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Salesperson Performanc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29, No. 2(2001).

Meyer, A. D., Tsui, A. S., & Hinnings, C. R. "Configurational approaches to organizational analysi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1993).

Muthén, B. "Beyond SEM: General latent variable modeling" *Behaviormetrika,* 29(2002).

Niu, C. P. (2006). "Paternalistic leadership and its effectiveness: A scenario-based an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aipei City, Taiwan, ROC: National Taiwan University

Nyhan, R. C. & Marlowe, H. A.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 *Evaluation Review* Vol. 21, No. 5 (1997).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2007).

Pellegrini, E. K., Scandura, T. A., & Jayaraman, V.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of paternalistic leadership: An expansion of leader-member exchange theory."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5(2010).

Tang, C., & Naumann, S. E. "Paternalistic leadership, subordinate perceived leader - member exchang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 Vol 21, No. 3(2015).

Tsui, A. S., Wang, H., Xin, K., Zhang, L. H., & Fu, P. P. "Let a thousand flowers bloom: Variation of leadership styles among Chinese CEOs." *Organizational Dynamics*, 33(2004).

Walumbwa, F. O., Avolio, B. J., Gardner, W. L., Wersing, T. S., & Peterson, S. J. "Authentic leadership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eory-based measure." *Journal of Management*, 34(2008).

Woolston, R.L. 20002 "Faculty perceptions of dean transitions: does trust matt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UMI No. 3007300.

Wu, M., Huang, X., Li, C., & Liu, W. "Perceived interactional justice and trust-in-supervisor as mediators for paternalistic leadership"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8(2001).

Paternalistic Leadership Profiles and Its Effects in Military Organizations

Noh, Ju Young · Sohn, Young Woo · Chung, Eun Kyoung

Keywords

Paternalistic leadership, Latent profile analysis, Militar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aternalistic leadership profile of the military and its relationship with military life. And then, it suggests development plan of military leadership.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soldiers serving in air force units in Gyeonggi Province.

Four prominent profile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considering model suitability and interpretability. The most common was the moral leadership profile, the second was the moral-benevolent leadership profile, the third was the mature moral-benevolent leadership profile, and the fourth was the authoritarian leadership profile. Each profile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military life, mature moral - benevolent leadership profile showed the best characteristics, and authoritarian leadership profile showed the lowest characteristic.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moral and benevolent factors in military leadership education in the future, excluding authoritarian factors.

[논문투고일 : 2017. 07. 31]
[심사의뢰일 : 2017. 09. 07]
[게재확정일 : 2017. 09. 27]

국방연구 2017년 9월
제60권 제3호, pp. 145-163

육군 병사 및 간부의 고수준 스트레스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문호석*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결론 및 토의

요 약

본 연구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스트레스 고수준자인 육군의 병사와 간부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하고 스트레스 고수준자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는 육군 병사 1,493명과 간부 1,655명의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이 조사되었고, 스트레스 원인을 설명변수로 한 스트레스 고수준자 분류 모형이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특히 스트레스 고수준자가 있을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계전담부대의 병사들과 각급 부대의 초급간부들에 대해서 분류 모형을 각각 추가로 구축되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신분과 특성별로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고, 스트레스 고수준자 조기 식별을 위한 간이 진단도구도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핵심어: 간이 진단도구, 고수준 스트레스,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진단, 의사결정나무

* 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조교수.

Ⅰ. 서 론

"내·외적 사건들이 개인의 중요한 동기를 위협하고, 개인이 이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특정한 형태의 심리·생리적 반응의 혼란"을 스트레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반화된 단어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군대내의 각종 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2][3] 이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뿐만 아니라 군의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며, 군 간부들의 경우도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정신장애를 유발하거나 자살·폭행·탈영과 같은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

군과 관련된 스트레스 연구는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여러 건이 수행되었다. 병사들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고와 스트레스와의 관계, 사고 유발자를 사전에 적절하게 선별하는 기준 척도 연구, 병사 스트레스 원인 분석을 위한 척도 연구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4][5][6][7] 간부들과 관련된 연구 중에 박승일·이동귀는 군의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 초급간부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억제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울 및 무망감 수준이 증가하게 되어 자살생각이 증가한다고 하였다.[8] 김기춘 등은 초급 부사관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전투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 만족은 직무 스트레스와 전투역량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며, 직무 만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전투역량을 증대시킨다고 강조하였다.[9]

육군의 병사와 간부 스트레스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문호석 등은 육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부대유형별 또는 계급별로 차이가 있는지와 전반적인 스트레

---

1) 신응섭·이재윤·남기덕·문양호·김용주·고재원.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2004).

2) 강성록·김용주·고재원. "군내 스트레스 진단 척도의 지휘관심 수준 판정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67권 2호(2011), pp. 1-22.

3) 신응섭·김용주·이현엽. "한국군의 심리적 위기와 상담정책 발전방안." 『미래사회』 제1권(2010), pp. 1-19.

4) 진석범. "군 장병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5) 권승재. "병영 스트레스가 군 범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6) 유태현. "병영 스트레스가 군범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7) 박종구. "군대 여가프로그램이 장병 스트레스 감소의 기대효과." 『관광학연구』 제34권 3호(2010), pp. 283-303.

8) 박승일·이동귀. "군 초급간부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분노표현, 우울,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6권(2014), pp. 545-573.

9) 김기춘·박계홍·문재승. "군 조직에 있어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전투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상업교육학회지』 제28권(2014), pp. 447-477.

스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10] 연구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은 계급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미미하였고, 병사들이 근무하는 부대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스트레스 정도 차이가 있었다. 경계전담부대인 GOP, 해·강안, 향토해안부대와 같이 임무가 단순하고 예측가능한 부대의 병사들은 다른 부대의 병사들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고, 상대적으로 임무가 다양한 향토내륙과 예비부대의 병사들은 경계전담부대의 병사들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간부들의 경우는 문호석·강성록 연구에서 간부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부대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미미하였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11] 이는 병사들과 반대의 결과로 한 부대에서만 근무하는 병사들과는 달리 다양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은 부대 적응도가 뛰어나서 부대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미미하였지만, 계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다.

최근의 병사와 간부 스트레스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병사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복무염증[12]', '직무부적합[13]', '상급자특성[14]', '동료관계', '가족걱정' 등이라고 하였다.[15](문호석 등, 2015). 또한, 전반적인 간부들의 경우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스트레스 원인들로 '불시 업무[16]', '상급부대 통제[17]', '퇴근 시간', '회의보고 준비', '장래불확실' 등이라고 하였다.[18]

두 연구 모두 병사와 간부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연구와 스트레스 고수준자 식별을 위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는 스트레스 고수준자로 인해서 주로 발생된다. 오히려 'eustress'라고 하여 활력을 주는 스트레스도 있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19] 즉,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연구할

---

10) 문호석·이승호·권오정·박임희·정봉룡. "육군 부대유형별 병사 계급별 스트레스 평가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71권 3호(2015), pp. 157-182.

11) 문호석·강성록. "육군 간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및 원인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72권 2호(2016), pp. 29-55.

12) 외부와 단절, 하기 싫은 군 복무, 시간낭비라는 생각 등으로 군 생활 자체가 싫은 것을 의미한다.

13) 적성에 맞지 않음, 업무구분 불명확, 단순/반복/지루한 업무 등을 말한다.

14) 기분 따라 행동하거나 막무가내인 상관, 평가/처벌의 불공정 등을 말한다.

15) 문호석 등(2015), p. 172.

16) 무분별한 업무 지시, 시간적 여유 없이 업무 하달, 계획변경 등을 말한다.

17) 각종 현황파악, 부대 특징이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 지침, 상급부대의 과다한 지침 등을 말한다.

18) 문호석·강성록(2016), p. 48.

19) Breznitz, S. & Goldberger, L. *Stress research at a crossroads. In Handbook of Stress:*

때에 전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것과 이러한 사람들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병사들의 경우 경계전담부대 병사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평균적으로 다른 부대 병사들의 스트레스 정도보다 낮다고 해도,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위험성은 평시 실탄을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전담부대 병사들이 높을 것이다. 2014년 6월의 육군 22사단 GOP 소초에서 발생한 사건을 포함하여 큰 사고들은 주로 경계전담부대에서 발생된 점에서도 알 수 있다.[20] 또한 간부들의 경우도 부대유형에 관계없이 항시 총기 탄약 접근에 용이한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므로 고수준 스트레스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식별하여 스트레스 고수준자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교와 부사관 초급 간부의 사고발생 빈도를 볼 때에 초급간부 스트레스 고수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21]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스트레스 고수준자를 식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스트레스 정도측정 진단도구[22]와 원인측정 진단도구[23]는 군에서 활용해 오고 있는 진단도구들인데 문항수가 너무 많은 단점이 있다. 스트레스 원인측정 진단도구는 병사들의 경우는 97문항, 간부들의 경우는 30문항이고, 스트레스 정도측정 진단도구는 18문항이다. 한 번 설문에 사용되는 문항수로는 많은 수준이고, 야전과 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 속에서 모든 인원에게 다 적용하기는 제한되는 면이 많다.[24] 보다 간결한 형태의 스트레스 고수준자 식별을 위한 진단도구가 필요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즉 스트레스 고수준자인 육군의 병사와 간부들의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지를 데이터마이닝(DataMining)[25] 기법 중의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스트레스 고수준자를 식별하기 위한 모형과 간단한 진단도구를 제안하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언들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 지휘관이나 관리자들이 신속하게 스트레스 고수준자를 식별하여 보다 정밀한 확인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연구방법을 다루고, 3장에서 연구결과를 4장에서 결론 및 토의를 다룬다.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New York: The Columbia Free Press, 1995).

20) 김광수. “입대이후 줄곧 관심병사…등급 낮추면서 GOP 투입.” 『한국일보』, 2014년 6월 22일자.

21) 문호석·강성록(2016), p. 33.

22) 장세진. 『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서울: 계축문화사, 2000).

23) 강성록·고재원·김용주. “군내 스트레스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진단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31권 2호(2012), pp. 345-367.

24) 허명회. 『조사방법론 강의』(경기: 자유아카데미, 2010).

25) 위키백과에서는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군의 대표적인 7개 부대유형의 병사와 간부이다. 육군의 7개 부대유형은 GOP, 해·강안, 예비, 기계화, 향토내륙, 향토해안, 동원부대 등이다. 설문인원은 병사의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1,493명이었고, 계급별 인원은 이병 177명, 일병 660명, 상병 505명, 병장 151명으로 현 계급별 복무기간과 유사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대부분 20~22세였다(평균 21세, 표준편차 1.34세).

〈표 1〉 육군 부대유형별 설문 인원

(단위 : 명)

구 분		병사	간부		
			계	남군	여군
총 합		1,493	1,655	1,554	101
GOP부대		464	412	396	16
해·강안부대		147	249	228	21
예비부대		190	249	239	10
기계화부대		276	378	348	30
향토 부대	해안	211	148	139	9
	내륙	103	60	60	0
동원부대		102	159	144	15

간부 최종 설문인원은 〈표 1〉에서와 같이 1,655명이었고, 계급별로 하중사 613명, 상원사 235명, 준위 26명, 소중위 238명, 대위 324명, 소중령 219명이었다. 간부 설문인원은 정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샘플링으로 계급별 인원을 할당하여 결정되었다. 간부 설문인원의 연령층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계급별 연령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병사와 간부 모두 계급별 인원수와 부대유형별 인원수에 비례되도록 설문인원을 선정하였다.

〈표 2〉 간부 설문 인원의 연령 통계

(단위 : 세)

구분	하사	중사	상원사	준위	소중위	대위	소중령
연령 평균	22.6	28.5	39.8	42.2	24.5	29.4	40.0
연령 표준편차	1.2	2.2	4.0	5.6	1.1	1.7	2.7

2. 진단도구

진단도구는 스트레스 정도 측정 도구와 스트레스 원인 측정 도구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정도 측정 도구는 병사와 간부 모두 장세진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26]. 각 문항은 0~3점 척도로 54점이 가장 높은 점수가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측정결과 점수를 이용해서 3개 등급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분류한다. 즉, 9점 이하는 '정상', 10 ~26점은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은 '고 수준 스트레스군'으로 분류된다. 장세진의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현재 육군에서 측정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스트레스 원인과 관련된 진단도구는 강성록 등의 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27] 병사의 경우는 강성록의 진단도구를 3개 대항목, 11개 소항목, 97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간부의 경우는 강성록의 진단도구 중 간부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외한 4개 항목 30문항으로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간부들의 스트레스 원인 측정 진단도구의 항목들은 〈표 3〉과 같이 9개 항목이었고 세부 문항 제목들은 총 30개였다.[28]

〈표 3〉 간부들 스트레스 원인 측정 진단도구 항목

구 분	항목별 세부 문항 제목들
업무여건	불시업무, 상급부대통제, 회의·보고준비, 인접부서협조, 평가공정성
업무량과 적응	업무량 많음, 업무적응부담, 부대관리부담, 교육훈련부담, 행정업무부담
근무시간	퇴근시간준수, 주말시간보장
개인신상	개인부채, 개인습관, 장래불확실, 개인건강, 업무능력
주거환경	주거환경
가정환경	자녀 관계, 자녀 진로, 가족 건강, 가족 갈등, 아내(애인) 관계
상관관계	상관과의 의사소통, 불합리한 지시, 지침부족, 인격적대우
동료관계	동료와의 관계
부하관계	부하와의 관계, 부하 지도

3. 고수준 스트레스의 원인 분석 방법

조사된 설문자료를 기초로 고수준자 원인분석 방법으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에 분류(classific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정도측정 진단결과인 "고수준, 잠재적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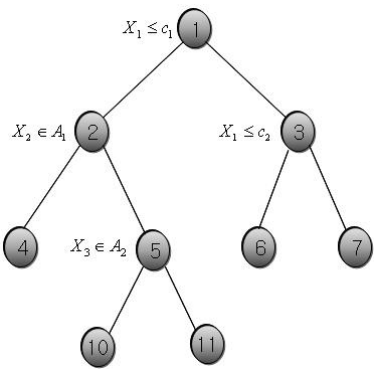
26) 장세진(2000).
27) 강성록 등(2012), pp. 356-360.
28) 문호석·강성록(2016), pp. 38-39.

정상수준"을 범주형 반응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원인항목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분류 방법 가운데서도 본 연구에서는 어떤 인원이 고수준 스트레스 자인지를 분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분류 방법인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선택하였다.[29] 의사결정나무는 예측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분류 되었는지를 다른 분류 방법들보다 설명이 잘 된다.[30]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규칙을 도표화하여 관심 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 예측, 세분화를 수행하는 데이터마이닝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석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분류 또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1]

[그림 1]은 일반적인 나무구조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원들은 노드를 나타내며, 원안의 번호는 노드 번호를 가리킨다. 나무구조내의 노드에는 최상위의 노드를 뿌리노드, 나무 종단에 있는 노드들(4, 6, 7, 10, 11번)인 종단노드, 뿌리노드와 종단노드 중간에 있는 중간노드들(2, 3, 5번)이 있다. [그림 1]에서 1번 노드는 연속형 설명변수 X_1이 c_1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는 왼쪽의 2번 노드로 그 반대의 경우는 3번 노드로 나누어진다. 이 때 1번 노드를 부모노드라고 하며, 2번 노드를 왼쪽 자식노드, 3번 노드를 오른쪽 자식노드라고 한다.

[그림 1] 의사결정나무 구조의 예



나무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분류변수 X_1과 분류점(집합) c_1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분류규칙이라고 한다. 분류규칙에 따라 분류변수와 분류집합이 결정되는 것이다.

---

29) Hastie, T., Tibshirani, R. and Friedman, J.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New York: Springer, 2001).

30) 최종후·한상태·강현철·김은석·김미경·이성건. 『SAS E-Miner 4.0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경기: 자유아카데미, 2001).

31) 허명회. 『응용데이터분석』(경기: 자유아카데미, 2014).

일반적으로 설명변수 X_1과 분류점 c_1은 부모노드의 불순도(impurity)에서 자식노드들의 불순도의 합을 뺀 값을 최대로 할 때의 분류변수와 분류집합이 된다. 나무를 어느 정도 크기로 성장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도 나무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는 정지규칙과 가지치기 방법 등이 있다. 가지치기 방법은 나무모형을 최대로 한 후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으로 10-fold 교차타당성 평가와 결합되어 최적의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하는 중요한 방법이다.[32]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장점은 유연한 분류 또는 회귀함수를 산출해내고 읽기 쉬운 형태로 적합모형을 제공하는데 있다. 즉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력이 뛰어나기에 본 연구의 취지와 잘 맞는 분류 방법이다.

Ⅲ. 연구결과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스트레스 고수준자에 대한 분류 모형은 병사에 대한 것과 간부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구축하였다. 모형 구축을 위한 부대유형별 병사 및 간부 스트레스 진단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병사 및 간부 부대유형별 스트레스 정도 측정 진단 결과

구 분		계		고 수준		잠재적 수준		정상 수준	
		병사	간부	병사	간부	병사	간부	병사	간부
계		1,493	1,654	268	102	898	884	327	668
GOP부대		464	412	42	15	277	219	145	178
해·강안부대		147	249	24	16	96	132	27	101
예비부대		190	248	54	10	108	148	28	90
기계화부대		276	378	70	26	159	197	47	155
향토부대	해안	211	148	26	12	132	72	53	64
	내륙	103	60	35	6	59	30	9	24
동원부대		102	159	17	17	67	86	18	56

1. 스트레스 고수준자 병사 분류 모형

병사에 대한 스트레스 고수준자 분류 모형은 전체 병사에 대한 것과 경계전담부대에 대한 것 두 가지로 구축되었다. 경계전담부대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기존연구에서 병사들

32) Breiman, L., Friedman, J. H., Olshen, R. A., and Stone. C. J.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alifornia: Wadsworth & Brooks/Cole Advanced Books, 1984).

은 경계전담부대와 기타부대간의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고, 경계전담부대의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경우 기타부대스트레스 고수준자보다 관리에 문제가 생길 때에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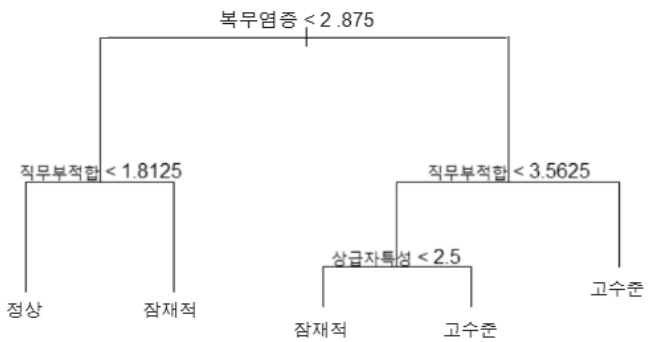
가. 전체 병사에 대한 스트레스 고수준자 분류 모형

모형 구축을 위해서 스트레스 수준별(고, 잠재적, 정상)로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즉 범주별 불균형으로 모형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up-sampling을 통해서 자료의 균형을 맞추었다.[34] up-sampling은 '병사 잠재적수준' 898명을 기준으로 하여 '병사 고수준' 268명과 '병사 정상수준' 327명을 각각 re-sampling하여 898명으로 up-sampling하였다.

병사 전체에 대한 스트레스 모형 구축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모형의 정확도는 91.5%이다. 병사 전체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보면 '복무염증', '직무부적합', '상급자특성' 3개의 원인에 의해서 스트레스 수준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결과는 'if-then'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레스 고수준자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하는데, 하나는 '복무염증'이 '보통' 이상이고 '직무부적합'에 불만이 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복무염증'이 '보통' 이상이고 '직무부적합'은 보통 이하이지만 '상급자특성' 즉 상급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 이상이라고 할 때이다. 여기서 '보통' 이라는 것은 5점 리커드 척도로 보았을 때에 3점 정도로 보면 되겠다. 실제로 [그림 2]에서와 같이 '복무염증'이 2.87 이상이라는 것은 복무염증과 관련된 4개 질문에 대한 평균값이 2.87 이상이라는 의미로, 대략적으로 5점 리커드 척도에서 보통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림 2] 병사 전체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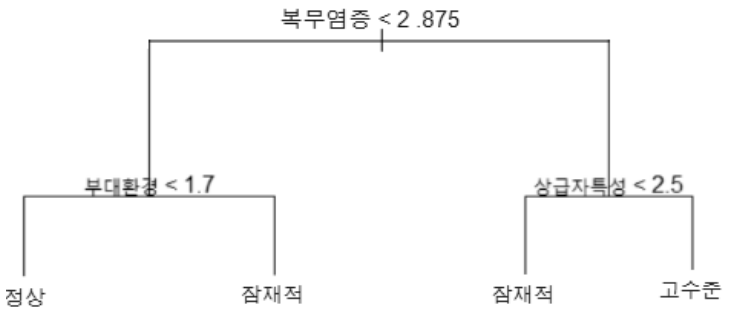
33) 문호석 등(2015), p. 156.
34) 허명회(2014).

나. 경계전담부대의 병사에 대한 스트레스 고수준자 분류 모형

경계전담부대인 'GOP부대', '해·강안부대', '향토해안부대'의 병사 822명이 모형 구축의 대상이다. 경계전담부대 병사들 가운데 '잠재적수준' 병사 505명을 기준으로 하여 '고수준' 병사 52명, '정상수준' 병사 225명을 up-sampling 하여 스트레스 범주별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료의 균형을 맞추었다.

경계전담부대의 병사에 대한 스트레스 고수준자 분류 모형 구축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모형의 정확도는 91.9%이다. 경계전담부대 병사들 모형을 보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전체 병사에 대한 모형과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복무염증', '상급자특성' 2개의 원인에 의해서 스트레스 수준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고수준자는 '복무염증'이 '보통' 이상이고 '상급자특성' 즉 상급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 이상이라고 할 때이다. 전체 병사에 대한 모형에서는 '직무부적합'이 중요했으나 경계전담부대의 경우는 '직무부적합'에 대한 원인은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이 아니었다.

[그림 3] 경계전담부대 병사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형



2. 스트레스 고수준자 간부 분류 모형

간부에 대한 스트레스 고수준자 분류 모형은 전체 간부에 대한 것과 초급간부에 대한 것 두 가지로 구축하였다. 간부들의 경우 초급간부들을 별도의 모형으로 구축한 것은 기존연구 결과 초급간부와 기타 간부 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초급간부들의 스트레스 고수준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사고 위험성이 다른 간부들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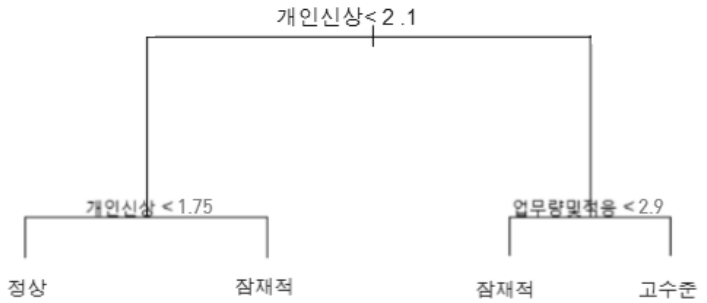
35) 문호석·강성록(2016), pp. 52-53.

가. 전체 간부에 대한 스트레스 고수준자 분류 모형

병사와 마찬가지로 간부 스트레스 고수준자 분류 모형 구축을 위해서 up-sampling을 하였다. up-sampling은 '간부 잠재적수준' 884명을 기준으로 하여 '간부 고수준' 102명과 '간부 정상수준' 668명을 각각 re-sampling하여 884명으로 맞추었다.

간부 전체에 대한 스트레스 모형 구축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모형의 정확도는 87.5%이다. 간부 전체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보면 '개인신상[36]', '업무량 및 적응[37]' 2개의 원인에 의해서 스트레스 수준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간부 전체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형 구축 결과



간부 스트레스 고수준자는 '개인신상'과 관련해서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가 있으면서 '업무량과 업무적응'에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간부들이다.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개인부채, 개인습관, 장래불확실, 개인건강, 업무능력"에 대한 것이다. '업무량과 업무적응'은 "업무량 많음, 업무적응부담, 부대관리부담, 교육훈련부담, 행정업무부담"에 대한 것이다.

간부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원인을 병사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원인과 비교해 볼 때에 간부들은 개인(개인신상과 업무능력 등)과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스트레스 고수준자가 되기 쉽고, 병사들은 징병제 체계의 군 복무에 따른 '복무염증'과 '직무부적합' 그리고 상급자와의 관계인 '상급자특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스트레스 고수준자가 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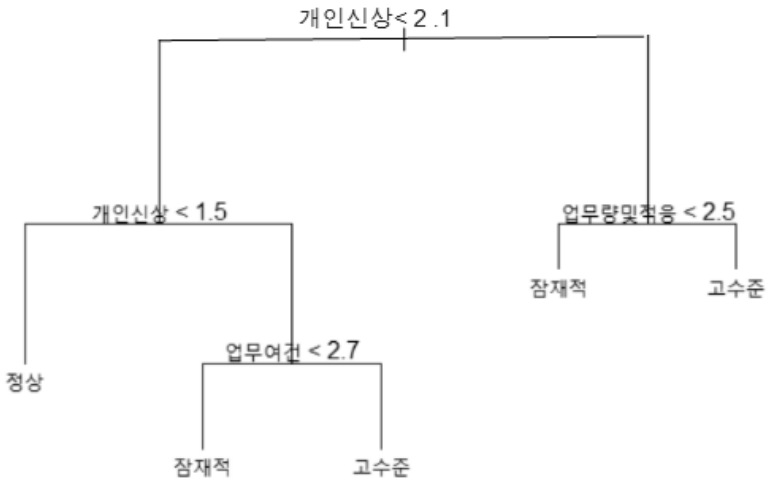
나. 초급 간부에 대한 스트레스 고수준자 분류 모형

본 연구에서는 초급 간부를 부사관 하·중사, 장교 소·중위로 정의하였다. 중사의 경우는

36) 개인부채, 개인습관, 개인건강, 장래불확실, 개인업무능력 등을 말한다.
37) 업무량의 다소, 업무적응면, 인접부서 협조 등을 말한다.

연차에 따라서 초급 간부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사의 연차는 구분하지 않았다. 초급간부 851명이 모형 구축 대상이다. 초급간부들 가운데 '잠재적수준' 초급간부 427명을 기준으로 하여 '고수준' 초급간부 43명, '정상수준' 초급간부 381명을 up-sampling 하여 스트레스 범주별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료의 균형을 맞추었다.

[그림 5] 초급간부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형 구축 결과



초급간부에 대한 스트레스 고수준자 분류 모형 구축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모형의 정확도는 86.6%이다. 초급간부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보면 '개인신상', '업무량 및 적응', '업무여건' 3개의 원인에 의해서 스트레스 수준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간부 전체 모형과의 차이점은 '업무여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업무여건'은 "불시업무, 상급부대통제, 퇴근시간, 회의·보고준비" 등에 대한 것으로 초급간부들은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견간부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Ⅳ.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육군의 병사와 중령이하 간부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고수준에 대한 분류모형 구축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기존 연구들이 병사와 간부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전반적으로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고수준자를 중점 대상으로 분류모형 구축과 원인분석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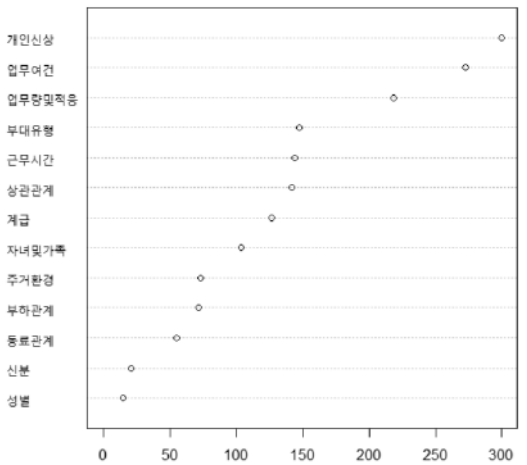
였다는 점과 스트레스가 높으면 더욱 위험할 수 있는 집단인 경계전담부대 병사들과 초급간부에 대한 분류모형 구축과 스트레스 원인 분석을 별도로 하였다는 점이다.

〈표 5〉 병사 및 간부 스트레스 고수준자 주요 원인들

구 분		주요 원인항목
병사	전체	복무염증우1, 직무부적합우2
	경계부대	복무염증우1, 상급자특성우2
간부	전체	개인신상우1, 업무량 및 업무적응우2
	초급간부	개인신상우1, 업무여건우2, 업무량 및 업무적응우3

* 우1 : 우선순위 1번, 우2 : 우선순위 2번, 우3 : 우선순위 3번

[그림 6] 랜덤포리스트 결과 초급간부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원인 우선순위



병사와 간부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주요 원인들은 〈표 5〉와 같다. 〈표 5〉의 주요 원인들의 우선순위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결합한 랜덤포리스트[38](random forest)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다. [그림 6]이 초급간부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랜던포리스트를 통해서 평가되는 원인 항목들의 우선순위 예이다. 다른 모형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그림 6]에서 x축의 값이 높은 곳에 위치한 원인이 모형에서 영향력이 높은 변수(원인)을 의미한다.[39]

38) 랜덤포리스트는 분류, 회귀 분석 등에 사용되는 앙상블 학습 방법의 일종으로, 훈련 과정에서 구성한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로부터 분류 또는 평균 예측치를 출력함으로써 동작한다(허명회, 2014).

39) 허명회(2014).

병사들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첫 번째 원인은 '복무염증'이었다. '복무염증' 즉 "외부와 단절, 하기 싫은 군 복무, 시간낭비라는 생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스트레스 고수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복무염증'은 개인동기 없이 입대하는 현재 징병제 아래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현실로 간주해 버리고 말면 안되겠다. 군생활의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에게 군생활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동기와 목표를 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원인은 '직무부적합'이었다. 즉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업무구분 불명확, 단순/반복/지루한 업무" 등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스트레스 고수준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병사들의 직무를 적성에 맞는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시행중인 특기병 제도, GOP 근무 지원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각급 부대내에서도 병사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원인은 '상급자특성'이었다. 이는 "기분 따라 행동하거나 막무가내인 상관, 상관에 의한 평가/처벌의 불공정" 등에 따른 스트레스였다. 특별이 경계전담부대의 병사들의 경우에는 '상급자특성'이 '복무염증'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이었다. 경계전담부대의 경우는 '직무부적합'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즉 경계전담부대의 경우는 간부들의 인성이 다른 부대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부들의 인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우수간부들이 경계전담부대에 보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한 부분이다. 병사들의 스트레스 고수준자 주요 원인인 "복무염증과 직무부적합"은 징병제 하에서는 어쩌면 상수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급자특성'은 간부들의 인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간부 선발 시나 간부 교육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다룸으로써 보완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간부들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첫 번째 원인은 '개인신상'이었다. '개인신상' 즉 "개인부채, 개인습관, 장래불확실, 개인건강, 업무능력" 등에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스 고수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는 간부들 중에서 '개인신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신상이 어려운 간부들에 대해서 주변동료들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확인을 하며 도움을 주어야 하고, 형식적인 현황만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되겠다. 두 번째 원인은 전반적인 간부들의 경우는 '업무량과 업무적응'이었고, 초급간부의 경우는 '업무여건'이었다. 먼저 '업무량과 업무적응'의 스트레스는 "업무량 많음, 업무적응 안됨, 부대관리부담, 교육훈련부담, 행정업무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많이 발생 된다. 특별히 부대와 보직을 자주 옮기는 간부들에게는 전입 시나 보직 변경 시에 세심한 지도가 필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초급 간부의 경우에 '업무여건' 의 스트레스인 "예측 가능한 업무, 지나친

통제, 회의·보고 준비, 인접부서와 협조, 평가 부담" 등에 '업무량과 업무적응' 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명확한 지침과 도움을 줌으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모형을 통해서 스트레스 고수준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간이(short-form) 진단도구를 제안한다. 기존 스트레스 정도측정 및 원인 측정 진단도구는 병사의 경우 115문항, 간부의 경우 48문항이다. 정교한 진단을 위해서 기존 내용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야전의 현실이 시간 제약이 많이 있고 스트레스 고수준자를 조기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 고수준자를 조기 식별하는 간이 진단도구도 필요하다. 간이 진단도구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고수준일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들을 식별한 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진단을 한다면 제한된 환경 하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병사와 간부 스트레스 고수준자 식별 간이 진단도구는 각각 1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단도구 세부 내용은 Appendix 1, 2에 있다. 간이 진단도구로 측정한 값을 각 항목의 질문 수로 나누워 신분(병사, 간부)과 특정대상(경계부대유무, 초급간부유무)에 맞는 진단모형에 적용하면 되겠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병사들과 간부들의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원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의 한 기법인 의사결정나무 모형 구축을 통해서 병사들과 간부들의 스트레스 고수준자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스트레스 고수준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또한, 구축된 모형을 기초로 간이 진단도구를 제시하여 야전에서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 고수준자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간이 진단도구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게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간이 진단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도구의 보완과 간략화가 이루어져서 야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부 가운데 초급간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부사관, 위관, 영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세분화 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향후에 추진해 볼 수 있는 분야이다.

Appendix 1. 병사 스트레스 고수준자 식별 간이 진단도구

질문	평가				
	①	②	③	④	⑤
1. 군 복무는 시간낭비라는 생각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					
2. 하기 싫은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					
3. 군에서 내 초라한 모습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					
4. 외부와 단절된 군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					
5.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					
6. 업무구분이 불명확해서 스트레스가 많다.					
7. 위험한 직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다.					
8. 단순/반복/지루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					
9. 상관의 강압적 복종 요구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					
10. 막무가내인 상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					
11. 상관의 사적인 업무 지시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					
12. 기분 따라 행동하는 상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					
13. 능력을 고려치 않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다.					
14.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많다.					
15. 평가/처벌이 불공정해서 스트레스가 많다.					

* 질문구분 1~4 : 복무염증, 5~8 : 직무부적합, 9~15 : 상급자특성
* 평가점수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ppendix 2. 간부 스트레스 고수준자 식별 간이 진단도구

질문	평가				
	①	②	③	④	⑤
1. 개인 부채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된다.					
2. 무절제한 개인 습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된다.					
3. 장래의 불확실성이 스트레스가 된다.					
4. 개인 건강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된다.					
5. 개인적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스트레스가 된다.					
6. 업무량과 업무 부담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된다.					
7. 초기 업무적응을 위한 도움(또는 지도)이 부족해서 스트레스가 된다.					
8. 부대관리(병력관리 제외)에 대한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된다.					
9. 교육훈련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된다.					
10.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된다.					
11. 예측이 안 되는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된다.					
12. 상급부대의 통제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된다.					
13. 회의(보고) 준비 시간이 길어서 스트레스가 된다.					
14. 인접부서와 협조가 잘 안돼서 스트레스가 된다.					
15. 상급부대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된다.					

* 질문구분 1~5 : 개인신상, 6~10 : 업무량 및 업무적응, 11~15 : 업무여건
* 평가점수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참 고 문 헌

강성록·김용주·고재원. “군내 스트레스 진단 척도의 지휘관심 수준 판정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67권 2호(2011).

강성록·고재원·김용주. “군내 스트레스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진단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31권 2호(2012).

권승재. “병영 스트레스가 군 범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김광수. “입대이후 줄곧 관심병사...등급 낮추면서 GOP 투입.” 『한국일보』, 2014년 6월 22일자.

김기춘·박계홍·문재승. “군 조직에 있어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전투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상업교육학회지』 제28권(2014).

문호석·이승호·권오정·박임희·정봉룡. “육군 부대유형별 병사 계급별 스트레스 평가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71권 3호(2015).

문호석·강성록. “육군 간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및 원인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72권 2호(2016).

박승일·이동귀. “군 초급간부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분노표현, 우울,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6권(2014).

박종구. “군대 여가프로그램이 장병 스트레스 감소의 기대효과.” 『관광학연구』 제34권 3호(2010).

배현웅·문호석. 『R과 함께하는 상관 및 회귀분석』(서울: 교우사, 2010).

신응섭·이재윤·남기덕·문양호·김용주·고재원.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2004).

신응섭·김용주·이현엽. “한국군의 심리적 위기와 상담정책 발전방안.” 『미래사회』 제1권(2010).

유태현. “병영 스트레스가 군범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장세진. 『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서울: 계축문화사, 2000).

진석범. “군 장병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최종후·한상태·강현철·김은석·김미경·이성건. 『SAS E-Miner 4.0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경기: 자유아카데미, 2001).

허명회. 『조사방법론 강의』(경기: 자유아카데미, 2010).
허명회. 『응용데이터분석』(경기: 자유아카데미, 2014).
“입대이후 줄곧 관심병사…등급 낮추면서 GOP 투입.” 『한국일보』(2014.06.22.).

Breznitz, S. & Goldberger, L. *Stress research at a crossroads. In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The Columbia Free Press, 1995).

Breiman, L., Friedman, J. H., Olshen, R. A., and Stone. C. J.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alifornia: Wadsworth & Brooks/Cole Advanced Books, 1984).

Hastie, T., Tibshirani, R. and Friedman, J.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New York: Springer, 2001).

The Study on Analysis of the Cause of High Level Stress of ROKA's soldiers and Officers and Management Policy

Moon, Hoseok

Keywords

Simple diagnostic tools, High level stress, Stress cause, Stress level, Decision tr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high level stress in ROKA' soldiers and officers whom have suffered through high level stress and is to propose management policy for them. In the study, 1,493 ROKA's soldiers and 1,655 officers were investigated for obtaining the degree and causes of stress, and stress high level classification models were constructed using decision trees. Especially, classification models were additionally constructed for the soldiers of the high risk perimeter units and the junior officers of each uni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stress reduction by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igh level stressors, and simple diagnostic tools for the identification of high level stress were also presented in this study.

[논문투고일 : 2017. 07. 18]
[심사의뢰일 : 2017. 09. 08]
[게재확정일 : 2017. 09. 27]

저자약력(게재순)

김성주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군사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북한의 군사정책 및 안보전략, 당-군관계 등으로 이와 관련한 논문작성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연구로는 "북한 병진노선의 내용 및 논리구조 분석: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2016),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 과정 연구" (2015) 등이 있다.

E-mail: ksj2744@dsc.mil.kr

박성훈

2005년 와이오밍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경제연구 편집위원장과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 부단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산업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게임이론이며, 특히 법정분쟁, 환경분쟁, 진화게임이론 등에 집중하고 있다.

E-mail: park@Chosun.ac.kr

기세찬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5년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북한문제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2016년에 난징대학 방문학자로 1년간 중국 난징에 체류하였다. 현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일전쟁과 중국의 대일군사전략(1937-1945)』,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공저), 『21세기 국제안보의 도전과 과제』(공저),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역서), "춘추시대의 전쟁수행방식과 전쟁관", “국민정부의 항일유격전에 관한 연구”, “중일전쟁시기 국민정부의 전시동원에 관한 연구”, "중국 당군관계에 관한 일고찰"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mail: sechanki@hanmail.net

박균열

현재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법관 및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국가보훈위원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통일한국의 군 통합과 군대문화"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로 정치윤리 분야를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가치의식의 측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독일 콘스탄츠대학에서 은퇴한 Georg Lind 교수가 개발한 도덕적 역량 측정 도구(MCT)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형으로 표준화했으며,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공직자 청렴판단력 측정 도구'(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를 개발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Community, Ethics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공저), 『도덕판단력 측정』(공저), 『안보관련 교과서 연구』, 『국가안보와 군대윤리』(공저) 등이 있고, 주요 역서로는 『인간안보』(공역), 『공감과 도덕발달』(공역), 『윤리탐구공동체교육론』(공역), 『다문화주의 윤리학』(공역), 『도덕적 민주적 역량 어떻게 기를 것인가』(공역) 등이 있다.

E-mail: pgy556@hanmail.net

배경기

현재 육군 중령(진)으로 국방기술품질원 전투물자센터에서 근무 중이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군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이와 관련한 논문작성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연구사항으로는 Trends in Body Mass index and Associations With Physical Activity Among Career Soldiers in South Korea, JPMPH, July 2011, Vol. 44, No. 4, 167-175이 있다.

E-mail: loda2001@daum.net

조창래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산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육군 소령으로 국군의무학교 전력발전처에 근무하고 있다. 2012년에 U.S. Army Captains Career Course, 2016년에 U.S. Army Biomedical Equipment Technician Course를 수료하였다. 주요 연구사항으로는 군 의료후송 통합관제 시스템(2015), 전시환자판단(2017), 군 전투력 발휘를 위한 안경 보급방안 개선연구(2017) 등이 있다.

E-mail : ckdfo3433@gmail.com

노주영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공군 조종사로서 일선 비행단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공군항공안전단 소속 위탁 교육생으로 연세대학교 인지과학 협동과정 석사 학위 과정에 수학 중이다.

E-mail: koock04@gmail.com

손영우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4년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였고 2013년부터 BK21 플러스 글로벌 창의인재양성 심리학과 사업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조종적성 진단모형 개발사업, 의도적 연습과 자존감의 수반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등 여러 기관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최근 연구로는 "Effects of employees' social comparison behavior on distributive justice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2015), "군 장병의 역할구별, 응집력, 생활관만족 및 지각된 분대수행의 관계: 생활관구조와 분대장 과업리더십의 조절효과"(2016), "자아탄력성, 감정경험, 삶의 의미 및 직무만족의 구조적 관계: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2016)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E-mail: yshon@yonsei.ac.kr

정은경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4년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2015년부터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연구로는 "사업용운전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음주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15), "코칭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 상담에 대한 인식과의 비교"(2016),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airport security screeners"(2017)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E-mail: ekchung@kangwon.ac.kr

문호석

현재 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조교수로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고려대학교에서 산업공학 박사 취득 후 “반복이진자료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나무”의 논문으로 동 대학원 통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육군 전투지휘훈련단과 분석평가단에서 근무하였으며 국방 빅데이터 분석, 국방 M&S, 국방 조사방법론 분야에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hsmoon0329@kndu.ac.kr

연구소 소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술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 방문학자 초청 세미나

❍ 7월 11일

- 주　제 : 지역적 관점 : 한반도에서 억제의 진화
- 발표자 : Toby Dalton (美카네기재단)
  Narushige Michishita (日정책연구대학원대학)
  Tong Zhao (中)

『국방연구』 편집 요강

공모 논문의 심사

가. 공모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 논문 접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접수)

(2) 편집위원회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회부 결정

※ 제목 및 내용이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은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함

(3) 논문심사 의뢰(심사는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인이 선정한 심사자 3인)

(4) 논문심사 판정은 심사결과를 통해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5) 최종 판정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

(6) 논문게재 시 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을 각 논문 후미에 게재

나. 공모논문의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자 수, 심사방법, 심사기한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교내외 심사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투고논문의 심사자를 추천하되, 가능한 교외 전문가가 심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특히, 투고된 논문의 저자가 교내의 저자일 경우에는 교외 심사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3인에게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자문위원회 회의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한 후 시행하며, 심사과정 혹은 회의과정에서 편집간사는 필요한 경우 논문상 저자를 추측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

(4) 논문의 심사는 논문 접수 후 실시하며, 접수 후 45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1년 이후에는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기고할 수 있으며, 내용변경 없이 제목만 변경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투고 및 집필요령

I. 투고 안내

1. 보내실 글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순수 창작물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밝혀야 하고, 학술성과 시사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함.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에 기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3.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에 귀속됨.
4. 기고논문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요약(400자 내외) 및 핵심어(3~5개)를 포함하여야 함.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정보(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명기
6.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본문과 각주에는 저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하지 않아야 함.
7. 원고 집필요령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음.

II.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용지 17~18매)로 함. 분량 계산은 <ㅎ글>의 문서정보-문서통계를 기준으로 함.

2.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1)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단, 인용구가 3행 이상일 때는 본문과는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되, 본문 활자보다 1포인트 작게 함.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引用源을 각주에서 밝힘.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引用源을 그대로 밝혀야 함.

나. 각주 작성요령

1) 저서

가) 황병무. 『전쟁과 평화의 이해』(서울: 오름, 2001). p. 302.

나) Bose, Partha. *Alexander the Great's Art of Strategy* (New York : Gotham Books, 2003), p. 98.

2) 논문

가) 남궁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4호(2003), pp. 7-30.

나) Nye, Joseph S.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Winter 1999), p. 21.

3) 편저서

가) 이홍구. "마르크스와 정치이론." 이홍구(편). 『마르크시즘 100년』(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p. 120.

나) Strange, Susan.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277.

4) 번역서

Baylis, John. 박창희(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156-157.

5) 학위논문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 25-26.

6)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 71.

7)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가) 황병무(2001), p. 300.

나) Bose(2003), p. 90.

8) 인터넷 자료

홍길동, "한국의 국방정책," http://www.dic.mil/jcs/core/nms.html (검색일: 2005. 5. 4).

9)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00일보』(2003. 4. 19).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Weekly Review*. May 3, 2002, p. 19.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2)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
3)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함. 다만 마지막의 쪽수는 제외

Ⅲ. 기타 참고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풀어서 쓰고, 그 다음 번부터는 약어를 사용
2. 본문 속의 제목들(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함.
3. 표 및 그림에는 제목을 붙여야 하고 <표 1>,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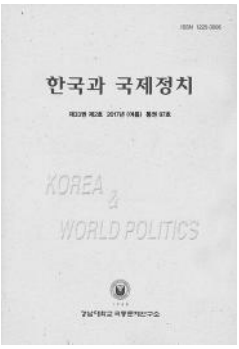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 (1985), pp. 1-2.
4. 본문 속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음.
5.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 제목 우측 상단에 별도의 각주표시로 기재할 수 있음.

6.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의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음.

※ 심사 후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1)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2) 저자의 한글 성명 및 영문 성명, (3) 3~5개의 한글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 (4) 200단어(words) 내외의 영문 요약문, (5) 200자 내외의 한글 '저자 소개문'(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제2호, 2017년(여름) 통권 97호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입니다.

- 경제안보연계분석: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의 점검 / 김기석
- 한국 유권자 투표행태의 지속과 변화: 통합자료 분석 / 문우진
-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지속과 변화: 경쟁적 가설의 경험적 검증을 통한 전망 / 김용철·조영호
- 박정희 정권은 '군부' 지배체제였나: 군 출신 정치엘리트 충원을 중심으로 / 김인균·강원택
-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전문 삽입과정과 당대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 황하빈·강정인
- 제임스 로즈노(James Rosenau)의 변화 개념으로 본 분단국가의 대(對)정책:
  대북정책 수립에 주는 역설 / 박정진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발 간 일 : 3/ 6/ 9/ 12월 말일 (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최대 150매 이하)
- 원고 보내실 곳 :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
  전화 : 02) 3700-0702 (김혜경)
  이메일 접수 : ifes@kyungnam.ac.kr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2017년 봄(통권 제115호)

-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설인효, 박원곤
- 남쿠릴 문제에 대한 다자간 전략적 판단 / 배범기
- 중견국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리더십 발휘방안:
  고위급 직책 배출을 중심으로 / 손대선
- 박정희 정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추론과 한미동맹의 갈등과
  완화 과정 연구 / 김지일
-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 김태현
- 제4차 산업혁명기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혁신 방향:
  소요창출을 위한 전투발전체계 혁신을 중심으로 / 서상국, 장세훈, 김용삼
- 독일 연방 사이버군 창설 계획과 한국군 적용방향
  / 이용석, 권헌영, 황석중

▮ 투고를 환영합니다 ▮

『국방정책연구』는 국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다룬 논문과 연구 자료를 수록하는 전문학술지로서 2008년 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A.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아니 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B.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 보내실 곳 : 한국국방연구원 KIDA Press『국방정책연구』담당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우체국 사서함 250호(우편번호; 130-650)
E-mail / jdps@kida.re.kr 전화/02)961-1291 팩스/02)961-1171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통일연구원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 체계적으로 연구 · 분석하며,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관련 연구자분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기획논문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대북 경제재재 심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전재성
- 트럼프 대외정책기조와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변화 전망: 재균형 정책의 진화를 중심으로/ 정구연

■ 일반논문

- 중등 도덕과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 박균열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성취와 문제점/ 김헌준
- 개성공단에서의 공동 거버넌스 연구: 모델의 구축과 함의를 중심으로/ 박지연·조동호
-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영향/ 신종호

『통일정책연구』 원고 모집 안내

▶ 기고할 논문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 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원고매수는 국문 원고지 120매 내외입니다.

▶ **문의 및 제출처**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 및 http://kinu.jams.or.kr 공지사항 내 제출양식 및 기획주제 등 공지
- 논문원고는 http://kinu.jams.or.kr 회원가입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 kinups@kinu.or.kr, 전화 02)2023-8203, 팩스 02)2023-8296 로 연락바랍니다.

▶ 제출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국 가 전 략

제23권 3호(가을호), 2017년

『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정책지향성을 지닌 심사제 학술지로서, 국가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2002년 12월 한국연구재단의 국내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학술지"로 선정됨으로써 동 분야의 권위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전략』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 연구: 기초적 유형의 개념화 / 백우열
- 대량응징보복(KMPR)에서 공군력의 역할에 관한 연구: ISR과 PGMs을 중심으로 / 정수·조관행·홍성표
- 미국과 중국의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써의 한반도와 북핵(北核) 딜레마 / 오승렬
- 중국경제의 변화와 대북 노동력 활용의 특성 / 이종운
- 일본의 방위비분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백재옥
-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글로벌 질서변환의 프레임 경쟁 / 김상배
- 국제사회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동향 연구:
  OECD와 EU 의 중점 적용 분야 분석을 중심으로 / 문경연·손혁상

『국가전략』 원고 공모

▶ 보내실 글은 시사성과 학술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재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출판된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세종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길이로 제출하되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국가전략』 '원고집필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응모 시에는 원고와 200자 내외의 '논문 요약문' 그리고 투고자의 주소, 전화·휴대폰,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50-7614, 031-754-0100(Fax), public@sejong.org (『국가전략』 편집위원회 간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ume 60, Number 3, September 2017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09
9 771229 359804
ISSN 1229-3598